차 례

표지삽화 김 경 송
박 길

《세 총사》에 대하여

장편소설《세 총사》는 19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알렉산더 듀마의 수많은 작품들가운데서 《몽떼끄리스또백작》과 함께 가장 뛰여난 명작으로 널리 알려진 작품입니다.

이 책은 상하권으로 된 부피 큰 장편소설을 어린 동무들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줄거리를 추려서 이야기로 엮은것입니다.

듀마의 작품들이 거의 모두 그러하듯이 《세 총사》도 간악하고 음흉한 무리들과 맞서싸우는 참된 인간들의 슬기롭고 용감한 투쟁을 그린 소설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다르타냥은 근위총사(국왕을 호위하는 근위병)가 되려는 지향을 안고 시골에서 빠리로 올라옵니다.

다르타냥이 첫걸음부터 자기앞에 적수로 나타난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사나이를 쫓아가던 길에 세 총사를 친구로 사귀게 되는 류다른 사건들, 왕비의 시녀인 보나시부인을 통하여 리셜리총리가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험에 처한 왕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영국에 다녀오기까지의 모험에 찬 로정, 악당들의 흉계를 짓부시고 프랑스로 돌아와 흩어진 친구들을 찾는 흥미있는 사건들… 실로 다르타냥에게는 걸음걸음 위험이 그림자처럼 따르고있지만 그는 국왕과 리셜리총리사이의 알륵과 모순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죽음의 고비들을 무사히 넘기고 음모를 꾸미던놈들에게 오히려 골탕을 먹이군합니다. 악에 받친 원쑤들은 저들의 밀정인 밀라디를 통하여 왕비를 은근히

사모하는 영국공작을 비렬하게 암살하고 나중에는 보나시부인까지 독살합니다. 다르타냥과 그의 세 친구들은 마침내 밀정 밀라디를 찾아내여 그 녀자가 저지른 수많은 죄악을 낱낱이 발가놓고 단호히 처단합니다. 그후 다르타냥은 근위총사대의 부대장으로 승급합니다.

흥미있는 사건들과 통쾌한 모험으로 엮어진 이 작품은 다르타냥의 젊은 패기와 열정, 뛰여난 검술과 용감성, 친구들에 대한 두터운 우정과 의리를 무척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인 세 총사도 불타는 정의감과 의협심을 지닌 성실하고 참된 인간들입니다.

특히 남달리 기구한 운명을 지닌 웅심깊고 신중한 아토스는 무척 인상깊은 인물입니다.

반면에 무능한 국왕 루이13세와 음흉한 모략가인 리셜리총리 그리고 어려서부터 죄악의 길만을 걸어온 밀라디는 혐오스럽고 가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참으로 이 소설은 두터운 우정과 고상한 의리를 지닌 다르타냥과 그의 세 친구들이 겪어온 가지가지 모험을 감명 깊게 보여줌으로써 성실하고 용감하고 참된 인간들을 값높이 찬양한 특색있는 력사소설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는 봉건통치배들의 학정밑에서 고통받는 근로인민대중의 생활이 거의나 그려져있지 않습니다. 주인공 다르타냥도 지방귀족출신의 청년으로서 어디까지나 국왕과 왕비에게 충실한 인물로 그려지고있으며 그자신이 나중에는 근위총사대의 부대장으로 승급할뿐만아니라 자기의 오랜 적수였던 로슈포르백작과도 화해합니다.

그밖에 인간관계설정에서도 왕비가 적대국인 영국공작

을 사랑하고 주인공이 보나시부인을 사랑하는것과 같은 부족점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점들을 옳게 가려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 작품은 우리 독자들에게 지난날의 문학을 폭넓게 리해하는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허 여 극

제 1 장

빠리에 온 다르타냥

1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전 프랑스의 마른이라는 시골읍에서 어느날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읍거리로는 녀자들이 넋없이 뛰여가고 남자들은 저마다 창이나 소총을 들고 프랑므니에려관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린이들이 집집마다에서 발을 구르며 울어댔습니다.

려관앞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있었습니다.

사람들속에 둘러싸인 한 젊은이가 무사와 마주서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있었습니다.

《뭐가 우스운가말이요? 뭐가, 엉? 어서 말해보오.》

젊은이의 차림새는 참으로 볼만하였습니다. 풀색조끼는 빛갈이 날아서 바탕을 겨우 알아볼수 있을 정도이고 허리에 찬 칼은 땅에 질질 끌리리만큼 길었습니다.

얼굴생김새는 그가 가스코뉴지방의 태생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었는데 이 지방출신들이 쓰는 깃털이 달린 베레모를 어울리지 않게 쓰고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또한 괴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몸뚱이에는 누런 털을 뒤집어썼으나 꼬리에는 털이 없었으며 다리에는 부스럼이 나서 걸을 때마다 무릎밑에 머리를 수그리군하였습니다. 털빛도 이상하고 걸음걸이도 괴상하여 여기까지 오는동안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였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는 가슴을 쑥 내밀고 제법 의젓하게 말을 타고 왔지만 그 말때문에 여간 망신스럽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이름을 다르타냥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르타냥이 집을 떠날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 말은 여기서 나서 13년동안이나 우리 집에서 자랐단다. 너도 정이 들었을테지. 아무리 처지가 구차해지더라도 절대로 이 말을 팔아선 안된다. 그리고 싸움터에 나가서는 잘 돌봐주어야 한다. 알았느냐?》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차고있던 긴 칼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칼은 조상때부터 전해내려오는 훌륭한 칼이다. 빠리에 도착하면 곧 트레빌님을 찾아뵙도록 해라. 트레빌님은 임금님을 호위하는 총사대(친위대) 대장이시란다.

국왕폐하의 신임이 두터운것은 말할것도 없고 프랑스에서 으뜸간다는 리셜리총리도 그만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단다. 그렇다고 하여 구태여 트레빌님을 겁낼 필요는 없다. 나하고는 송아지동무니까 너를 잘 돌봐주실게다.

한가지 일러두지만 부디 우리 가문을 더럽히지 말아라. 국왕폐하와 리셜리총리밖엔 누구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용기를 내라. 출세를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한다. 네게 줄것이라곤 15에큐밖에 안되는 적은 돈과 말밖에 없다. 네 어머니가 약을 주겠다고 하더라. 심장만 다치지 않으면 어떤 상처든지 다 낫는 아주 좋은 약이다.

트레빌님에게 보내는 소개장이 여기에 있다. 어서 떠나거라.》

《아버님, 념려마십시오. 아버님 말씀을 명심하고 꼭 출세하고야말겠습니다.》

이렇게 고향을 떠난 다르타냥은 그날 저녁 프랑므니에에서 하루밤을 묵어갈 생각으로 려관에 찾아갔습니다.

수염을 기른 꽤 름름하게 생긴 무사 한 사람이 현관앞에서 다르타냥의 말을 흘끔흘끔 쳐다보며 두 사나이와 이야기를 나누고있었습니다.

다르타냥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렇게 볼꼴없는 말은 난생처음 본다니까. 저건 말이 아니라 도깨비야.》

무사가 이렇게 다르타냥의 말을 흉보고있는것이였습니다. 두 사나이는 크게 웃어댔습니다.

다르타냥은 부아가 나서 저도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엇이 우습소? 무례하지 않소?》

이렇게 되여 사람들이 모여들었던것입니다.

무사는 다르타냥쪽으로 돌아서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보고 웃는게 아니요.》

《거짓말 마시오. 난 다 들었단말이요.》

무사는 다르타냥의 말결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다르타냥은 얼른 칼자루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무사는 픽 웃고나서 말했습니다.

《이 말도 어렸을 땐 꽤 귀여웠겠소. 비록 볼꼴없이 생겼지만 때에 따라선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지.》

《뭐요? 이건 우리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명마란말이요!》

《명마? 하하하…》

《왜 웃소? 정 그렇게 놀려대겠소?》

《허허… 웃는거야 내 자유지.》

《내게 거슬리게 웃는건 싫단말이요.》

《거 대단한데.》

무사는 빈정대면서 려관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가긴 어디로 가! 돌아서지 않으면 당장 등이라도 칠테다!》

무사는 홱 돌아서서 노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하고 결투를 하자는거야? 그러지 말게. 자네 미치지 않았나?》

그 말이 끝나기도전에 다르타냥의 칼끝이 그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무사는 성큼 뒤로 물러서면서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버티고서서 여전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목숨이 아까운줄 모르는놈이군. 젖비린내나는놈 같

으니. 정말 맞서보자는거야?》

《난 거짓말할줄은 몰라. 네 목을 베여버릴테다.》

이때 아까 무사와 이야기하던 두 사나이와 려관주인이 곤봉과 삽, 부지깽이를 들고 다르타냥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다르타냥이 무사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려관주인과 부하들이 그의 앞길을 막아나섰습니다. 다르타냥은 그들을 피하려다가 현관앞마당에 삐죽이 나와있는 돌부리에 채워 갑자기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그통에 칼까지 놓쳐버리고말았습니다. 얼른 몸을 일으키려고 했으나 곤봉이 그의 어깨를 호되게 쳤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 또 한대가 이마에 떨어졌습니다.

다르타냥은 피투성이가 되여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와— 모여들었습니다.

《죽었나?》

《기절한것 같애.》

《아이구, 가엾어라. 아직 철부지인데.》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소동이 더 커질것 같은 생각이 들어 려관주인은 피투성이가 된 다르타냥을 부랴부랴 2층으로 옮겨갔습니다.

려관집 녀주인이 기절한 다르타냥의 상처를 한창 치료하고있는데 무사가 려관집주인을 찾아왔습니다.

《그 미치광이녀석은 어떻게 되였어?》

《퍽 나았습니다. 나리님은 어디 상처나 입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나는 다친데가 하나도 없어. 허, 그녀석은 도

깨비처럼 날뛰는 맹랑한놈이더군.》
《그렇더군요. 정신을 잃고있는동안에 그놈이 가지고 있는것을 뒤져보았습니다. 보자기에는 샤쯔 한벌이 있고 지갑에는 돈이 11에큐밖에 없더군요. 가난한 집안의 자식같습니다. 그런데도 헛소리로 〈이런 일이 빠리에서 일어났다면 누구든 무사치 못했을걸.〉하고 건방진 소리까지 하더랍니다.》
《허허…마치 암행하는 귀공자의 말투로군. 그래 그놈이 헛소리를 칠 때 누구의 이름같은건 중얼대지 않던가?》
《예, 트레빌님이라던가 하는 이름을 부르더군요.》
《뭐 트레빌?》
무사의 낯빛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여보 령감, 호주머니속에 다른것은 없던가?》
《근위총사대 대장 트레빌님에게 보내는 편지가 한장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거짓말 할리가 있겠습니까. 나리님.》
무사는 갑자기 입을 다물고 무엇인가 생각에 잠겨 잠자코 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그놈이 어디 있나?》
《2층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제 안해가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무사는 재빨리 일어나 다르타냥의 소지품이 있는 방으로 뛰여갔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야 다르타냥은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려관주인이 근심어린 눈으로 그를 지켜보고있었습니다.

다르타냥은 자리를 차고 일어났습니다.

《아까 그 무사는 어디 있소?》

다르타냥이 소리쳤습니다.

《무사고 뭐고 그 몸으로야 일어날수나 있겠소? 젊은이, 상처도 낫지 않았는데 한잠 더 자구려.》

《쳇, 이만한것쯤이야…》

다르타냥은 허세를 부렸지만 대뜸 뼈마디가 쑤시고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아픔을 참고 려관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령감, 그 무사가 어디 있느냐말이요?》

《그 량반은 조금전에 떠나갔소.》

《뭐요?》

다르타냥은 그게 사실이냐는듯 려관주인을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무사가 떠난것만은 사실이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소지품을 찾아보았습니다. 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얼결에 호주머니를 뒤져보았습니다. 그만 아연해지고말았습니다. 트레빌님에게 보내는 소개장이 없어진것입니다. 그는 맥이 탁 풀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이야? 편지가 없어졌단말이요. 큰일났군.》

《편지는 아까 그 무사가 가지고간걸요.》

《뭐, 뭐요? 고약하기 짝이 없는놈이군.》

다르타냥은 쏜살같이 현관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현관앞에는 마차 한대가 서있었습니다. 때마침 무사는 마차의 발판을 디디고서서 마차안에 있는 젊은 녀자와 수군수군 이야기를 나누고있었습니다.

마차의 창문으로 얼굴을 내민 젊은 녀자는 무척 아름

다왔습니다. 비단처럼 부드러운 흰 살결, 어깨까지 치렁치렁 드리운 굽실굽실한 금빛머리, 그윽한 푸른 눈과 장미빛입술 그리고 날씬한 몸매와 눈처럼 흰 손…

다르타냥은 이때까지 이처럼 아름다운 녀자를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기둥뒤에 숨어서 두 사람의 거동을 몰래 살폈습니다. 다르타냥은 무사의 오른쪽 빰에 비스듬히 난 칼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래, 그분의 분부는 무엇인가요?》

녀자가 물었습니다.

《곧 영국으로 돌아가서 공작이 런던을 출발하였는지 어떤지를 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빠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금발의 아름다운 녀인을 실은 마차는 어둠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르타냥이 무사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겨뤄보자.》

그러나 무사는 다르타냥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조무래기로구나. 모처럼 다시 만났지만 너와 장난할 사이가 없어. 안됐다.》

그는 달려드는 다르타냥을 뿌리치고 옆에 매두었던 흰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말궁둥이에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말은 바람처럼 그의 옆을 스쳐지나 어둠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야, 이 비겁한놈아, 편지를 내놓아라. 그게 무슨 비렬한 짓이냐!》

다르타냥은 뒤따라가면서 소리질렀습니다. 하지만 무사의 흰 말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앞이 아찔하여 길 한가운데 풀썩 주저앉고말았습니다.

다르타냥은 다시 려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려관주인이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준 약을 바르니 곧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며칠후 다르타냥은 길을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날뛰지 마시오.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수 있소. 그건 그렇고 숙박료나 치르시오.》

려관주인이 하는 말이였습니다.

《얼마요?》

《상처도 치료해주고 말도 먹여주었으니까 퍼그나 될겁니다.》

다르타냥은 2에큐를 주인의 손바닥에 던져주고는 재빨리 말을 집어타고 떠났습니다.

그후 빠리에 닿을 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말이 여전히 대가리를 숙이고 걸었기때문에 길가는 사람들의 웃음을 샀을따름이였습니다.

2

다르타냥은 빠리에 도착하자 인차 그 누런 말을 팔아버렸습니다. 말은 없어도 별일이 없었지만 칼이 없이는 곤난하기때문에 그는 고물상에 가서 칼을 한자루 샀습니다.

이제는 하숙을 정해야 하였습니다.

다르타냥은 거리를 두루 돌아보다가 룩센부르공원근처에 있는 값싼 세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는 지붕밑에 있는 낡은 다락방에 거처를 잡았습니다. 방은 보잘것없었지만 트레빌이 사는 거리가 가깝다는 말을 듣자 어지간히 만족해하였습니다.

그날밤 다르타냥은 출세의 길에 나선 자기의 미래를 공상하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트레빌은 다르타냥과 마찬가지로 가스코뉴의 가난한 귀족출신이였습니다. 그는 빠리에 나와서 오로지 자기의 용맹과 지혜로 출세한 사람이였습니다.

루이13세는 트레빌을 신임하여 근위총사대 대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트레빌대장은 검술이 뛰여나고 인품이 높았기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있었습니다.

다르타냥은 아침이 되자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먼저 트레빌대장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넓은 뜰안에 들어섰습니다. 무장한 총사(친위병)들이 여기저기서 이상한 눈초리로 다르타냥을 훑겨보고있었습니다. 다르타냥은 조마조마한 마음을 누르고 애써 태연한 얼굴로 층계를 따라 트레빌의 응접실로 다가갔습니다.

겁내지 말라고 하던 아버지의 말을 되새기면서 다르타냥은 가슴을 젖히고 응접실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제멋대로 들어가면 안되오.》

하인이 그의 앞을 막아나섰습니다.

《트레빌님을 뵈오려는데요.》

《승인도 안받고 함부로…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난 당당히 면회를 신청하고 들어왔소. 각하는 우리 아버지의 친구란말입니다. 먼 시골에서 왔는데 들여보내주시오.》

《지금 각하께선 바쁘시오. 짬이 나면 알릴테니 옆방에서 기다리오.》

하인은 다르타냥을 대기실로 데리고갔습니다.

다르타냥은 으리으리한 가구를 둘러보며 설레이는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습니다. 이제 당장 트레빌이 찾지 않을가 하여 몇번이나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하였습니다.

이윽고 그를 불렀습니다.

다르타냥은 트레빌에게 머리가 마루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트레빌은 빙긋이 웃으면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너그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실례했네. 난 늘 이렇게 바쁘게 지낸다네. 한 집안의 가장처럼 말일세. 근위병총사들이란 체통은 크지만 꼭 어린애같다니까. 그걸 다 돌봐줘야 하거든. 내가 바라는건 어떻게 하면 임금님과 리셜리총리를 잘 받들어모시겠는가 하는것뿐일세.》

다르타냥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트레빌대장과 리셜리총리사이가 좋지 못하다는것을 알고있었기때문이였

습니다.
트레빌은 다르타냥의 이러한 태도를 보고 이 젊은이가 여간내기가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자네 아버지를 잘 아네. 그래서 자네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주고싶은데, 그래 무슨 일로 왔나?》
《저는 총사가 되고싶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트레빌님에게 이 뜻을 말씀드리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보니 제가 바라는것이 그리 쉽사리 이루어질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총사가 된다는건 매우 명예스러운 일이야. 그렇다고 해서 자네가 생각하는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전투에 나가 서너번쯤 공을 세우고 다른 호위대에서 2년쯤 근무해야만 총사대에 들어올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전투에서 서너번 공을 세우는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였습니다. 그것을 알고있었기때문에 다르타냥은 더더욱 총사가 되고싶었습니다.
트레빌은 다르타냥의 이런 심정을 알아차린듯싶었습니다.
《내 친구인 자네 아버님을 생각해서 힘써보겠네.》
《부탁합니다. 기어이 훌륭한 총사가 되겠습니다.》
《씩씩하군, 그럼 왕립무예도감(임금의 관할하에 무력관계를 맡아보는 관리)선생에게 소개장을 써줄테니 총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실력을 닦게. 앞으로 기회를 보아 내 할수 있는껏 자네를 도와주겠네.》
다르타냥은 앞으로 기어이 훌륭한 총사가 되고야말겠

다고 마음을 굳게 다지면서 용기를 내여 지금까지 이야기 못하고있던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트레빌대장님, 아버지가 써주신 소개장을 그만 도적맞혔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였나?》

다르타냥은 마른읍에서 있은 사실을 모조리 이야기했습니다.

트레빌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무사는 뺨에 칼자국이 있지 않던가?》

《그렇습니다.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무척 힘꼴이나 쓸듯싶어보이는놈이였는데 젊은 녀자와 몰래 이야기를 하고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던가?》

《녀자더러 영국에 가서 공작의 거동을 살펴오라는것이였습니다.》

《그놈이군!》

트레빌이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각하, 그 무사를 아십니까? 그놈의 이름과 그가 있는곳을 말씀해주십시오. 그놈과 꼭 싸워보고싶습니다.》

《아니, 그건 무모한짓이야. 그놈하고는 서뿔리 마주서지 않는것이 좋아. 바위처럼 억센놈이니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만나기만하면야…》

트레빌은 다르타냥의 용감성에 탄복하였습니다. 그는 다르타냥이 두려움을 모르는 용감한 청년이라고 만족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다르타냥, 지나치게 서두르지 말게. 아무튼 무예도감선생에게 편지를 쓸테니 잠간 기다려주게.》
트레빌이 편지를 쓰는동안 다르타냥은 창문너머로 거리를 내다보았습니다.
거리로 그 무사가 유유히 걸어가고있는것이 보였습니다. 다르타냥은 저도모르게 큰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저놈! 이번엔 안놓칠테다!》
그리고는 밖으로 뛰여나가려 했습니다.
《왜 그러나? 안놓치다니? 도대체 누구를 말인가?》
트레빌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놈입니다. 편지를 훔친놈말입니다. 어디 이놈, 보자!》
다르타냥은 쏜살같이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응접실에 있던 총사와 하인들은 어리둥절하여 다르타냥의 뒤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친구로군.》
트레빌은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였습니다.

3

다르타냥은 층계를 세단씩 뛰여넘으며 부리나케 현관을 내려갔습니다. 그바람에 문을 열고 들어오던 한 총사와 부딪쳤습니다.
《앗!》
총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이미 상처입은 몸이였는데 다르타냥이 그만 붕대를 칭칭 감은 왼쪽어깨를 세게 다쳤던것입니다.

《미안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만…》
다르타냥은 사과를 하고 그대로 앞으로 뛰여나가려 했습니다.
순간 무쇠같은 손이 덥석 다르타냥의 외투를 움켜잡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다 되는가? 그렇겐 안돼.》
《일부러 한 일도 아니고 또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이 소매를 놓아주시오.》
총사는 잡았던 손을 놓았습니다.
《례의를 모르는놈이로군. 시골뜨기인가?》
다르타냥은 화가 불끈 치밀었습니다.
《시골뜨기건 뭐건 무슨 상관이요?》
《허, 이런 건방진… 내 칼에 맞고싶으냐?》
《뭣이 어째? 그래, 좋다. 장소는 어디냐?》
《카르므 데쇼수도원앞 풀밭이다. 그런데 너 이놈,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너같은것한테 질줄 알고? 시간은?》
《12시.》
《좋다.》
《기다리지 않도록 해. 15분만 늦어도 네 두귀를 잘라버릴테다. 잊지 말라.》
《잔소리도 많군. 난 바빠.》
다르타냥은 쏜살같이 현관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리에 서있던 한 총사의 만또가 바람에 확 펼쳐지는통에 다르타냥은 그만 만또속으로 뛰여들었습니다. 그의 몸은 만또에 휘감겨 밖으로 나갈수가 없었습니다. 몸부림을 칠수록 더욱 숨이 막혔습니다. 다르타냥은

총사의 허리띠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허리띠는 앞에서 볼 때는 번쩍번쩍하는 금빛이더니 뒤에서 보니 보통 가죽띠였습니다.

걸치레를 좋아하는 이 총사는 온통 금으로 장식한 허리띠를 살수 없어서 앞에만 금으로 씌운것을 산 모양이였습니다.

총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의 만또속에 뛰여들다니, 미쳤어? 넌 누구냐?》

《미안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만…》

다르타냥은 총사의 어깨밑으로 겨우 얼굴만 내밀고 대답했습니다. 총사는 만또속에서 다르타냥을 내던지다싶이 했습니다.

《급할 땐 눈깔이 없어지는가? 바보같은 자식！》

다르타냥은 화가 났습니다.

《천만에, 난 내가 만또속에 들어있었다는걸 이 눈으로 보았는데요.》

다르타냥은 재치있는 롱담을 했다는 생각으로 깔깔 웃어댔습니다. 총사는 벌컥 화를 내더니 다르타냥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아 좀 기다려주시유. 난 지금 바쁘단말이요. 결투는 있다가 1시에 카르므 데쇼수도원앞의 풀밭에서 합시다.》

《좋아, 나중에 후회하지는 말라구.》

이 말이 끝나기도전에 다르타냥은 벌써 길모퉁이를 돌았습니다. 큰길에는 이미 무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데? 이렇게 빨리 사라질리는 없겠는데, 어느 집에 숨지 않았을가?》

다르타냥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리저리 찾아다니기도 했지만 결국 헛수고만 하고말았습니다.

한참뒤에야 다르타냥은 다시 침착해질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한 자기의 행동을 랭정하게 돌이켜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처신을 그다지 잘한것 같이 않았습니다.

트레빌의 응접실에서 갑자기 뛰여나온것도 그렇고 두 사람의 총사와 결투를 하기로 한것도 모두 자기의 성미가 너무 급한데서 온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젠 후회해도 늦었어. 운명에 맡길수밖에…》

다르타냥은 생각에 잠겨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트레빌대장의 집앞에서는 네 사람의 총사가 모여서서 이야기를 하고있었습니다. 다르타냥은 이번에는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모자를 벗고 절을 했습니다.

총사 한사람이 땅에 떨어진 손수건을 장화신은 발로 짓밟고있는것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손수건이 떨어진줄을 모르고있는것 같았습니다. 다르타냥은 허리를 굽혀 장화밑에서 손수건을 끄집어내여 총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손수건이 떨어졌습니다.》

곱게 수를 놓고 한쪽 귀퉁이에 왕관과 문장이 찍혀있는 손수건이였습니다.

총사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다르타냥의 손에서 손수건을 빼앗듯이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는 아니꼽게 흘겨보 다가 이윽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손수건이 아니요. 내 손수건은 여기 호주머

니안에 이렇게 들어있소.》

총사는 주머니속에서 자기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아무런 장식도 없는 손수건이였습니다.

다르타냥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큰 실수를 한것이였습니다. 다르타냥은 세 사람의 총사와 헤여져 돌아가는 그 총사를 뒤쫓아갔습니다.

《저 미안하게 됐습니다.》

《여보시오. 눈치있는 사람은 당신처럼 행동하지 않소.》

《뭐라구요? 아니 그럼…》

《아무리 시골뜨기래도 아무 까닭없이 자기 손수건을 짓밟는 사람은 없다는것쯤 알아야 할게 아니요. 어쩌자고 그 손수건을 사람들이 있는데서 집어준단말이요！》

다르타냥은 모욕을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어쩌자고 당신은 그걸 떨어뜨렸소?》

그는 언짢게 쏘아붙였습니다.

《뭐라구? 말투가 왜 그래. 한번 본때를 보여줄가?》

총사가 말하는 본때라는것이 결투를 의미한다는것을 다르타냥은 곧 알아차렸습니다.

《좋아, 당장 여기서 할가?》

《아니, 2시에 트레빌님댁에서 기다리겠네. 장소는 그때 정하기로 하지.》

이리하여 다르타냥은 하루동안에 세 사람의 총사와 12시, 1시, 2시에 련달아 결투를 하게 되였습니다.

이 세 사람의 총사는 트레빌의 근위총사대에서 검술이 뛰여나기로 이름난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였습

니다.

다르타냥은 그날 12시가 되기전에 카르므 데쇼수도원으로 갔습니다. 수도원주변은 풀이 무성한 빈터였습니다.

다르타냥이 수도원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토스는 이미 거기에 와있었습니다. 어깨의 상처가 아파서인지 앉아있다가 다르타냥을 보자 일어서서 례절있게 두서너걸음 앞으로 나서며 맞이하였습니다.

다르타냥도 모자의 깃털이 땅에 닿도록 정중하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아토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식결투에는 립회인이 있어야 하네. 두 사람이 오기로 했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군…》

《나에겐 립회인이 없소. 트레빌님밖에는 빠리에 아는 사람이라곤 없으니까.》

《트레빌님을 안단말인가?》

《아버지의 친구지요.》

《그래? 그것참… 내가 자네같은 젊은이와 상대한것이 아무래도 어른답지 못한것 같군.》

《아니요. 당신도 부상을 입었으니 마찬가지요.》

《그러나저러나 립회인이 늦어지는군. 웬일일가?》

《무슨 바쁜 일이라도 있으면 얼른 나를 처치해버리시구려.》

《거 시원스러운 말투로군.》

아토스는 빙긋이 웃었습니다.

《나는 자네같은 사람이 좋아. 서로 살아있으면 후에 이야기를 해보세.》

바로 그때 포르토스와 아라미스가 다가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의 립회인일세.》

다르타냥은 깜짝 놀랐습니다.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도 어정쩡한 얼굴로 아토스에게 물었습니다.

《자네와 결투할 상대가 이 젊은 친군가?》

《그렇네. 왜 그러나?》

《사실은 나도 오늘 여기서 이 젊은 친구와 겨루게 되여있다네.》

포르토스의 말이였습니다.

《사실은 나도 그래.》

아라미스가 말했습니다.

다르타냥은 세 총사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가지 사과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포르토스, 아라미스 두분과는 싸울수 없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토스가 먼저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되면 뒤에 오신 두분에겐 안됐지만 량해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칼을 뽑아들고 나섰습니다.

《용감한데.》

아토스도 칼을 뽑았습니다. 카르므 데쇼수도원의 풀밭에 한낮의 뜨거운 해빛이 눈부시게 내리쪼이고있었습니다.

《자, 달려들게.》

아토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르타냥의 칼이 번쩍하고 길게 뻗자 두개의 장검이 부

덮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때 포르토스와 아라미스가 웨쳤습니다.
《칼을 거두어. 리셜리님의 호위병들이 왔소.》

4

친위총사들과 리셜리의 호위병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늘 싸움을 하였습니다. 아토스가 입은 어깨의 상처도 리셜리의 호위병과 싸우다가 입은것이였습니다.
국왕과 리셜리총리의 명령으로 결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여있었습니다.
다르타냥과 아토스는 결투를 막 시작하려던참에 리셜리총리의 호위병들에게 들켰던것입니다.
리셜리총리의 호위대 중대장 쥬사크는 네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총사들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결투를 해선 안된다는것을 당신들은 잊어버리진 않았겠지요?》
《그것 참 깨우쳐주어 고마운 일이군. 우리는 당신들이 결투하는것을 봐도 결코 방해하지 않을테요. 그러니 당신들도 너그럽게 봐주시오.》
아토스의 대꾸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소. 칼을 거두고 우리를 따라오시오.》
《미안하지만 트레빌대장님의 지시가 있기전엔 당신들의 명령에 복종할수가 없소.》

《리셜리각하의 명령을 어긴다는거요? 그렇다면 억지로라도 끌고 갈테요.》

아토스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쪽은 5명, 이쪽은 3명 우리는 여기서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 세 총사는 서로 몸을 바싹 붙였습니다.

다르타냥은 세 총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세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엔 네사람 같은데요.》

《하지만 자넨 우리 편이 아니지 않나?》

포르토스가 말했습니다.

《물론 나는 총사옷은 입고있지 않소. 그렇지만 총사의 얼은 가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중대장 쥬사크가 소리질렀습니다.

《자 젊은이, 비켜주게. 자넨 가도 돼.》

그러나 다르타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토스가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은 뭔가?》

《다르타냥이라고 부르지요.》

《자넨 참 좋은 청년일세.》

아토스는 다르타냥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총사는 다르타냥이 너무 젊기때문에 솜씨가 대단치 않을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르타냥은 이것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나도 한몫 끼우게 해주십시오. 지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 물러서진 않겠습니다.》

《그럼 좋아. 같이 싸우세.》

아토스는 한손으로 모자를 벗어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칼을 뽑았습니다.

세 총사와 다르타냥은 일제히 상대편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다르타냥은 호위대 중대장 쥬사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쥬사크는 리셜리의 부하가운데서도 검술이 뛰여나기로 첫손가락에 꼽히는 사람이였습니다.

다르타냥은 세 총사에게 자기의 솜씨를 보여주고싶은 생각으로 칼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검법이고 뭐고 가릴 사이가 없었습니다. 쥬사크의 둘레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면팔방으로 덤벼댔습니다.

쥬사크도 다르타냥을 감당해낼수가 없었습니다. 풋내기로만 생각되던 상대방이 솜씨있게 마구 달려드는바람에 당황해지고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초조해졌습니다. 마음이 초조해지니 칼쓰는 솜씨도 무디여졌습니다.

다르타냥은 그 틈을 타서 더욱 날쌔게 달려들었습니다.

화가 난 쥬사크는 단숨에 상대방을 쓰러뜨리려고 오른발을 불쑥 앞으로 내디디면서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다르타냥은 뱀처럼 이리저리 재빨리 몸을 피해 쥬사크의 칼밑으로 기여들어가 상대방의 옆구리에 칼을 깊숙이 쿡 찔렀습니다.

쥬사크는 풀썩 쓰러졌습니다.

다르타냥은 사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토스가 위험했습니다. 워낙 상처를 가지고있던 그는 또다시 새로운 상처

를 입어 얼굴빛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왼손에 칼을 잡고 상대방의 공격을 가까스로 막아내고있었습니다.

다르타냥은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토스대신에 나하고 싸우자!》

호위병은 다르타냥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때까지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있던 아토스는 털썩 주저앉으며 다르타냥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녀석을 죽이진 말게. 상처가 나은 다음 그녀석과 다시한번 싸워야겠네. 그저 칼만 떨어뜨리라구.》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전에 호위병의 칼이 공중으로 허궁 날아났습니다. 호위병은 당황하여 칼을 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르타냥은 이미 그의 칼을 자기 발로 짓밟고있었습니다.

호위병은 아라미스의 칼에 맞아 쓰러진 자기편의 칼을 날쌔게 집어가지고 되돌아왔습니다. 아토스가 그를 맞받아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쉬였기때문에 다시 기력을 회복하였던것입니다. 그는 단칼로 상대방의 목을 찔렀습니다.

아라미스도 두 호위병을 쓰러눕혔습니다. 이제는 적수가 포르토스와 맞붙은 한사람만 남았습니다. 다르타냥과 그의 친구들은 포르토스를 도와나섰습니다. 그들은 리셜리 총리의 호위병을 둘러쌌습니다. 상대방은 무릎에 상처를 입었으나 여전히 버티고있었습니다.

이때 쥬사크가 한쪽 팔꿈치를 짚고 몸을 일으키더니 자기 부하에게 항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나이도 싸움을 그만두었습니다.

총사들은 잘 싸운 그 사나이에게 칼을 받들어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용감한 사람은 적이건 자기편이건 구별없이

존경을 받는 법입니다. 다르타냥도 그것을 배웠습니다. 총사들은 수도원현관으로 부상자와 시체를 옮기고 네자루의 칼을 빼앗아가지고 트레빌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의 총사들과 다르타냥은 서로 어깨를 겯고 뽐내면서 다른 총사들에게 리셜리총리의 호위병들을 무찌른것을 자랑하였습니다.

다르타냥은 트레빌대장의 집앞에 이르자 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비록 아직 총사는 아니지만 이만하면 견습생쯤은 될수 있지 않습니까?》

다르타냥은 의기양양했습니다.

5

근위총사들과 호위병들사이에 결투가 있었다는 소문은 곧 퍼졌습니다.

트레빌은 사람들이 보는앞에서는 총사들을 큰소리로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들을 못내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루브르궁전으로 갔습니다. 국왕에게 이 사건을 즉시 보고해두지 않으면 리셜리가 선손을 쓸수 있기때문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발 늦었습니다.

국왕은 이미 리셜리총리와 이야기하고있는중이므로 만날수가 없었던것입니다.

트레빌대장은 입맛을 다시면서 돌아섰습니다.

그날밤 트레빌이 다시 루브르궁전에 갔을 때 국왕은 주패놀이를 하고있었습니다. 국왕은 트레빌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총사대장, 좀 잔소리를 해야겠네. 낮에 리셜리총리한테서 사건의 경위를 들었네. 몹시 노했던데. 자네의 총사들가운데는 불량배들이 많은가?》

《폐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뿐입니다. 총통사들은 오로지 폐하에게 충성을 다하자는 일념뿐입니다. 그런데 리셜리각하의 호위병들이 늘 싸움을 걸어오기때문에 우리 총사들은 방어할따름입니다.》

왕은 주패놀이를 그만두고 트레빌과 함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리셜리의 호위병들이 먼저 손을 댔단 말이지?》

《예, 그렇습니다.》

《세상사람들은 이 루이13세를 공평하다고들 하지. 량쪽말을 다 들어보고 판결하기로 하겠네. 사건을 좀 자상히 이야기하게.》

《우리 총사대의 가장 충실한 세명의 총사가 오늘 아침 저의 집으로 왔댔습니다. 가스코뉴에서 올라온 한 젊은이와 교외에 가기로 약속했던것입니다. 그들이 만나기로 한 장소가 마침 카르므 데쇼수도원곁에 있는 빈터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모인 자리에 호위병들이 떼를 지어 모여왔습니다. 풀이 무성한 벌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모여온것을 보면 모름지기 금지된 일을 하려는 의도에서였던것이 틀림없는것 같았습니다.》

《그럼 호위병들은 결투를 할 셈이였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호위병들은 총사들을 보자 갑자기 생각이 달라진 모양입니다. 친위총사는 페하를 받드는 사람들이므로 리셜리총리의 호위병들은 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총사들과 호위병들은 개와 고양이같은 사이입니다.》

《그렇겠지…》

국왕은 우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셜리총리의 명령만 따르고 국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것을 국왕은 알고있었습니다. 이미 프랑스가 두쪽으로 갈라진듯싶기도 했습니다.

국왕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총사들 말고도 아주 젊은 청년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저의 옛친구의 외아들인 다르타냥이라고 하는 젊은이입니다. 아직 청년이라고 하기조차 어렵게 나이는 어리지만 매우 용감한 젊은이입니다.》

《어디 그 얘길 좀 해보게. 나는 용감한 이야기를 퍽 좋아하니까.》

트레빌은 다르타냥네들이 싸운 사연을 꼬리까지 붙여가며 그럴듯하게 자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국왕은 놀랐습니다.

《뭐라고? 쥬사크는 프랑스에서 이름난 검객인데 그를 이긴 사람이 그렇게 어린 젊은이란말인가? 아무리 총사대 대장의 말이지만 좀 믿기 힘들군.》

《페하에게 감히 거짓말을 할리가 있겠습니까? 틀림없

이 다르타냥이 쥬사크를 찔렀습니다. 페하에게 그 젊은이를 추천해드리고싶습니다.》

《그럼 그 젊은이를 한번 만나볼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만나주시겠습니까?》

《래일 12시에 만나지. 혼자 오지 말고 네 사람이 다 오도록 해주게. 나에게 충실한 그들 네 사람모두에게 사례를 해야겠네.》

트레빌이 응접실문을 나서려고 할 때 국왕은 그를 불러세워놓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리셜리총리가 알면 좋지 않을수 있으니 래일 올 때에는 옆층계로 올라오도록 하게.》

트레빌은 흐뭇한 기분으로 궁전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곧 네 사람에게 래일 국왕을 뵙게 된다는것을 알렸습니다.

세사람의 총사들은 전투에서 공을 세울 때마다 여러번 국왕을 뵈온 일이 있었으므로 례사로이 여겼지만 다르타냥에게는 이 일이 그저 꿈만 같았습니다.

다르타냥은 그날밤 아직 한번도 본 일이 없는 궁전과 국왕을 눈앞에 그려보면서 좀처럼 잠들수가 없었습니다.

6

이튿날 다르타냥은 아침 일찍 아토스의 집으로 갔습니다.

《벌써 왔나? 지금 8시인데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네.》

아토스는 졸음낀 눈을 손등으로 비비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포르토스, 아라미스와 정구를 치기로 했네. 자네도 가세.》

다르타냥은 그들과 함께 정구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시골에서 자란 다르타냥은 정구치는것을 처음 구경하였습니다. 포르토스가 힘껏 친 공이 얼굴을 스쳤을 때 그는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만약 얼굴을 상하게 되면 국왕앞에 나설수 없게 될것입니다. 다르타냥은 정구를 단념하고 관람석으로 물러나왔습니다.

구경군들속에서는 리셜리총리의 호위병이 한사람 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나이는 관람석으로 돌아오는 다르타냥을 알아보자 떠들썩하게 큰소리로 지껄였습니다.

《저 풋내기, 정구공을 무서워하는 꼴을 좀 보라구. 겁쟁이총사의 졸병이니깐 할수 없지.》

다르타냥은 그 사나이를 아니꼽게 흘겨보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저리 좀 갑시다.》

《이것 봐라.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하는가?》

《모르겠소. 하지만…》

《허허, 그러니까 탈이란말이야. 내가 누군지 안다면 이렇게 맞서진 못할걸… 난 베르나쥬야.》

《아 그렇소. 그럼 베르나쥬님, 문앞에서 기다리겠소.》

다르타냥은 이렇게 말하면서 태연히 돌아섰습니다.

거들먹거리던 호위병은 새삼스런 눈으로 그의 뒤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던 구경군들

도 어지간히 놀랐습니다.

베르나쥬는 지독한 불량배로 널리 소문난놈이였습니다. 그놈은 제 비위에 거슬리기만 하면 국왕의 명령이든 총리의 명령이든 아랑곳없이 칼로 베여버리는 잔인한 악한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새파란 젊은이가 눈섭하나 까딱하지 않고 만만치 않게 그와 맞서 나선것입니다.

살인에 이골이 난 베르나쥬자신도 이런 일을 당해보기는 처음이였습니다.

다르타냥과 베르나쥬는 오가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정구장입구에서 서로 마주섰습니다.

곧 결투가 시작되였습니다.

먼저 베르나쥬가 칼을 뽑아들고 다르타냥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다르타냥은 어제 호위병들과의 결투에서 경험을 쌓았기때문에 자신만만하였습니다. 그는 잽싸게 칼을 뽑아 날아드는 칼을 막았습니다.

칼과 칼을 엇건채 그들 둘은 힘내기라도 하는듯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한순간 뻗치고 서있었습니다.

서로 밀리지 않으려고 안깐힘을 쓰면서 상대방을 노려보는 그들의 이마에선 지렁이같은 피줄이 꿈틀거렸습니다.

결투는 좀처럼 승부가 날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슬땀을 흘리면서 황소처럼 씩씩거리기만했습니다.

마침내 베르나쥬가 한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틈을 노려 다르타냥은 그의 어깨를 찔렀습니다. 베르나쥬는 중상을 입고 비틀거렸습니다.
다르타냥은 다시한번 찔렀습니다. 그러나 베르나쥬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쓰는 솜씨가 서툴어졌으나 그래도 이를 사려물고 악착스레 달라붙었습니다.
칼이 부딪치는 소리가 한동안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정구장에서 두명의 호위병이 달려와 다르타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뒤미처 아토스와 포르토스, 아라미스 세 총사도 달려왔습니다.
악착스런 베르나쥬는 이미 힘이 진해 길우에 쓰러져있었습니다.
두명의 호위병은 네 사람을 상대로 싸우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습니다.
그들이 싸우는곳은 바로 라 트레미유네 집에서 멀지 않은곳이였습니다.
그 집에는 베르나쥬의 친척이 호위대의 호위병으로 근무하고있었습니다.
《라 트레미유님댁의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호위병들이 큰소리로 웨쳐댔습니다.
집안에 있던 무사들이 우르르 뛰쳐나와 네 사람을 둘러쌌습니다.
총사들도 소리쳤습니다.
《총사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지나가던 에싸르의 호위병 세명이 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이전부터 리셜리총리를 은근히 미워하고있던 사람들이였습니다. 그들중에서 두 사람은 다르

타냥네 편을 들어 싸움판에 뛰여들었고 한 사람은 트레빌대장한테로 달려가서 아토스네들이 포위되였다는것을 알렸습니다.
총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 몰려왔습니다.
다르타냥과 베르나쥬의 결투는 마침내 어마어마하게 큰 싸움으로 번져갔습니다.
총사들의 맹공격에 질겁한 리셜리총리의 호위병들은 더는 버티여낼수 없어 라 트레미유네 집으로 도망치고말았습니다.
다르타냥과 세 총사는 소란한 틈을 타서 슬쩍 빠져나와 트레빌대장한테로 갔습니다. 국왕을 만나볼 시간이 다 되였던것입니다.
그들 네 사람은 트레빌대장을 앞세우고 서둘러 루브르궁전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궁전에 이른것은 12시가 좀 지나서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국왕이 교외로 사냥을 가고 없었습니다. 여간해서는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는 국왕이였습니다.
트레빌대장은 무슨 곡절이 있다고 짐작되여 시종에게 물었습니다.
《리셜리총리가 국왕님을 만나뵙지 않았소?》
《예, 총리각하가 얼마전에 오셔서 폐하와 이야기를 나누시였습니다.》
《그럼, 폐하는 방금 나가셨겠군요.》
《그렇습니다.》
트레빌대장은 왕궁을 나서면서 분하다는듯 중얼거렸습니다.

《또 선손을 빼앗겼군…》
그들이 다시 왕궁을 찾아간것은 국왕이 사냥에서 돌아온 후였습니다. 국왕은 언짢은 기분으로 그들을 맞아들였습니다.
다르타냥은 모진 꾸지람을 듣지나 않을가싶어 바늘방석에 앉은듯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오늘 그런 뜻하지 않은 싸움만 없었다면 훈장을 탔을는지도 모릅니다.
다르타냥은 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왕이 트레빌대장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를 또 꾸짖지 않으면 안되겠네. 자넨 뭘하고 있나? 자네의 부하들이 제멋대로 사람을 죽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고있는데…
수도 빠리를 온통 불바다로 만들 작정인가? 나는 그런 못된짓을 눈감아두라고 자네를 총사대의 친위대장으로 앉혀놓은것이 아닐세.》
트레빌대장은 마음을 단단히 가다듬고 억울하다는 기색을 지으면서 국왕을 쳐다보았습니다.
《폐하, 그것은 터무니없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황송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아뢰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것을 알아서 뭘하겠나?》
《폐하, 저도 짐작이 갑니다. 리셜리총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는 결코 전지전능한 신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든적든 잘못을 가지고있기마련입니다.》
《그럼 자넨 리셜리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소리인가? 남을 헐뜯는것은 좋지 않아.》
《결코 그래서 올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리셜리각하는

그때 싸움현장에 계셨던것도 아니여서 자세한 사정을 모르고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어느 아첨쟁이 호위병이 그에게 그럴듯하게 사태를 외곡해서 보고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페하, 역시 그 말을 고스란히 그대로 믿으셔야 되겠습니까?》

국왕은 증인으로 라 트레미유를 불렀습니다. 트레빌과 다르타냥 그리고 세 총사는 잠간 다른 방에 나가 기다렸습니다. 라 트레미유는 국왕에게 자기 집으로 실려온 베르나쥬에게서 들은대로 사연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윽고 국왕이 트레빌과 그 일행을 불렀습니다.

《자, 모두 들어오게. 내 그대들을 톡톡히 꾸짖어줄테니…》

국왕은 어지간히 기분이 유쾌한듯 싱글벙글 웃으며 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젊은이가 쥬사크를 무찔렀다지?》

하고 국왕은 잔뜩 겁을 먹고 한쪽구석에 서있는 다르타냥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르나쥬도 보기좋게 꺼꾸러뜨렸습니다.》

하고 트레빌이 대신 대답하였습니다.

《놀라운 솜씨로군. 마왕같은 용사야.》

《페하께서 그토록 치하해주시니 저희들로서는 그이상 더 큰 기쁨이 없사옵니다.》

트레빌대장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난 흡족하네. 아무렴 흡족하고말고. 참 믿음직한 근위총사들이야. 난 진심으로 만족스럽게 여기고있네. 자 젊은이, 이걸 받아주게. 상으로 주는걸세.》

국왕은 금화가 든 주머니를 다르타냥에게 주었습니다.

다르타냥은 과분한 치하를 받은데다가 많은 돈까지 상금으로 받고보니 기쁨을 억누를길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국왕은 트레빌대장을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자네네 총사대엔 지금 빈 자리가 없지? 게다가 총사대에 들어가자면 누구든지 다른 병동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하니 저 젊은이를 에싸르호위대에 넣도록 하게.》

제 2 장

위험에 처한 왕비

1

다르타냥이 국왕으로부터 받은 돈은 금화로 40피스톨이나 되였습니다. 그는 일찌기 이렇게 많은 뭉치돈을 가져본적이 없었습니다.

다르타냥은 그 돈을 세명의 총사와 나누어가졌지만 자기몫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의논해보았습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부하를 두는것이 좋겠다고 권고했습니다. 사실 그의 친구들인 세 총사는 모두 부하를 한사람씩 거느리고있었습니다.

아토스에게는 그리모어라는 부하가 있었습니다. 말수적은 아토스는 자기 부하를 눈짓과 손짓만으로도 능히 부

릴수 있도록 잘 길들여놓았습니다.

포르토스의 부하 무스크톤은 걸치레를 좋아하는 주인을 본따서 늘 화려한 차림을 하고 다녔습니다. 장차 신부가 될것을 꿈꾸는 아라미스의 부하인 바쟁 역시 주인의 본을 따서 검은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다르타냥도 부하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포르토스의 주선으로 플랑쉐라는 사나이를 부하로 두었습니다.

그들 넷은 매일같이 함께 밀려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재미있는 구경을 하면서 한동안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돈을 아껴쓰지 않았기때문에 마침내 빈털털이가 되고말았습니다.

포르토스는 친구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끼니를 얻어먹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으며 아라미스는 가지고있던 책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들은 트레빌대장을 찾아가 월급을 미리 받아쓰기도 했으나 그래도 부족해서 나날이 빚더미만 늘어갔습니다.

다르타냥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어느날 마음씨가 어리무던해보이는 장사치같은 한 사나이가 다르타냥을 찾아왔습니다.

《다르타냥나으리, 저는 당신이 용감한분이라는 소문을 듣고 한가지 의논할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좀 조용히 만날수 없겠습니까?》

다르타냥은 플랑쉐를 옆방으로 내보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절대비밀입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저의 안해는 왕비님의 시녀입니다. 왕비의 시종관인 라 포르트님이 그 사람의 양아버지여서 매우 귀여워했지요. 내입으로 이런 말을 하긴 좀 멋하지만 예쁘기도 하고 령리하기도 한데 3년전 저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어쨌다는겁니까?》
《그 사람이 어제아침 갑자기 누군가에게 잡혀갔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정치적인 일과 관련이 있는것 같이 생각됩니다. 어느 신분이 높은 부인때문인것 같습니다.》
다르타냥은 그 사나이의 말이 수상쩍어 캐여물었습니다.
《그 신분이 높은 부인이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의논하러 왔다면 털어놓고 말을 해야지요.》
사나이는 잠시 우물쭈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말씀드립지요. 다른 사람들에겐 절대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왕비님입니다. 왕비님은 영국의 버킹검공작과 가까운 사이이신데 리셜리총리님이 이걸 언짢게 여기고있지요.》
《당신은 궁정안의 일을 잘 알고있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안해는 왕비님의 시녀이고 라 포르트님은 왕비님의 총애를 받고있기때문에 그런 사연을 알게 되였지요. 참말 왕비님은 가엾으신분입니다. 임금님은 본체만체하시고 리셜리총리님은 늘 미워하시고… 그러니 쓸쓸해하시는것이 까닭없는 일이 아니지요.》
《음, 그래서？…》
《요즘 왕비님은 수심에 잠겨있습니다. 아마 나쁜놈들

이 왕비님의 이름으로 영국에 있는 버킹검공작에게 편지를 내여 여기로 꾀여다가 무슨 못된짓을 하려고 흉계를 꾸미는것 같습니다.》

《왕비님의 이름으로 편지를? 그런데 당신의 부인이 그 일과 무슨 관계가 있소?》

《제 안해가 어제밤에 잡혀갔습니다. 아마도 협박을 해서 왕비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든가 아니면 저들의 밀정으로 써먹으려는것 같습니다.》

《당신의 부인을 잡아간 사람이 어떤놈인지 모르겠소?》

《짐작은 갑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키가 크고 뺨에 칼자국이 있는…》

《뭐, 뺨에 칼자국이?!》

다르타냥은 저도모르게 소리질렀습니다. 틀림없이 마른에서 만났던 그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성급하게 다그쳐물었습니다.

《그래 그놈이 어디 있소?》

《그걸 도무지…》

《짐작도 안간단말이요?》

《전혀 그런건 아니지만…》

사나이는 대답을 망설이고있었습니다.

《이제와서 뭘 숨기려고 하오? 그래 당신이름을 어떻게 부르오?》

《보나시라고 합니다. 전 나으리님밖에 믿을데가 없어서…》

다르타냥은 보나시라는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듯했습니다.

《보나시?…》

다르타냥이 고개를 기웃거리자 사나이가 말했습니다.
《그러문요. 나으리가 계시는 이 집 주인이지요.》
《아 그렇군, 당신이 이 집 주인이군요.》
《그렇습니다. 나으리는 석달전에 여기 저의 집에 오신 뒤로 방세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계십니다만 전 한번도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아 그것참… 나로서 할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드리지요.》
그러자 보나시는 주머니에서 쪽지 한장을 꺼내여 다르타냥에게 주었습니다.
《전 오늘아침에 이런 쪽지를 받았습니다.》
다르타냥은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씌여있었습니다.

네 안해의 행방을 찾지 말라. 만약 경찰에 알리든지 하면 죽여버릴테다.

다르타냥이 편지를 다 읽자 보나시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협박이 무섭습니다. 아직 죽기는 싫고 바스티유감옥에 들어갈 생각도 없습니다. 생각만해도 몸서리치는군요.》
보나시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계속했습니다.
《그저 나리님만 믿고있습니다. 나리님은 언제나 총사님들과 같이 계시더군요. 총사님들은 가엾은 왕비님을 도와주리라 생각해서 이렇게…》
《그야 물론 도와드려야지요.》

《아 저것 보십시오! 창문 저쪽 맞은편에 만또를 뒤집어 쓴 사나이가…》

보나시는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다르타냥은 보나시가 가리키는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뺨에 칼자국이 있는 그 무사가 만또를 쓰고 저쪽으로 걸어가고있었습니다.

《저놈, 이번엔 네놈을 놓치지 않을테다!》

다르타냥은 칼을 뽑아들고 밖으로 뛰여나갔습니다. 층계에서 아토스와 포르토스를 만났습니다.

《여보게, 어딜 그렇게 급히 가나?》

두 친구가 물었습니다.

《마른에서 만났던 그놈을 보았어.》

다르타냥은 이 말을 남기고 쏜살같이 골목으로 뛰여갔습니다.

그는 30분후에 돌아왔습니다. 방안에는 그의 친구들인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가 한자리에 다 모여있었습니다.

보나시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게, 어떻게 됐나?》

이마의 땀을 닦으며 들어오는 다르타냥을 보고 세 총사가 일제히 물었습니다.

《내 참, 그놈은 꼭 악마같다니깐. 귀신처럼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다르타냥은 칼을 침대우에 내던졌습니다.

《그놈은 나를 못살게 하려고 이 세상에 태여난놈인가봐. 그놈이 달아나는바람에 큰 돈벌이를 놓쳤네. 백피

스톨쯤은 버는건데.》
《그건 또 무슨 소린가?》
포르토스와 아라미스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다르타냥은 보나시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모조리 말했습니다. 보나시의 안해를 잡아간 그놈이 바로 마른의 프랑므니에려관에서부터 자기가 찾고있던놈이라는것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보나시부인도 걱정이지만 왕비님이 더 걱정이 돼. 국왕에게는 괄세를 받고 리셜리총리에겐 미움을 받고 가까운 사람들은 련달아 죽고있으니 얼마나 쓸쓸하겠나!》
지금까지 말이 없던 아토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 영국의 버킹검공작을 꾀여내려고 가짜편지를 냈단말이지?》
《그런것 같애, 보나시부인이 잡혀간것은 분명히 그 가짜편지와 관련되여있는것 같애.》
이때 층계를 뛰여올라오는 다급한 발자국소리가 나더니 새파랗게 질린 보나시가 방안으로 뛰여들어왔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잡으러 왔습니다. 네 사람이 뒤에서 따라오고있습니다.》
총사들은 모두 일어났습니다.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는 벌써 칼을 절반쯤 뽑고있었습니다. 다르타냥이 그들을 막아나섰습니다.
《잠간 기다려. 침착해야 해.》
《왜 그래. 그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순 없지 않아?》
포르토스가 펄쩍 뛰였습니다. 아토스가 그를 말렸습

니다.

《다르타냥에게 맡겨두게. 다르타냥은 우리 넷중에서 제일 믿음직하니 무슨 속생각이 있겠지.》

이때 네명의 호위병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네 사람의 총사를 보더니 방안으로 들어오기를 망설였습니다.

《자, 사양들 마시고 어서 들어오시오.》

다르타냥이 이렇게 말하자 호위병들은 안심한듯한 빛을 보였습니다.

대장인듯한 호위병이 물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진 않겠지요?》

《방해요? 원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할수만 있다면야 도와드려야지요. 우린 다같이 국왕폐하와 리셜리총리에게 충실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포르토스는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다르타냥이 왜 저래?》

그는 다르타냥의 속심을 리해할수 없다는듯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보, 가만있어.》

아토스가 눈을 흘겼습니다. 보나시는 울상이 되여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아까 하신 약속은…》

다르타냥은 호위병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의 귀에 대고 속삭이였습니다.

《우리가 만약 당신을 돕는 눈치를 보이면 우리들까지 잡히고맙니다. 그래가지고는 당신을 구해드릴수 없단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보나시의 목소리는 떨리고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르타냥은 아랑곳없이 호위병들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자, 당신들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에겐 이 사람을 두둔할 까닭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처음 만났는데 뻰뻰스럽게도 방세를 받으러 왔더란말입니다.》

다르타냥은 눈이 휘둥그래진 보나시를 호위병들의 앞으로 떠밀었습니다. 그리고는 귀속말로 이렇게 소곤거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와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해선 안됩니다. 특히 왕비님의 이야기를 절대로 비밀에 붙이고있어야 합니다.》

호위병들은 보나시를 묶어가지고 물러갔습니다.

다르타냥은 그들과 함께 나가려는 대장의 어깨를 건드렸습니다.

《대장, 서로의 건강을 위하여 한잔 나눕시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포도주를 두잔에 가득 따랐습니다.

《이거참 고맙습니다.》

《그럼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두 사람은 잔을 비웠습니다. 다르타냥은 빈잔에 포도주를 한잔씩 더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감격을 누를길 없다는듯이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국왕폐하와 리셜리총리님의 건강을 위하여!》

아주 맛좋은 포도주였습니다.

대장은 다르타냥의 성의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

니다.

호위병들은 보나시를 끌고 사라졌습니다.

포르토스가 다르타냥을 매섭게 쏘아보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야! 네 사람의 총사가 모여있으면서 저 가엾은 사나이를 호위병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다니…》

《여보게, 포르토스, 아까 아토스가 자네를 바보라고 했네만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아라미스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르타냥을 돌아보며 감동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넨 머리가 괜찮아. 장차 트레빌대장의 뒤를 잇게 될걸세. 그땐 우리를 잘 돌봐주게나.》

《난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어. 그래, 자네 그게 진심으로 하는 소리인가?》

포르토스가 못마땅히 그를 쏘아보았으나 아무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게들!》

다르타냥이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네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한마음한뜻이 되여야 하네. 우리는 이것을 깊이 명심해두자구, 자네들 생각은 어때?》

《옳아! 난 찬성이야.》

아토스와 아라미스가 선뜻 대답했습니다. 포르토스는 아

직도 속이 풀리지 않았으나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르타냥은 마치 우두머리인양 그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잠시도 마음을 놓아선 안되겠네. 이제야말로 우리는 리셜리종리를 상대해서 싸우게 되였으니말이야.》

2

보나시가 잡혀가자 뒤미처 리셜리종리의 앞잡이 네댓명이 그의 방을 감시하러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보나시를 찾아오는 사람은 모조리 잡아 조사했습니다.

다르타냥의 방은 바로 보나시의 방우에 있었습니다. 그는 마루바닥을 뜯었습니다. 엷은 천정을 통하여 아래방의 말소리가 똑똑하게 들렸습니다.

보나시가 붙잡혀간 다음날저녁, 아래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웬 녀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여기는 내 집입니다. 나는 보나시의 안해예요. 무엇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란폭하게 구시는거예요?》

녀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더는 들리지 않고 마루에서 퉁탕거리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녀자의 입을 틀어막고 어디론가 끌고가는 모양이였습니다.

다르타냥은 칼을 움켜쥐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플랑쉐, 급히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를 불러와. 그래 아토스는 트레빌님댁에 있을거야.》

그는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리님은?》

《나는 창문으로 뛰여내릴테다. 너는 마루바닥을 도로 덮어놓고 앞문으로 나가라.》
다르타냥은 창문턱을 잡고 2층에서 날쌔게 뛰여내렸습니다.
그는 보나시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다르타냥은 번쩍이는 칼을 휘두르며 방안으로 뛰여들었습니다.
순식간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웃사람들이 깜짝 놀라 창문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보나시의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검은 복장을 한 사나이 넷이 쫓기는 까마귀처럼 뛰쳐나와 어디론가 들고뺐습니다.
다르타냥은 보나시부인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부인은 절반쯤 기절하여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누워있었습니다. 밤색머리에 눈이 푸른 스물대여섯살쯤 되여보이는 미인이였습니다.
그의 발밑에 손수건이 떨어져있었습니다. 한 귀퉁이에 언젠가 아라미스가 가지고있었던것과 마찬가지로 왕관이 그려져있는 손수건이였습니다.
다르타냥은 그 손수건을 부인의 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이때 부인이 눈을 떴습니다. 겁에 질린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더니 위험속에서 구출된것을 깨닫자 생긋 웃으며 다르타냥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 당신이 나를 구해주셨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를 도대체 어떻게 할 작정이였을가요? 난 처음에는 도적인줄 알았어요, 여보세요. 우리 주인은 어디로 갔는가요?》
《부인, 그놈들은 도적보다도 더 위험한놈들입니다. 리

셜리총리의 앞잡이들이니까요. 주인어른은 여기 안계십니다. 어제 붙들려서 바스티유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바스티유감옥에? 무엇때문에요? 네, 그인 나쁜짓은 털끝만큼도 할수 없는 사람인데요.》

《그가 다름아닌 당신의 남편이기때문입니다.》

《그럼, 당신은 사정을 아시는군요.》

《나는 당신이 잡혀갔던것도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아무도 없는 기회를 타서 몰래 창문으로 뛰쳐나왔어요. 이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부인, 저와 함께 우선 몸을 피합시다. 자세한 이야기는 가면서 하기로 하구요. 아까 쫓아버린 그놈들이 틀림없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올것입니다. 나도 친구들을 부르러 보내긴 했지만… 자, 어서 떠납시다.》

다르타냥은 부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는 호젓한 골목길로 빠지면서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궁전의 형편을 알고싶어 보나시더러 라 포르트님에게 가봐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제가 대신 가지요.》

《고마와요. 하지만 그동안 저는 어디서 기다릴가요?》

마침 아토스의 집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다르타냥은 보나시부인을 아토스의 집으로 데리고갔습니다. 아토스는 집에 없었습니다. 다릍타냥은 이미부터 이 집엔 자주 다녔기

때문에 집사람들과 낯이 익었습니다. 그는 아토스의 부하에게서 열쇠를 빌려 보나시부인을 방안에 숨어있게 했습니다.

《안으로 문을 꼭 잠그고 누가 오든지 열어주지 마십시오.》

다르타냥은 부인에게서 암호를 알아가지고 즉시 루브르궁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궁전 곁문으로 가서 제르맹이라는 사나이를 불러내여 《투르와 브룩셀》이라는 암호를 댔습니다. 제르맹은 아무 말없이 도로 들어갔습니다. 10분쯤 지나서 라 포르트가 나왔습니다.

다르타냥은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을 말해주고 보나시부인이 있는곳을 대주었습니다. 라 포르트는 두번이나 그 장소를 되묻고나서 급히 문지기의 방밖으로 나갔다가 곧 돌아왔습니다.

《젊은이, 이 일때문에 젊은이에게 귀찮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소. 그러니 누구든지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젊은이가 9시반에 거기 있었다는것을 보증해달라고 하시오.》

시계를 보니 벌써 10시가 지났습니다. 다르타냥은 서둘러 트레빌대장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응접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응접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르타냥은 재빨리 시계바늘을 45분뒤로 돌려놓았습니다. 잠시후 트레빌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렇게 밤늦게.》

《아직 9시 25분밖에 안됐으니까 대장님을 뵈올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9시 25분이라니?》

트레빌은 무슨 소리냐는듯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군. 나는 좀 더 늦은줄 알았었지. 그런데 무슨 일인가?》

다르타냥은 왕비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음모가 꾸며지고있으며 리셜리총리가 버킹검공작을 꾀여내려 하고있다는 사연을 죄다 이야기했습니다.

트레빌대장도 어쩐지 궁전의 공기가 심상치 않다고 이미부터 느끼고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다르타냥의 계책에 넘어가고있다는것은 꿈에도 모르고 중요한 정보를 들려주어 고맙다고 오히려 치하하였습니다.

10시가 되자 다르타냥은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방에서 나온 그는 현관옆에 잠시 숨어있다가 다시 살그머니 응접실로 되돌아갔습니다. 응접실에는 트레빌대장이 없었습니다. 다르타냥은 재빨리 시계바늘을 제대로 돌려놓았습니다.

트레빌대장의 저택을 나선 다르타냥은 집으로 돌아갈때 일부러 제일 먼길을 에돌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는 은하수 비낀 밤하늘을 쳐다보며 한숨을 쉬기도 하고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머리가 착잡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윽고 그는 아라미스의 집근처에 이르렀습니다. 다르타냥은 아라미스의 집에 들려보기로 작정하고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때 골목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외투를 몸에 두른 웬 녀자였습니다.

그 녀자는 아라미스네 집앞으로 다가가 덧문을 세번 두

드리는것이였습니다. 그러자 곧 덧문너머 집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아라미스의 방이였습니다.

다르타냥은 곧 덧문이 열리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비치던 불빛마저 꺼지고 사위는 다시 캄캄해졌습니다. 다르타냥은 어둠속에 숨어서 숨죽이고 그쪽을 지켜보았습니다. 안에서 똑똑 두번 련달아 덧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자 그녀자는 덧문을 한번 두드려 응답하는것이였습니다.

덧문이 소리없이 열렸습니다. 녀자는 주머니에서 무엇인가 흰것을 꺼내여 집안에서 얼굴을 내민 사람에게 펼쳐보였습니다.

녀자는 덧문안으로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라미스의 방에 또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웬 녀자가 한밤중에 몰래 아라미스를 찾아왔는지 못내 궁금하였습니다.

다르타냥은 발소리를 죽이며 숨어있던곳에서 재빨리 뛰여나와 불빛이 훤한 방안이 잘 보이는 담벽에 바싹 붙어섰습니다.

순간 다르타냥은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밤늦게 찾아온 녀자는 등을 이쪽으로 돌려대고있어서 누군지 알아볼수 없었으나 그 녀자와 이야기를 하고있는것은 아라미스가 아니라 역시 녀자였습니다. 방안의 그 낯선 녀자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는것이 보였습니다. 두 녀자는 서로 손수건을 바꾸는것이였습니다.

이윽고 불이 꺼지더니 잠시후 한 녀자가 덧문밖으로

나와 외투의 두건을 내리고 다르타냥의 옆을 지나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녀자는 보나시부인이였습니다. 다르타냥은 곧 뒤를 따랐습니다. 그의 발소리를 듣자 부인은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르타냥은 쉽사리 부인을 뒤따를수 있었습니다. 부인은 놀란나머지 길우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보나시부인, 놀라지 마십시오. 저입니다.》
다르타냥은 상냥하게 말을 걸면서 부인을 안아일으켰습니다. 그를 알아보자 부인은 나직하게 환성을 질렀습니다.
《어마나! 당신이였군요. 전 깜짝 놀랐어요.》
다르타냥은 부인에게 아라미스와는 아는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부인은 아라미스라는 이름은 들어본 일도 없고 그 집에 간것도 오늘밤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방안에 있던 사람은 누굽니까?》
다르타냥이 물었습니다.
《그건 비밀이예요, 더는 묻지 말아주세요. 이제 좀 있으면 모든것을 알게 될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 말씀도 말아주세요.》
하고 부인은 사정하다싶이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집앞에 멈춰서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세번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알길이 없었습니다.
다르타냥은 의아한 생각에 잠겨 집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는 길에서 뜻밖에 플랑쉐를 만났습니다.
《나리님, 큰일났습니다. 아토스나리가 붙잡혀갔습

니다.》

《뭐라구? 아니, 그 사람은 왜 자기는 이 사건과 아무 관계도 없다고 말하지 않았는가말이야?》

《일부러 말하지 않았답니다. 아토스나리는 저에게 귀속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은 잘 몰라. 그러니까 잡혀도 별일 없을거야. 다르타냥이 잡히면 큰일이야. 내가 대신 잡혀가지. 뭐 한 사흘 지나서 내 이름을 대면 돌려보내줄거야.> 하구요.》

《고맙네, 아토스.》

다르타냥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곧 친구들한테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는 집에 없었습니다. 다르타냥은 플랑쉐를 집에 돌려보내고 다시 트레빌대장네 집으로 줄달음질쳤습니다. 오늘밤에 자기가 목격한 이상한 사건을 트레빌대장에게 이야기해두어야겠다고 생각했던것입니다.

그런데 트레빌대장도 집에 없었습니다. 총사대가 궁전을 지킬 차례였기때문에 그리로 갔다는것이였습니다.

다르타냥은 궁전을 향해 달음질쳤습니다. 궁전근처의 다리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몇걸음앞에 두 남녀가 가지런히 걸어가고있었습니다.

외투를 걸친 녀자는 보나시부인이 틀림없었습니다. 남자는 총사제복을 입고있었는데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있었습니다. 남자의 모습은 어딘가 아라미스와 비슷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다르타냥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보나시부인은 방금전

에 자기는 아라미스라는 사람은 이름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는 자기가 배반당하고 놀림감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르타냥은 종종걸음으로 두 사람을 앞질러가 그들의 앞에서 휙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은 우뚝 멈춰섰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사나이가 나직한 목소리로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라미스가 아니였습니다. 그 말투에는 외국인같은 사투리가 섞여있었습니다.
다르타냥은 멋적어서 그 낯선 사나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람을 잘못본 모양이군. 용서해주지.》
사나이의 마지막 말이 다르타냥의 비위를 거슬려놓았습니다.
《뭐, 용서해줘?》
그는 곱지 않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렇소. 나한테 볼 일이 없다면 길을 비키오.》
《당신에겐 볼 일이 없소.》
다르타냥은 보나시부인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떻게 된 일이예요? 당신은 무사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시지 않으셨나요?》
나무라는듯한 부인의 말에 다르타냥은 그만 풀이 꺾이였습니다.
《자, 갑시다.》
사나이는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시끄럽다는듯 다르타냥을 손으로 떠밀었습니다.

다르타냥은 한걸음 뒤로 물러서며 칼을 잡았습니다.
상대방도 재빨리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만두세요, 밀로르.》
보나시부인이 두 사람사이에 뛰여들며 소리쳤습니다.
밀로르라는것은 영국귀족을 부르는 말입니다. 다르타냥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버킹검공작이십니다.》
하고 보나시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다르타냥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버킹검공작에게 무엇이라고 귀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제가 그만, 실례했습니다.》
다르타냥은 공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버킹검공작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젊은이, 괜찮소. 알고보니 믿음직한 청년이군. 부탁컨대 궁전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줄수 없겠소?》
《그렇게 하지요. 사죄하는 뜻으로…》
《고맙소, 그럼 얼마쯤 뒤에 떨어져서 따라오시오. 만약에 노리는놈이 있거든 쳐부시란말이요.》
다르타냥은 칼을 뽑아든채 두 사람의 뒤를 따랐습니다. 길을 방해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버킹검공작과 보나시부인은 무사히 궁전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

버킹검공작은 총사의 제복을 입고있었기때문에 문지기들에게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침 총사대가 이날 밤 궁전을 지키고있었던것입니다.

보나시부인은 왕비의 시녀였으므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궁전에 들어간 두 사람은 벽을 따라 스물댓걸음쯤 걸어갔습니다. 보나시부인이 밤에는 언제나 닫혀있군하는 조그만 문을 열었습니다. 궁전안은 캄캄하였습니다.

부인은 공작의 손을 잡고 란간을 더듬으며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굽이굽이 꺾어진 계단을 따라 길다란 복도에 들어선 그들은 마침내 어느 한 방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슴푸레한 초불이 하나 켜있는 그 방에 공작을 남겨두고 부인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버킹검공작은 모험을 즐기는 대담한 인물이였습니다. 그는 왕비의 이름으로 쓴 가짜편지에 속아서 빠리로 온것이였습니다. 그것이 리셜리총리가 꾸며낸 수작이라는것을 알았으나 그는 영국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오히려 그 기회를 리용하여 왕비를 만나려 했습니다.

왕비도 이번에 공작을 만나서 영국으로 되돌아가도록 권고할 생각이였습니다. 보나시부인이 몰래 공작을 마중가기로 되여있었는데 바로 그날 부인은 리셜리총리의 호위병들한테 잡혀갔던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부인이 용케 도망쳐서 라 포르트와 련락이 되였기때문에 오늘밤 이렇게 공작과 왕비는 뜻을 이루게 되였습니다.

방안에 홀로 남은 버킹검공작은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총사의 제복이 제법 잘 어울렸습니다.

나이가 서른다섯살인 그는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에서도 가장 잘 생기고 멋진 귀족으로 알려져있었습니다. 영국왕의 남다른 사랑을 받고있는 그에게는 재산도 많았습

니다.

공작은 무엇이고 한번 결심한 일은 조금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자존심이 강한 왕비 안느 도트리슈의 마음도 휘여잡을수가 있었던것입니다.

거울앞에 마주선 공작은 흩어진 금발머리를 쓰다듬기도 하고 수염을 매만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벽휘장뒤에 있는 문이 소리없이 열리더니 한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부인의 모습을 본 공작은 흠칫 굳어지고말았습니다. 그 부인은 왕비였습니다.

프랑스왕 루이13세의 왕비 안느 도트리슈는 그 당시 스물예닐곱살난 절세의 미인이였습니다. 공작은 잠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왕비의 아름다운 모습을 황홀하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왕비는 한걸음두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공작은 왕비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그의 옷자락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왕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공작님, 편지를 낸것은 내가 아닙니다.》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뵙게 되였으니 이번 걸음이 결코 헛된 일은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다시 만나서는 안되겠습니다. 전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공작님을 여기에 불렀습니다.》

《왕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난 3년동안 전 당신을 오늘까지 겨우 네번 만났을뿐입니다. 제가 왕비님을 얼마나…》

《공작님의 그 심정을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어쩔수 없는 일이랍니다. 여러가지 터무니없는 소문이 퍼지고있는데다가 리셜리총리가 우리들의 관계를 눈치채고 폐하에게 꼬아바쳤답니다. 당신이 대사로 프랑스에 오시려고 했을 때 폐하가 한사코 반대하신것을 당신도 기억하고계시지요.》

《알고있습니다. 그때문에 프랑스는 부득이 영국과 전쟁을 하게 될것입니다. 이젠 만나러 오지 말라고 당신은 말씀하셨지요? 좋습니다. 그대신 당신의 귀에 매일 나의 이름이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로셀에는 프랑스국왕과 리셜리총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과 손을 잡을것입니다.

전쟁이란 대체로 한동안 싸우다가 쌍방이 서로 담판을 하고 끝나기마련입니다. 그때 나는 영국대표로서 다시 빠리로 올것입니다. 당신을 만나보기 위해서말입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몇천명의 사람들이 전사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날수만 있다면 나에게는 그런건 문제로도 되지 않습니다.》

《어마나, 끔찍스러운 소리도 하시는군요!》

《그런데 왕비님, 나는 어쩐지 멀지 않아 죽으리라는 예감이 듭니다.》

순간 왕비는 낯빛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도 불안한 꿈을 꾸었답니다. 당신이 상처를 입고 피투성이가 되여 쓰러져있는 꿈을.》

《왼쪽 옆구리를 단도로 쿡… 그렇죠?》

《예, 그래요. 왼쪽 옆구리를 단도로… 그런데 내가 그런 꿈을 꾸었다는것을 어떻게 아세요?》
《저도 그와 꼭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공작은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틀림없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엉켜있으니까 왕비도 같은 꿈을 꾼것이라고 느껴졌기때문입니다.
공작은 얼마동안 만날수 없겠는데 무엇이든 추억으로 남을만한 물건을 하나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왕비는 방으로 돌아가서 자기 이름을 금으로 박은 조그만 상자를 들고왔습니다.
《공작님, 이것을 기념으로 드립니다.》
공작은 상자를 받아들고 왕비의 아름다운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를 기다려주십시오. 목숨이 붙어있는 한 반년안으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밖에서는 보나시부인이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는 올때와 마찬가지로 공작을 데리고 몰래 궁전밖으로 나갔습니다.

4

호위병들에게 잡힌 보나시는 곧 바스티유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날밤 지하실에 갇힌 보나시는 겁에 질려 온밤 벌벌 떨었습니다.
그도 자기가 이런 변을 당하게 된것이 자기 안해때문이라는것을 어렴풋이 알고있었습니다. 무서운 고문을 당할일이 끔찍스러웠습니다. 그는 모든것을 되도록이면 솔직히

털어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찌기 수사관한테로 끌려갔습니다.
《네 사건은 어제밤부터 매우 시끄럽게 됐어. 하나도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 어제 무엇하러 다르타냥한테 갔댔어?》
수사관이 매섭게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제 안해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러 갔댔습니다.》
《그래 다르타냥은 뭐라고 하던가?》
《도와줄테니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 사람이 믿을수 없는 허튼 사람같이 생각됩니다.》
《거짓말 말아, 다르타냥은 너하고 한패가 되여 네 안해를 잡은 사람을 쫓아버렸어. 그뒤로 네 안해의 행방을 알수가 없단말이야.》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다르타냥을 불러오지.》
부하가 곧 아토스를 데려왔습니다.
《다르타냥, 이 사람과의 관계를 똑똑히 말해!》
《이분은 다르타냥이 아닙니다.》
하고 보나시는 어리둥절해서 말했습니다.
수사관은 놀라서 아토스를 돌아보았습니다.
《뭐, 네가 다르타냥이 아니라고? 그럼 이름이 뭐냐?》
《아토스요.》
《넌 처음엔 다르타냥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천만에요. 당신들이 억지로 나를 다르타냥으로 만들어버렸지요.》
보나시가 옆에서 참견했습니다.

《나리님, 다르타냥은 겨우 스무살쯤 된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서른도 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다르타냥은 에싸르님의 호위병인데 이분은 트레빌님의 총사입니다. 총사의 제복을 입은걸 봐도 알수 있지요.》

《참, 그렇군.》

수사관은 입속으로 중얼거리면서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둘다 감옥으로 끌어가라고 꽥 소리쳤습니다. 보나시도 아토스도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튿날밤 옥지기가 보나시를 다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는 마차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보나시는 목을 베려나보다 하고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그는 낯빛이 꺼멓게 질려 절망적인 눈으로 물끄러미 거리를 바라보고있었습니다. 무엇때문인지 광장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었습니다. 순간 보나시는 기절하고말았습니다. 자기 목을 자르는것을 구경하러 모여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것입니다.

보나시가 다시 정신을 차린것은 어느 집 대기실안의 푹신푹신한 의자우에서였습니다.

옆방에서 무사 한사람이 나타나더니 보나시를 불러냈습니다. 그는 여러가지 무늬로 벽을 장식한 커다란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난로앞에 중키의 사나이가 엄숙하게 서있었습니다. 나이는 아직 마흔댓밖에 안되여보였으나 머리와 수염이 희끗희끗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프랑스총리 리셜리였습니다. 그러나 보나시는 그저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을뿐 그가 총리인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리셜리총리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자네 안해가 쉐브르즈부인과 버킹검공작하고 음모를 꾸몄다는것을 알고있는가?》

《음모라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해에게서 이따금 그런 이름은 들은 일이 있습니다만…》

《그래 무슨 말을 하던가?》

《저… 리셜리총리님이 버킹검공작을 빠리로 꾀여내서 왕비님과 함께 죽여버리려고 한다는 말을 하면서…》

《자네 안해가 그런 소리를 하던가?》

《네, 하지만 전 리셜리총리님은 그런분이 아니라고 잘 타일렀지요.》

리셜리총리는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보나시, 자넨 늘 안해를 궁전까지 마중가군한다지? 그래 자네 안해는 언제나 곧장 집으로 돌아오던가?》

《아닙니다. 자주 옷상점에 들리군했습니다.》

《그 장소는?》

보나시는 장소를 말했습니다.

《그때 자네도 함께 들어갔는가?》

《전 한번도 들어간적이 없습니다. 문간에서 기다렸지요.》

《자넨 자네 안해가 늘 혼자서 옷상점에 들어가는것을 이상하게 생각해본 일은 없는가?》

《별로 다르게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다. 기다리라고 해서 그저 기다렸을뿐이지요.》

《보나시, 당신은 순진한 사람이군.》

리셜리총리는 보나시가 이번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것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보나시는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틀림없이 이분이 나를 당신이라고 불러주었겠다. 아마 일이 잘되려는가보다.)

하고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리셜리총리는 은으로 만든 초인종을 흔들어 울렸습니다. 곧 한사람의 무사가 나타났습니다.

《로슈포르를 불러오게.》

《백작님은 마침 여기 와계십니다. 총리님을 꼭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리 안내하게.》

무사가 나가자 곧 그 로슈포르라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보나시는 소스라치듯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놈이다!》

하고 그는 넋없이 소리쳤습니다.

리셜리총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이놈이라니, 자네 그게 무슨 말버릇인가?》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의 안해를 잡아간놈이 바로 이놈입니다.》

리셜리총리는 다시 초인종을 울려 무사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을 데려가게. 내가 부를 때까지 기다리도록.》

보나시는 더럭 겁이 났습니다. 그는 황황히 총리앞에 다가섰습니다.

《총리님, 제가 사람을 잘못봤습니다. 아닙니다. 이분이 아닙니다.》

백작을 불손하게 대했기때문에 또 벌을 받게 되지나 않

을가싶어 주눅이 들었던것입니다.

보나시는 구구히 변명하며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백작은 그가 사라지기를 기다리고있다가 리셜리총리곁으로 다가섰습니다.

《총리각하, 끝내 그들이 만나고야말았습니다.》

《왕비와 공작이 말인가? 어디서?》

《루브르궁전에서입니다.》

《그게 확실한가?》

《틀림없습니다.》

《누구에게서 들었나?》

《왕비의 시녀 라누아부인에게서 들었습니다. 그 녀자는 우리편입니다. 그 녀자의 말에 의하면 왕비는 공작과 45분가량 서로 만났는데 자기 이름자가 박힌 조그만 상자를 넘겨준것 같답니다.》

《그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라누아부인은 알고있다던가?》

《네, 폐하가 주신 금강석브로치랍니다.》

《그러니 왕비가 그것을 버킹검공작에게 준것 같단말이지?》

《그렇습니다.》

《무슨 근거라도 있다던가?》

《이튿날 라누아부인이 그 상자를 찾아보니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왕비님에게 물었답니다. 왕비님은 난처한 얼굴로 잠시 머뭇거리더니 보석공에게 고치러 보냈다고 대답하더랍니다. 저는 보석공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석공은 그런 일이 없다는것입니다.》

《좋아, 로슈포르, 이번에 왕비와 공작을 만나게 한것은 우리편의 실수지만 오히려 일이 잘될지도 모르네. 아직도 손쓰기엔 늦지 않았어. 그런데 쉐브르즈부인과 버킹검공작이 여직껏 어디 숨어있었는지 알겠나?》

리셜리는 아까 보나시에게서 들은 그 옷상점의 위치를 말해주었습니다.

《두 사람 다 잡도록 할가요?》

《이미 때가 늦었는걸. 달아나버렸을걸세.》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로슈포르는 밖으로 뛰여나갔습니다.

보나시가 다시 불려나왔습니다.

보나시도 마침내 자기앞에 서있는 사람이 리셜리총리라는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리셜리총리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리셜리총리님, 제가 그만 각하를 알아보지 못하고…》

리셜리는 웃으면서 보나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일어서시오. 내 친구, 당신은 좋은 사람이요.》

(리셜리총리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다니…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시지 않는가.)

보나시는 꿈만 같아 몸둘바를 몰라했습니다.

리셜리총리는 짐짓 너그러운 웃음을 지어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죄없는 당신을 의심해서 미안하오. 자, 여기 백피스톨이 든 주머니가 있소. 이것을 받고 나를 량해해주오.》

《량해하다니요. 어쩌면 그런 말씀을…》

보나시는 감격의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꾸벅꾸벅 절을

하고 나갔습니다.
얼마후에 로슈포르백작이 들어왔습니다.
《총리각하, 유감스럽게도 이미 한발 늦었습니다. 쉐브르즈부인은 어제저녁에, 공작은 오늘아침에 떠나버렸답니다.》
리셜리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이젠 뒤따라가도 늦겠군.》
로슈포르는 정중히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백작이 돌아간뒤 리셜리는 급히 편지를 썼습니다.
잠시후 길떠날 차림을 한 한 사나이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리셜리는 그 사나이에게 편지를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서둘러 런던으로 가게. 도중에서 1초도 지체해선 안되네. 이 편지를 밀라디에게 전하게. 자, 2백피스톨을 려비로 받아두게. 엿새동안에 일을 끝내고 돌아오면 또 2백피스톨을 주겠네.》
사나이는 말없이 편지와 돈을 받아가지고 사라졌습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었습니다.

밀라디에게
버킹검공작이 나가는 무도회에 참석하라. 공작은 열두개의 금강석이 박힌 브로치를 달고있다. 가까이 하여 그 가운데서 두개를 잘라내라.
금강석을 손에 넣으면 곧 알리라.

5

이튿날 트레빌대장은 다르타냥과 포르토스에게서 아토스가 호위병들에게 붙들려간 사연을 보고받았습니다.

아라미스는 그 사건이 일어나던 날 닷새동안의 휴가를 얻어 려행을 떠났기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하들을 친자식처럼 아끼는 트레빌대장은 곧 경시총감에게 달려갔습니다. 알아보니 아토스는 포르 레베크감옥에 갇혀있었습니다.

트레빌은 그 길로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루이13세는 리셜리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있었습니다. 트레빌대장을 보자 왕은 언짢은 기색으로 말하였습니다.

《마침 잘 왔네. 어떻게 된 일인가? 지금 리셜리총리가 자네 부하인 다르타냥을 체포하게 해달라고 나한테 조르고있으니…》

《그건 또 무슨 까닭입니까?》

《요전날밤 다르타냥이 내 호위병을 마구 찌르는 등 못된짓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리셜리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도대체 언제 있은 일입니까? 리셜리각하.》

《그저께 오후 9시반이지요.》

그 말을 듣자 트레빌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리셜리각하가 오해하고계십니다. 다르타냥은 그날 9시에 제 집에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어느 누

구에게 물어도 증명해줄겁니다.》
리셜리는 고개를 기웃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트레빌은 왕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폐하, 제가 오늘 뵈러 온것도 사실은 그 일때문입니다. 리셜리각하의 호위병들이 제 부하인 아토스를 다르타냥으로 잘못 알고 옥에 넣었습니다. 다르타냥이 아니라는걸 알면서도 아토스를 놓아주질 않는답니다. 공평하신 폐하가 다스리시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아토스는 폐하에게 더할나위없이 충실한 종사랍니다.》
《허, 그런 일이 있었나?》
국왕은 즉시 아토스를 놓아주라는 명령서를 썼습니다.
트레빌은 그 명령서를 받자 어리둥절해있는 리셜리를 남겨두고 의기양양해서 궁전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리셜리총리는 호락호락 물러설 위인이 아니였습니다. 트레빌이 나가는것을 지켜보던 그는 왕의 곁에 바싹 다가섰습니다.
《폐하, 조용히 말씀을 드릴 일이 있습니다. 영국의 버킹검공작이 닷새전부터 빠리에 와있다가 오늘아침 돌아갔습니다.》
《뭐, 버킹검이? 무슨 일로.》
《이번에도 폐하를 반대하는 신교도들과 에스빠냐사람들과 련계를 가지기 위해서겠지요.》
《아니, 단순히 그때문만이 아닐거야. 쉐브르즈부인이며 그밖의 사람들과 한짝이 되여 나를 망신시키려고 왔을거야.》

리셜리는 국왕이 이미부터 왕비를 의심하고있다는것을 뻔히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나 리셜리는 그것을 전혀 모르는체 시치미를 뗐습니다.

《폐하, 그것은 지나친 생각같습니다. 버킹검공작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목적을 노리고있다고밖에 달리 생각할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게 아니야. 만약 쉐브르즈부인이 못된짓을 했다면 가만둘수 없지.》

《하긴 오늘아침 라누아부인이 말한바에 의하면 왕비께서는 그저께밤 늦게까지 안주무셨고 또 어저께는 종일 편지를 쓰시면서 우셨다는군요.》

《그놈에게 보내는 편지겠지. 그것을 찾아내도록 해야겠어. 그런데 리셜리, 자넨 그걸 알면서도 왜 버킹검공작을 체포하지 않았나?》

《영국의 공작을 어떻게 체포합니까? 폐하, 무슨 말씀을…》

《하지만 불량배나 도적놈처럼 어슬렁거리고있는데 그대로 두면…》

국왕은 분노에 치를 떨며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리셜리는 왕의 입에서 《죽여버려도 그만이야.》라는 말을 듣고싶었으나 루이13세는 더는 말이 없었습니다.

즉시 왕비의 침실이 수색당했습니다.

수치와 분노로 몸을 떨면서 왕비는 자기가 쓴 편지를 왕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버킹검공작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왕비의 남동생인 에스빠냐왕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총리에 대한 욕설이 담겨져있었습니다.

왕은 리셜리를 불렀습니다.

《리셜리, 내가 오해했어. 자네가 말하다싶이 이건 전적으로 정치적인 음모야.》

순간 리셜리는 한가지 흉계를 생각해냈습니다.

《폐하, 왕비께서는 억지로 편지를 빼앗겼기때문에 매우 노하셨을것입니다. 왕비님을 위로해드릴만한 무슨 일을 하셔야겠습니다.》

왕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가요? 제 생각엔 무도회를 여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왕비님은 무도회를 무척 즐기시니까요. 왕비님도 폐하의 따뜻한 마음씨를 느끼시면 노여움이 풀리실것입니다.》

《무도회는 싫어.》

《아닙니다. 왕비님은 폐하가 그런 놀이를 싫어하신다는것을 잘 알고계시기때문에 오히려 더 기뻐하실겁니다. 무도회를 여시면 왕비님이 폐하에게서 받은 금강석브로치를 달고 나오실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도 하군. 생각해보기로 하지.》

왕은 분명히 대답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고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선물한 금강석브로치를 왕비가 달고있을 때면 더없이 마음이 흐뭇해지군하는것이였습니다.

왕비는 편지를 빼앗겼으니 틀림없이 꾸중을 들을것이라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편지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화해를 하고싶어하는 눈치를 보이면서 곧 무도회를 열자고 왕비의 비위를 맞추는것이였습니다.

그러나 리셜리총리는 한장의 편지가 날아오기를 안타까이 기다릴뿐 무도회를 베풀 날자를 좀처럼 결정하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어느날 드디여 그 편지가 왔습니다. 런던우편국의 도장이 찍힌 그 편지에는 이렇게 씌여있었습니다.

그 물건은 손에 넣었습니다. 려비가 부족하여 런던을 출발할수 없습니다. 5백피스톨만 보내주십시오. 돈을 받으면 사오일안으로 빠리에 도착하겠습니다.

리셜리총리는 손으로 날자를 꼽아보았습니다.

돈이 런던에 닿자면 사오일이 걸릴것입니다. 밀라디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데 또 사오일, 합쳐서 열흘, 녀자의 몸인데다가 뜻밖의 사고라도 생길지 모르니 열이틀로 봐두면 틀림없을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무도회를 어느날 베푸는것이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이 9월 20일입니다. 마침 시청에서 10월 3일에 축하회를 한다니까 이쪽에서도 그날로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런데 페하, 무도회전날 왕비님에게 그 금강석브로치가 잘 어울리는지 보고싶다고 말씀해보십시오.》

리셜리가 금강석브로치이야기를 꺼낸것이 벌써 두번째였습니다.

왕은 거기에 무슨 까닭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구태여 무도회전날까지 미룰것없이 즉시 그 말을 왕비에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멀지 않아 시청에서 무도회가 있소. 거기에 나가줘야겠소. 그날 내가 생일선물로 준 그 금강석브로치를 잊지 말고 달고 나가도록 하오.》
그 말에 왕비는 파랗게 질렸습니다. 별안간 기절이라도 할듯이 작은 책상을 붙잡고 겁난 눈초리로 물끄러미 왕을 쳐다볼뿐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소?》
《예, 알았어요.》
왕비는 더듬거렸습니다. 왕이 나간 다음 그는 울먹거리며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이거 큰일났네. 이건 리셜리가 꾸며낸 수작이야. 페하는 아직은 모르고계시지만 곧 다 알게 되실거야. 아,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왕비님, 제가 도와드릴수 없을가요?》
등뒤에서 부드럽고 다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문어구에 보나시부인이 서있었습니다.
부인은 아까 왕이 들어왔을 때 옆방에서 방안을 정돈하다가 이야기를 전부 엿들었던것입니다. 보나시부인도 이미 그 금강석브로치를 왕비가 버킹검공작에게 주었을것을 짐작하고있었습니다.
《왕비님, 공작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금강석브로치를 찾아올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도대체 누구에게 시키겠어?》
《제게 맡겨주십시오. 틀림없이 믿을만한 사람을 찾아내겠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써야 하지 않아? 그 편지가 나쁜놈의 손에 들어가면 어떡해? 그렇게 되면 나는 명예도 목숨도 다 잃고 말아.》

《저의 남편은 무던하고 충직한 사람입니다. 제가 부탁하면 무슨 일이든 다 해주지요. 왕비님의 편지란걸 숨기고 받을분에게 전달해주도록 부탁해보겠습니다.》왕비는 곧 편지를 써서 보나시부인에게 주었습니다.

보나시부인이 편지를 품속에 건사하고 떠나려는데 왕비가 문득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고있었어.》

하고 그를 멈춰세웠습니다.

《돈이 필요할텐데 내겐 가진것이 없어서…》

왕비는 난감한듯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보석상자를 갖다놓고 반지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것은 동생 에스빠냐왕이 준것인데 값진것이야. 이걸 돈으로 바꾸도록 해.》

《알겠습니다.》

보나시부인은 왕비의 손에 입을 맞추고 참새처럼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보나시부인은 남편이 풀려나온뒤로 아직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리셜리의 너그러운 처사에 감동된 나머지 그의 편이 되고말았습니다. 그동안에 로슈포르백작이 두서너번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바람을 불어넣었던것입니다.

《리셜리총리님은 당신을 크게 믿고있소. 이젠 당신은 돈도 명예도 문제없게 되였소. 앞으로 그분을 잘 섬기도록 하시오.》

보나시는 달콤한 그 말에 넘어가고말았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변한것을 모르는 보나시부인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말문을 열었습니다.
《좀 할 이야기가 있어요.》
《나도 물어볼 말이 있어. 당신이 잡혀갔을 때의 이야기를 좀 해줘.》
《그런 소릴 하고있을 때가 아니예요.》
《그럼 내가 붙잡혀갔을 때의 이야기를 할가?》
《하지만 당신에겐 아무 죄도 없지 않아요? 난 별로 걱정도 안했어요.》
보나시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나는 저 바스티유감옥에 갇혀있었단말이야.》
《내 말을 좀 들으세요.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일감이 생겼어요.》
돈이라면 오금을 못쓰던 보나시였지만 지금은 별로 귀맛이 당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돈이라… 그래 얼마쯤?》
《천피스톨.》
《꽤 큼직한 일이로군. 무슨 일이야?》
《편지를 드릴테니 그걸 가지고 빨리 가면 돼요. 갈곳은 런던.》
《런던? 난 싫어.》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지위가 높은분들이예요. 상금도 굉장히 받게 될거예요.》
《또 무슨 못된짓인게로군. 난 이젠 그런 일에 끌려들긴 싫어. 리셜리총리님이 타일러주더구만.》

《리셜리님이요?》
《그럼, 리셜리각하가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어. 알겠어? 난 앞으로 리셜리님을 받들어 나라에 이바지하겠단말이야.》
《그런 쓸데없는 소릴랑 말아요. 장사군은 장사군답게 돈을 많이 벌수 있는 편에 붙으면 그만이예요.》
《아무렴, 그렇고말고.》
보나시는 은화가 든 주머니를 흔들어보이면서 히쭉 웃었습니다.
《어때, 이만하면 괜찮지? 리셜리님뿐만아니라 로슈포르님도 나를 돌봐주고있어.》
《로슈포르라니, 나를 랍치한 사람말인가요?》
《그럴지도 모르지.》
보나시부인은 아연해졌습니다. 그제야 남편의 마음이 변했다는것을 알아차렸던것입니다.
(이 일을 어쩐담? 그렇게 왕비님에게 굳게 약속했는데. 이젠 이분은 나의 원쑤나 다름없어.)
부인이 이렇게 걱정하고있는 사이에 보나시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휭하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때 천정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부인은 깜짝 놀라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뜻밖에 다르타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 골목길쪽 문을 열어주시오. 곧 내려가겠습니다.》
잠시후 다르타냥이 들어왔습니다.
《부인, 저는 다 들었습니다. 왕비님이 용감하고 령리하고 충실한 사람을 런던으로 심부름을 보내려 하시지요. 저는 그 세가지중에서 적어도 두가지는 갖추고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주십시오.》
부인은 젊은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이의 눈은 정열에 불타고있었습니다.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다르타냥에게 모든 사연을 죄다 이야기했습니다.
다르타냥은 중대한 일을 맡게 된 기쁨과 자랑으로 얼굴이 빛났습니다.
《그럼, 곧 출발하겠습니다.》
《잠간만…》
부인은 벽장을 열고 아까 보나시가 흔들어보이던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세요.》
《이건 리셜리총리에게서 받은 돈이군요.》
다르타냥은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보나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감쪽같이 빠져나와 다르타냥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덧문짬으로 내다보니 보나시가 만또를 입은 웬 사나이와 마주서서 이야기를 하고있었습니다.
다르타냥은 칼을 잡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가 찾고 있던 사나이, 얼굴에 칼자국이 난 로슈포르백작이 나타난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봐요. 그러시면 어떡해요? 당신의 목숨은 이젠 왕비님의것입니다.》
보나시부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다르타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중대한 임무를 앞에 놓고 참을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윽고 보나시와 사나이는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로슈포르는 그 길로 돌아

가고말았습니다.

보나시는 벽장문을 열어보고 돈주머니가 없어진것을 깨닫자 눈알이 뒤집혔습니다.

《도적이야, 도적!》

그는 미친듯이 고함치며 허둥지둥 뛰여나갔습니다.

《자, 이제는 당신이 나가실 차례입니다.》

하고 보나시부인이 말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다르타냥은 커다란 만또를 몸에 두르고 칼을 차고 용감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보나시부인은 그의 뒤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르타냥이 골목으로 사라지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조용히 빌었습니다.

《아, 하느님이시여, 왕비님을 지켜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분을 지켜주십시오.》

제 3 장

런던으로

1

밤 2시, 조용하게 잠든 빠리의 포장도로를 뚜벅뚜벅 소리를 내며 여덟필의 말이 달려가고있었습니다.

앞에서 달리는 네필은 검은말, 타고있는 사람들의 만또가 펄럭입니다. 그 밑으로 칼집이 드러나보입니다.

그들은 다르타냥,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 네 사람이였습니다. 뒤에는 단단히 무장을 한 그들의 네 부하가 따르고있었습니다.

여덟필의 말은 쌍 드니문을 지나 영국으로 건너가는 항구 칼레시를 향하여 곧장 달렸습니다.

어떻게 되여 이 네 사람이 함께 떠났을가요? 보나시부인에게서 버킹검공작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은 다르타냥은 곧 트레빌대장을 찾아갔습니다.

다르타냥은 왕비를 위한 일을 하고싶으니 두주일동안의 휴가를 얻을수 있도록 에싸르님에게 말씀드려달라고 트레빌에게 부탁하였습니다.

트레빌은 그 까닭을 묻지 않고 선선히 승낙해주었습니다. 다르타냥은 그 길로 친구들한테로 달려갔습니다. 세 총사들은 모두 그를 따라가겠다고 떨쳐나섰습니다.

네 사람은 한자리에 모여앉았습니다.

《돈은 있는가?》

하고 포르토스가 물었습니다.

다르타냥은 보나시의 돈주머니를 꺼내보였습니다.

《여기 3백피스톨이 있네. 넷이서 나누세. 한사람이 15피스톨만 가지면 런던에 갔다가 돌아올수 있지. 그런데 함께 런던에 도착할순 없을게야.》

《왜?》

《틀림없이 방해하는놈이 있을테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다르타냥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편지를 전달하는게 우리들의 임무야. 그 편지는 내 주머니에 들어있어. 만약 내가 쓰러지면 누구든지 그것을 가지고 계속 달려야 하네. 그러다가 그가 쓰러지면 또 다른 사람이 그 뒤를 잇도록 하세.》

《좋은 생각이야.》

하고 아토스가 찬성했습니다.

《넷이 함께 가면 어떤놈들이 나타나도 걱정할게 없네.

부하들에게도 돈과 총을 가지고 가게 하세.》

《다르타냥이 편지를 가지고있으니 대장은 다르타냥으로 하고 우리들은 다르타냥의 명령대로 움직이도록 하세.》

하고 포르토스가 말했습니다.

《찬성이야.》

이렇게 하여 총사들은 빠리를 출발했던것입니다.

주막집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아침을 먹으려고 주막앞에서 내렸습니다. 언제든지 출발할수 있도록 말안장은 내리지 말라고 부하들에게 일러두고 네 사람은 주막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막에는 웬 무사가 홀로 앉아 술을 마시고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들어서자 그는 이야기를 걸어왔습니다. 식사를 끝마치고 모두 식탁에서 일어서려 할 때였습니다. 무사가 포르토스를 붙잡고 리셜리각하의 건강을 위해 축배를 들자고 했습니다.

포르토스가 점잖게 우선 국왕을 위해 잔을 들자고 했습니다.

《임금님같은건 아무래도 좋아. 리셜리각하를 위해 축배를 들어야지.》

무사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포르토스는 화가 나서 호통을 쳤습니다.

《이 주정뱅이같으니…》

《뭣이 어째?》

무사는 대뜸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도발에 걸려든것이였습니다.

《포르토스, 이놈을 처치하고 될수 있는대로 빨리 뒤따라오게.》

아토스가 이렇게 말하자 세 사람은 포르토스를 남겨두고 말에 뛰여올랐습니다.

《벌써 한사람 떨어졌군.》

잠시뒤에 아토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왜 포르토스에게만 대들었을가?》

아라미스가 고개를 기웃거렸습니다.

《포르토스가 제일 큰소리로 떠들었으니 아마 그 친구가 대장인줄 알았던 모양이지.》

하고 다르타냥이 웃었습니다.

보베에서 잠시 쉬면서 포르토스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두시간을 기다려도 포르토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수없이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보베에서 4키로메터쯤 지나 그들은 도로공사가 한창 벌어지고있는곳에 이르렀습니다. 길은 량쪽 벼랑에 끼여 매우 좁았습니다.

거기서 일여덟명의 사나이가 구뎅이를 파기도 하고 진창을 쳐내기도 하고있었습니다.

아라미스는 장화에 진창을 묻히기가 싫어서 그 사나이들에게 길을 비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사나이들은 마주대고 욕지거리를 했습니다. 그 말투가 너무도 무례해서 여느때는 침착하던 아토스도 그만 화를 내며 상대방 녀석들을 향해 말을 내몰았습니다.

사나이들은 길옆으로 황급히 비켜서더니 도랑에 감춰두었던 총을 꺼내 잡았습니다.

총알이 비오듯 날아왔습니다.

《상대하지 말고 앞으로!》
하고 다르타냥이 웨쳤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라미스가 어깨에 총알을 맞았습니다. 포르토스의 부하인 무스크톤도 허리를 맞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라미스는 아픔을 참고 말갈기에 매달려있었지만 크레브 쾨르까지 와서는 더 움직일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얼굴빛도 창백하였습니다. 아라미스의 부하인 바쟁을 그와 함께 남기고 그들은 다시 길을 서둘렀습니다.
이로써 사람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을테다. 어디 두고보자. 칼레에 닿기까지는 말도 안하고 칼도 안뽑을테니까.》
아토스가 분한듯 뇌까렸습니다.
그들이 아미앵에 닿은것은 밤중이였습니다.
일행은 《금백합집》이라는 려관에 묵기로 했습니다.
려관주인은 아토스와 다르타냥에게 제일 좋은 방들을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들은 건물 량끝에 떨어져있었습니다.
아토스와 다르타냥은 더러운 방이라도 좋으니 둘이 따로따로 떨어져서는 곤난하다고 버티였습니다. 주인은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었으나 아무래도 어딘가 수상했습니다.
다르타냥의 부하 플랑쉐가 찾아와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말을 지키는건 그리모어 혼자서도 맡아할수 있습니다. 저는 보초도 설겸 여기 문에 기대여서 자겠습니다.》
《음, 그렇게 해주게. 어쩐지 그 령감이 너무 친절한게 맘에 안들어.》
하고 다르타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밤중에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야?》

플랑쉐가 눈을 뜨고 소리치자 상대방은 방을 잘못 알았노라고 사과를 하고 가버렸습니다.

새벽에 외양간에서 커다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모어가 외양간의 일군들을 깨우려 하다가 그놈들에게 얻어맞은것이였습니다. 그는 가엾게도 쇠스랑자루에 두들겨맞아 정신을 잃었습니다.

플랑쉐가 마당에 나가 말에 안장을 얹으려 하였으나 어찌된셈인지 말들은 모두 다리가 부어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수없이 플랑쉐는 다른 말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려관 현관앞에 안장을 얹어놓은 말 두필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말들이였습니다.

이 말만 가지면 칼레까지 단숨에 갈수 있을것 같았습니다. 혹시 빌릴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플랑쉐는 이 사실을 다르타냥에게 알렸습니다.

아토스가 다르타냥과 플랑쉐를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흥정하러 갔습니다.

려관주인은 안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아토스가 2피스톨을 치러주자 주인은 돈을 뒤집어보기도 하고 두드려보기도 하면서 살펴보다가 느닷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가짜돈이다. 이놈들을 잡아라!》

《무슨 수작이야? 이놈, 좀 맞아봐야 알겠느냐?》

아토스는 화가 나서 웨쳤습니다.

이때 무장한 네명의 사나이가 옆문으로 들어와 아토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또 터졌다. 다르타냥, 달아나라! 빨리 빨리!》
아토스는 목청껏 소리치면서 권총을 두방 쏘았습니다.
다르타냥과 플랑쉐는 현관앞에 매여있는 말들에 훌쩍 올라타자 옆구리를 힘껏 걷어찼습니다. 말들은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칼레시어구에서 말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지나치게 급히 몰았기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말을 버리고 항구로 달렸습니다.
그들의 앞에서 름름한 무사가 부하를 데리고 역시 항구로 가고있었습니다. 장화가 먼지투성이인것으로 보아 그들역시 급한 길을 가는 모양이였습니다.
무사는 부두에서 곧 영국으로 떠나는 배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떠날 준비가 다된 배의 선장이 대답했습니다.
《오늘아침 명령이 내려서 리셜리총리의 허가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못태우게 되여있습니다.》
《나는 허가증을 가지고있어.》
무사는 쪽지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그럼 사무소에 가서 도장을 받아오십시오.》
《그러지.》
무사는 사무소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소는 시가지변두리에 있었습니다. 무사가 조그만 숲에 다달았을 때 다르타냥이 그의 뒤를 바싹 따랐습니다.
《여보시오. 급하신 모양이지만 잠간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당신의 허가증을 빌려주십시오.》
《무슨 롱담을…》

《나는 롱담을 싫어하는 성미입니다.》
《시끄럽소. 어서 비키시오.》
《아니, 못갑니다.》
《야 이놈봐라, 한번 맛을 보여줘야겠군. 이봐, 류뱅, 권총을 이리 줘.》
《플랑쉐, 그 부하놈을 처치하게.》
다르타냥의 말이 떨어지기바쁘게 플랑쉐는 류뱅에게 달려들어 한칼에 쓰러뜨렸습니다.
무사는 칼을 뽑아들고 다르타냥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역시 다르타냥의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플랑쉐는 상처입은 류뱅의 입을 틀어막아 나무에 비끄러맸습니다. 다르타냥은 무사의 주머니에서 허가증을 꺼냈습니다. 허가증에는 와르드백작이라는 이름이 씌여있었습니다.
다르타냥은 허가증을 가지고 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사무소직원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리셜리총리각하의 허가증이 있는가요?》
다르타냥은 와르드백작의 허가증을 뻐젓이 내보였습니다. 항구사무관은 도장을 찍으면서 말했습니다.
《리셜리각하는 누군지 영국으로 건너가는 사람을 도중에서 붙잡으려는가보죠?》
《그렇습니다. 다르타냥이라는 나쁜놈이 세사람의 친구들과 함께 런던으로 가려고 한답니다.》
다르타냥은 자기가 마치 와르드인것처럼 태연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르타냥을 아십니까? 아시면 알려주십시오. 용모가 어떻게 생긴 녀석입니까?》

다르타냥은 와르드백작의 생김새를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항구에 돌아오니 선장이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자, 도장을 받아왔소.》
《다른 또 한분은?》
《오늘은 떠나지 않기로 했답니다. 걱정마시오. 내가 두 사람분의 배삯을 치를테니.》
다르타냥과 플랑쉐는 쪽배를 타고 5분뒤에는 큰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닻을 올리자 다르타냥은 갑판에 누워서 늘어지게 푹 잤습니다.

2

이튿날아침 10시에 배는 도바항에 닿았습니다. 다르타냥과 플랑쉐는 거기서 말을 얻어타고 네시간만에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다르타냥은 영어도 모르고 런던의 거리도 몰랐습니다. 그는 할수없이 버킹검공작의 이름을 종이에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손짓으로 공작의 저택을 가리켜주었습니다.
저택에 당도하니 공작은 국왕을 모시고 윈저에 사냥을 갔다는것이였습니다.
다르타냥은 공작이 가장 믿고있다는 부하로 프랑스말을 아는 패트릭이라는 사나이를 불러냈습니다. 그는 패트릭에게 자기는 중대한 일로 프랑스에서 심부름을 온 사람이니 곧 공작을 만나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말했습

니다.

패트릭은 다르타냥을 데리고 사냥터로 갔습니다. 20분쯤 지나서 사냥터에 이르렀습니다.

매를 부르는 공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함을 뭐라고 말씀드릴가요?》

《어느날 밤 퐁 놔프다리우에서 싸움을 건 젊은이라고 말해주시오.》

《이상한 인사로군요.》

버킹검공작은 패트릭의 말을 듣자 곧 다르타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다르타냥한테로 말을 몰아왔습니다.

《왕비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게 아니요?》

《별일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험한 처지에 몰리고계신가 봅니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공작님의 힘을 빌어야만 하실 모양입니다.》

《내가 도움이 되여드릴수 있다면 기쁘겠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이 편지를 보십시오. 왕비님이 보내시는겁니다.》

《왕비님이?》

버킹검공작은 빼앗듯이 그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아, 큰일났군. 패트릭, 자네 폐하를 찾아 말씀드려주게. 나는 매우 중대한 볼일이 생겨서 급히 런던으로 돌아가니 용서하시라고. 자, 어서 가세.》

말은 마치 허공을 나는듯이 달려 런던거리에 있는 공작의 저택에 당도했습니다.

공작은 현관의 층계를 뛰여올라갔습니다. 다르타냥이 숨가삐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으리으리한 방을 여러개 지나 두 사람은 벽에 온통 페르샤천에 금실무늬가 박힌 휘장이 드리운 방에 들어섰습니다. 헤아릴수 없을만큼 많은 초불이 휘황하게 켜져있고 안쪽벽에는 프랑스왕비 안느 도트리슈의 초상화가 걸려있었습니다.

그 초상화밑에 브로치가 들어있는 작은 상자가 놓여있었습니다. 공작은 상자뚜껑을 열고 금강석이 번쩍이는 푸른 댕기에 달린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내가 죽으면 함께 묻어달랄 생각이였는데…》

이렇게 말하며 아쉬운듯이 금강석 하나하나에 입맞추어가던 공작은 갑자기 낯빛이 새파래졌습니다.

《웬일이야? 금강석이 두개 모자란다. 열개밖에 없어.》

공작은 아뜩해져서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도적맞았어. 틀림없이 이건 리셜리의 앞잡이가 한짓이야. 보라구, 여기가 가위로 잘렸어.》

《누군지 짐작이 안가십니까? 어쩌면 그 범인이 아직 금강석을 가지고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가만있자, 난 이걸 단 한번밖에 단 일이 없는데… 아, 알겠어. 윈터부인이야. 사이가 틀어졌기에 화해를 하려고 내가 그때 그 녀자와 함께 춤을 추었지.》

공작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잠시후 공작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도회는 언제 있는가?》

《오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그럼 아직 닷새 남았군. 그렇다면 념려없어. 이봐.》

공작은 방문을 열고 시종을 불렀습니다.

《보석공과 비서를 불러주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버킹검공작은 명령서를 써서 비서에게 내주었습니다.

《곧 법무대신에게 가서 이 명령을 실행하도록 전해주게.》

비서가 나가자 공작은 다르타냥에게 돌아섰습니다.

《이것으로 우선 한가지 일은 됐네. 그 금강석이 아직 프랑스로 가지 않았다면 자네가 먼저 도착할걸세.》

《어째서요?》

《영국항구에 들어온 배는 모조리 꼼짝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어. 특별한 허가가 없이는 한척도 돛을 올릴수 없지.》

이때 보석공이 들어왔습니다. 영국에서도 손꼽히는 유명한 보석공이였습니다.

《오레일리, 이 금강석을 좀 보게. 한개에 얼마나 하겠나?》

《천 5백피스톨은 되겠습니다.》

《이런것을 두개 만들자면 며칠이나 걸릴가?》

《꼬박 한주일 걸립니다.》

《한개에 3천피스톨씩 줄테니 모레까지 만들어줄수 없겠나?》

《힘써보겠습니다.》

《자네를 믿겠네. 오레일리, 하지만 이 브로치를 밖으로 내갈순 없어. 집안에서 가공해주게. 그 대가로 천프랑을 주지.》

공작은 보석공에게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문마다 보초를 세우고 패트릭 이외에는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했

습니다. 세공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들여놓고 곧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11시에 금강석브로치는 완성되였습니다. 솜씨가 여간이 아니여서 새로 만든 두개의 브로치는 본래의것과 좀처럼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르타냥은 곧 공작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을 왕비님에게 가지고 가게. 나는 사람의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은 다했네. 자넨 그 증인이 되여주겠지?》

《안심하십시오. 제가 본대로 왕비님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네에게 큰 수고를 끼쳤으니 무엇으로 사례할가…》

다르타냥은 낯빛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공작은 사례를 하고싶어서 이리저리 궁리를 하는것이였으나 그는 세사람의 친구와 자기가 흘린 피의 대가가 적대국인 영국돈으로 치르어진다는것을 생각하니 어쩐지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다르타냥은 사례같은것은 받을 생각이 없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항구에 가서 돛대가 둘 달린 <선드호>를 찾아가 선장에게 이 편지를 보이게. 그러면 프랑스의 샹 발레리라는 조그만 항구에 내려줄걸세. 잡힐 념려는 없네. 그곳에 닿으면 곧 주막을 찾게. 간판도 없는 주막이지. 주막이라군 그 집밖에 없으니까 어렵지 않게 찾을수 있을걸세. 그 집주인을 불러내가지고 <포워드>라고 말하게.》

《그건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라는 뜻인데 암호이네. 그 말을 들으면 안장을 단 말을 내주고 길도 가르쳐줄걸세. 그렇게 해서 네번 말을 갈아타고 빠리로 돌아가게. 그럼 작별의 악수를 하세. 어쩌면 멀지 않아 프랑스와 영국은 싸우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은 사이좋게 헤여지세.》

《오늘의 벗도 래일은 원쑤가 될수 있습니다. 그때는 또 용감하게 싸워야죠.》

하며 다르타냥은 공손하게 머리를 숙여보이고 떠났습니다.

항구에서 다르타냥은 《선드호》에 탔습니다. 그 항구에는 20여척의 배가 잡혀있었습니다. 《선드호》가 어느 한척의 배전을 스칠듯 지나갈 때 다르타냥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쪽 배갑판우에 서있는 녀자가 마른에서 본 녀자, 뺨에 칼자국이 있는 로슈포르백작이 밀라디라고 부르던 바로 그 녀자였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배가 빨리 달렸으므로 녀자는 순식간에 그의 눈앞에서 사라지고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샹 발레리의 주막으로 가서 《포워드》라는 암호를 댔더니 즉시 말을 내주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암호로써 말을 번갈아 갈아타고 빠리로 돌아와 마침내 트레빌대장의 저택에 도착하였습니다.

트레빌은 여느때와 다름없이 다르타냥을 흔연히 맞이했습니다. 그는 힘주어 손을 잡아주면서 지금 에싸르호위대가 궁전경비에 나가있으니 이제라도 가서 근무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10월 2일의 일이였습니다.

3

10월 3일 빠리의 거리거리는 그날 열리는 대무도회로 하여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여기저기에서 울긋불긋한 아름다운 등불이 빛나고 거리는 시민들로 들끓었습니다.

밤 12시에 환호성이 터져올랐습니다. 대낮처럼 불빛이 환한 거리로 국왕일행이 시청으로 가기 위해 루브르궁전을 나섰던것이였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또다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왕비의 행차가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궁신들과 시종들을 거느린 어마어마한 행차는 시청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무도장에서는 바이올린소리가 드높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군차림을 한 왕이 그리로 나왔습니다.

그의 곁으로 리셜리총리가 다가와서 작은 상자를 드렸습니다. 왕이 열어보니 그속에 금강석브로치가 두개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페하, 별뜻은 없습니다. 왕비님이 브로치를 달고나오시면 금강석수자를 세여보십시오. 설마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시 열개밖에 안되면 이 두개가 왜 없어졌는지 그 까닭을 물어보십시오.》

왕은 까닭을 자세히 묻고싶었으나 이때 환호소리가 요

란스럽게 터져올랐기때문에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방금 나타난 왕비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환호소리였습니다.

왕비도 사냥군차림을 하고있었습니다. 푸른 깃털장식이 달린 모자를 쓰고 진주빛 비로도케이프(날개옷)에 금강석삔을 꽂고 은실로 수놓은 푸른비단치마를 입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가슴에는 푸른 리봉에 매단 금강석브로치가 반짝이고있었습니다.

그 브로치를 보는 순간 왕은 기쁨을 못이겨 얼굴이 환해졌고 리셜리는 노여움을 못이겨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러나 왕도 리셜리도 왕비에게서 얼마쯤 떨어져있었으므로 금강석이 몇개인지, 열인지 열둘인지를 딱히 알수 없었습니다.

다시 바이올린소리가 울려나오고 무도회가 시작되였습니다.

왕은 왕비와 짝이 되여 춤을 추었습니다. 그는 춤추면서 서로 마주서게 될 때마다 브로치를 물끄러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금강석의 수자를 셀수는 없었습니다.

리셜리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무도회는 한시간후에 끝났습니다. 왕은 서둘러 왕비의 곁으로 갔습니다.

《브로치를 달구 와주어서 고맙소. 그런데 금강석이 두개 모자라는것 같아 가져왔소.》

왕은 리셜리에게서 받은 두개의 금강석을 왕비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마나! 또 두개를 주세요? 그럼 모두 열네개나 되겠네요.》

왕비는 사뭇 놀란듯 눈을 치켜뜨며 방시레 웃었습니다.

왕은 황급히 금강석의 수자를 세여보았습니다. 과연 왕비의 가슴에선 열두개의 금강석이 반짝이고있었습니다.

왕은 리셜리총리를 불러서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대관절 이게 무슨 꼭두각시놀음인가? 엉!》

《아니, 전 다만 이 금강석 두개를 왕비님에게 드리고싶었을뿐입니다. 제가 직접 드리면 실례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리셜리는 침바른 소리로 둘러댔습니다.

왕비는 생긋이 웃으며 비꼬았습니다.

《참, 감사하군요. 당신이 주신 이 두개의 돌은 폐하가 주신 금강석 열두개만큼 값이 나갈거예요.》

그리고는 곧 옷 갈아입는 방으로 들어가버렸습니다.

다르타냥은 한쪽 문어구에서 사람들속에 끼여 이 광경을 지켜보고있었습니다. 왕비가 방으로 들어가자 다르타냥도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 검은 비로도로 얼굴을 가린 웬 젊은 녀자가 어깨를 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따라오라는 시늉을 했습니다. 보나시부인이였습니다.

보나시부인은 구불구불한 복도를 지나 캄캄한 방안으로 다르타냥을 데리고 가서 휘장뒤에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눈부신 빛이 흘러들었습니다. 보나시부인은 나갔습니다. 옆방에서 부드러운 바람에 실려 무어라고 말할수 없이 향긋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조용히 주고받

는 녀인들의 말소리가 새여나왔습니다. 폐하라는 말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다르타냥이 있는곳은 왕비의 방 바로 옆방이였던것입니다. 다르타냥은 어둠속에서 조용히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얼마뒤 휘장틈으로 아름다운 흰손이 다르타냥의 눈앞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다르타냥은 그것이 자기에게 보내는 왕비의 감사의 표시라는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르타냥은 공손히 그 손을 잡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왕비는 다르타냥의 손바닥에 무엇인가 떨어뜨리고 살그머니 휘장뒤로 사라졌습니다.

다르타냥은 손바닥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금강석반지였습니다.

이윽고 방문이 열리더니 보나시부인이 들어왔습니다. 다르타냥은 그의 앞으로 한걸음 반갑게 다가섰습니다.

《이제야 당신과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됐군요.》

부인은 누가 엿들을가봐 저어하듯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쉿! 어서 들어왔던 길로 돌아가세요.》

《언제 어디서 당신을 만날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시면 그것을 쓴 편지가 기다리고있을거예요. 자, 어서!》

보나시부인은 다르타냥을 복도로 떠밀었습니다.

다르타냥은 어린애처럼 순순히 부인의 말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내게 편지 안왔어?》

다르타냥은 느닷없이 플랑쉐에게 물었습니다.

《네, 책상우에 한장 놓여있습니다.》

다르타냥은 자기 방으로 달려가서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왕비님이 부디 감사의 말씀을 드리라는 분부이신데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래일밤 10시에 샹 클루의 데스트레님댁으로 가는 골목에 있는 정자앞으로 와주십시오.

다르타냥은 가슴에 기쁨이 솟구쳐와 머리가 핑그르르 돌았습니다.

다르타냥은 이튿날 아침 7시에 트레빌대장을 찾아갔습니다.

트레빌은 반가이 맞아주었습니다.

《페하와 왕비께서 매우 만족해하고계셨어. 그건 자네가 무사히 돌아왔기때문일걸세. 하지만 리셜리총리가 소태를 삼킨듯 쓴 얼굴을 하고 무도회도중에 돌아간것도 필경 자네와 깊은 관계가 있는것 같아. 그러니 조심하는게 좋아.》

이렇게 말하면서 트레빌은 다르타냥의 손가락에 반짝이고있는 금강석반지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건 런던에서 받은건가? 그렇게 눈에 띄는것은 끼고다니지 않는게 좋아. 적들이 노릴수 있는 표적으로 되니까. 유태인보석상에게 팔아버리게.》

《아닙니다. 이건 왕비님이 주신겁니다.》

다르타냥은 지난밤의 일을 트레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 금강석이 박힌쪽을 안으로 돌려끼게. 그런데 다른 세 사람은 어떻게 됐나?》

다르타냥은 런던으로 가는 도중에 방해군들때문에 세 사람이 모두 떨어지게 된 사연을 죽 이야기했습니다.

《저런! 그런데 자넨 용케 모면했구만.》

《운이 좋았지요. 칼레에서 와르드백작이란 사람과 싸울 때 가슴에 약간 상처를 입었을뿐이니까요.》

《그런가? 와르드백작은 그 로슈포르백작의 사촌으로 리셜리총리의 앞잡이야. 여보게, 그렇다면말이야…》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것이 좋겠네. 리셜리총리가 자네를 빠리에서 찾고있는 동안에 자넨 슬그머니 다시 칼레로 가는 길을 더듬어서 세 친구를 찾아보란말일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르타냥은 행여나 하고 그 길로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 세 친구의 집을 차례차례 찾아가보았으나 세 사람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하들도 없고 소식도 전혀 알길이 없었습니다.

그날밤 다르타냥은 칼과 권총 두자루를 허리에 차고 플랑쉐와 함께 교외로 나갔습니다. 플랑쉐도 칼과 권총을 차고있었습니다.

다르타냥은 샹 클루부근에 있는 정자앞에서 보나시부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11시가 넘도록 부인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르타냥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보나시의 집으로 찾아가보았습니다. 집안에는 불이 켜져있었습니다. 다르타냥

은 창문곁의 나무에 기여올라 가지사이로 유리창너머 방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은 엉망진창이였습니다. 출입문은 부서져있고 식탁은 엎어지고 깨여진 그릇이며 짓밟힌 과일들이 어지럽게 흩어져있었습니다. 찢어진 옷자락도 보였습니다. 휘장이며 식탁보에는 피가 묻어있는것 같았습니다.

집둘레를 살펴보니 앞쪽벽가까이에 녀자용 장갑 한짝이 떨어져있었습니다.

다르타냥은 근처의 오막살이에 살고있는 로인에게 무슨 일이 있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로인은 난처한 얼굴로 이야기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다르타냥은 1피스톨의 금화를 로인의 손에 쥐여주었습니다.

그제야 로인은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9시경, 말을 탄 무사같은 사나이 세 사람과 마차를 탄 장사군같은 사람 하나가 정자로 달려와서 한 녀자를 끌어내더니 억지로 마차에 태워 어디론가 데리고 갔다는것이였습니다.

무사의 우두머리인듯한 사나이의 용모를 듣자 다르타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또 그놈이다! 언제나 그놈이다!》

마른에서 만났던 사나이, 그 로슈포르백작이 또다시 보나시부인을 랍치해간것이였습니다.

장사군같다는 사람은 아무래도 보나시인듯했습니다.

다르타냥은 근처의 선술집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술마시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어떤 기미를 느낄수 없을가 해

서 기다렸으나 아무것도 알아낼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아침 다르타냥은 트레빌대장의 저택으로 달려가서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트레빌대장은 낯빛이 심각해졌습니다.

《음, 리셜리의 짓이로군.》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별도리가 없네. 자넨 어제 말한것처럼 빨리 빠리를 빠져나가게. 보나시부인이 어디로 잡혀갔는가 하는것은 내가 왕비님에게 말씀드려 알아보도록 하지.》

4

다르타냥과 플랑쉐는 빠리를 떠나 우선 샹티로 갔습니다. 그들은 먼저번에 들렸던 주막에 들려 주인을 만났습니다.

주막집주인은 그들에게 포르토스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포르토스는 그때 부상을 입고 쓰러졌지만 놈들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놈들은 그가 다르타냥이 아니라는것을 알게 되자 그대로 어디론지 가버렸던것입니다.

그뒤 포르토스는 상처를 치료하며 이 주막의 가장 좋은 방에 들어있었는데 그동안 주패놀이에 미쳐 돈도 말도 모두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여 숙박료도 치러주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주인이 재촉하러 가면 권총을 꺼내들고 위협을 하는통에 주인은 화가 나서 식사를 주지 않기로 결

심했다는것이였습니다.

다르타냥은 포르토스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때마침 포르토스는 커다란 난로에 들새고기를 굽고있었습니다. 두개의 풍로에선 고기국, 생선국이 끓고있었습니다. 더우기 책상우에는 술병까지 여러개 놓여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누구야!》

포르토스는 다르타냥을 보자 반색을 했습니다. 풍로에 마주 앉아 국을 끓이고있던 그의 부하 무스크톤도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서로 그러안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잠시후 포르토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주인녀석이 무슨 이야기를 안하던가?》

포르토스는 그날 어이없이 부상당한것이 부끄러운 모양이였습니다. 다르타냥이 아무 말도 못들었다고 대답하자 포르토스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모두 어디서 났나?》

다르타냥은 고기며 술병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무스크톤이 모아온거라네.》

《모아오다니?》

《사냥을 하기도 하고 낚시질을 하기도 했지.》

《그러나 이 술병은?》

무스크톤이 머리를 긁적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리, 에스빠냐사람을 하나 알고있는데말입니다. 한다하는 친구지요. 미국까지 가보았다는군요.》

《미국과 이 술병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건가?》

무스크톤은 그 에스빠냐사람에게서 인디안이 올가미줄을 던져 말이며 소를 잡는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는데 그

도 이 주막집 술광지붕에 올라가 바람빠지는 구멍으로 올가미줄로 병목을 걸어 훔쳐온다는것이였습니다. 다르타냥은 배를 그러안고 웃었습니다.

다르타냥은 이렇게 포르토스를 찾아냈습니다. 포르토스는 아직 상처가 낫지 않아 무리하게 움직일수 없었으므로 당분간 그대로 샹티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다르타냥은 그들과 헤여져 크레브 쾨르로 아라미스를 찾아떠났습니다. 주막을 떠날 때 그는 포르토스의 숙박료를 치러주었습니다.

크레브 쾨르의 주막에 가보니 아라미스도 여태까지 그곳에 묵고있었습니다.

다르타냥이 방안에 들어갔을 때 아라미스는 두사람의 신부와 같이 앉아있었습니다. 그는 신부와 꼭같은 차림을 하고있었는데 칼과 권총은 어디에 두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대신 책상우에는 두꺼운 책들과 종이두루마리가 놓여있었습니다.

그는 다르타냥을 보고도 그다지 기뻐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난 지금 내가 쓴 신학론문을 놓고 신부들과 론쟁을 하고있는중일세. 자네도 좀 의견을 말해주게.》

다르타냥은 할수없이 그 자리에 눌러앉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소리인지 좀처럼 알수 없는 라틴말이 마구 튀여나오는바람에 지루하기만했습니다. 신부들이 돌아가자 아라미스는 다르타냥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어깨에 부상을 입은것은 천주님의 뜻이였어. 난 기어이 신부가 될 생각이네.》

《신부가 되든 뭐가 되든 이것부터 읽어보게.》

다르타냥은 아라미스의 집에서 받아가지고온 녀자의 편지를 꺼내놓았습니다. 아라미스의 얼굴은 갑자기 생기를 띠였습니다. 아라미스는 실상 편지를 쓴 그 녀자가 오래동안 소식이 없었기때문에 락심하여 신부가 되려고 했던것이였습니다.

《고맙네, 다르타냥.》

아라미스는 다르타냥의 손을 잡고 기뻐 어쩔줄 몰라했습니다. 신학론문이 마루바닥에 흩어져도 아랑곳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하 바쟁이 신부들이 먹는 간소한 식사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라미스는 머리에 쓰고있던 신부의 모자를 바쟁에게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런건 다 집어치우고 토끼고기, 새고기, 양고기를 주문해와. 그리고 술, 브르고뉴의 최고급술을 네병만 가져오게.》

주인을 따라 자기도 성직자가 되려던 바쟁은 기가 막혀서 입을 딱 벌렸습니다.

다르타냥은 상처가 아직 채 낫지 않은 아라미스를 주막에 남겨두고 플랑쉐와 함께 아미앵으로 향했습니다.

아미앵의 려관주인은 다르타냥의 얼굴을 잊어버리고있었습니다.

다르타냥은 손에 들고있던 채찍을 휘휘 내둘렀습니다.

《그럼 생각나게 해주지. 두주일전에 가짜돈을 줬다면서 한 총사에게 골탕먹인 일이 있지? 그 총사는 어찌됐어?》

주인은 얼굴이 해쓱해졌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면서 그때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다르타냥일행이 이 려관에 도착하기 조금전에 가짜돈을 만든놈들이 총사며 호위병으로 변장하고온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특수수사원들이 여섯명이나 외양간지기차림을 하고 이 주막에 진을 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아토스를 그 범인이라고 생각했던것입니다.

아토스는 권총으로 달려드는 두 수사원을 쓰러뜨린 후 칼로 주막하인 한사람을 부상입히고 주인을 칼등으로 후려쳤습니다. 그리고는 주막 술광으로 뛰여들어가 안에서 빗장을 잠가버렸습니다.

독안에 든 쥐라고 생각한 주인은 곧 수사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수사원들은 저들이 잡으려는것은 다르타냥이지 아토스가 아니라고 하면서 돌아가고말았습니다.

주인은 아토스에게 술광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아토스는 부하 그리모어를 무장시켜 보내주면 나가겠노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라는대로 했지만 아토스는 나오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모어마저 함께 그안에 들어박혔습니다.

《그래서 아토스는 지금 어디 있어?》

다르타냥은 주인의 이야기를 듣다못해 갑갑증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술광안에 있습지요.》

《뭐라고? 그래 아직도 그대로 술광에 처박아두었단말이야? 지독한놈이로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술광에서 무엇을 하고계신지 나리는 모르실겁니다. 저는 매일 빵을 장대끝에 매

달아 바람통하는 구멍으로 보내드립니다. 원하시면 고기도 보내드리지요. 하지만 그들이 빵이나 고기만 잡수신다면 좋겠습니다만…》

주인은 울상이 되였습니다.

다르타냥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실 아토스는 그리모어와 함께 술광안에 들어박혀 밤낮 술을 마시며 지내고있었던것이였습니다.

주인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한번은 하인을 데리고 들어가려 했지요. 한데 그분은 노발대발하면서 위협하지 않겠나요. 그분은 권총에, 부하는 소총에 총알을 재우는 소리가 들립디다. 그분이 하는 말이 총알이 40발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이 있는 동안엔 누구도 들어올수 없다는것이였습니다.》

주인은 더욱 처량한 얼굴을 했습니다.

다르타냥은 주인을 앞장세우고 술광앞에 가서 아토스를 불렀습니다.

《어, 다르타냥!》

술광문이 덜컥 열리고 아토스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다르타냥은 아토스에게 달려들어 반갑게 얼싸안았습니다. 다르타냥이 어둑시근한 지하실에서 아토스를 데리고 나오려 하자 갑자기 아토스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아니 다쳤나?》

《아니, 좀 취했을뿐이야. 굉장히 마셨거던. 령감, 고맙소. 나 혼자서 한 150병은 처분했을거야.》

《맙소사. 만약 하인량반도 그렇게 마셨다면 그야말로 우린 문을 닫을수밖에 없겠는뎁쇼.》

《그리모어는 통에다 입을 대고 마셨다네. 아, 저녀석 마개를 안막은 모양이군. 좔좔 술 쏟아지는 소리가 나지 않는가?》

곧 그리모어도 총을 어깨에 메고 몸을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일동은 그 려관에서 제일 좋은 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주인내외는 등불을 가지고 술광으로 뛰여들어 갔습니다.

광안은 엉망진창이였습니다.

아토스가 입구를 막느라고 쌓아올렸던 빈 술통과 널판자들, 바닥에 질퍽하니 고인 먹다남은 음식찌꺼기와 깨여진 병, 빈병이 더미로 산을 이룬 저쪽 구석에서 술통하나가 마개가 열린채 마지막 방울을 떨어뜨리고있었습니다.

대들보에 매달아둔 50개의 쏘세지는 열개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주인부부는 엉엉 울면서 넋두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술광의 천정을 통해 다르타냥에게 들려왔습니다.

다르타냥과 아토스도 주인이 가엾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토스의 지갑속에 있던 돈 60피스톨과 그의 말을 주인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다르타냥과 아토스는 주인을 시켜 아직 술광에 남아있는 술과 찬을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다르타냥은 어딘가 침울해졌습니다.

아토스는 다르타냥의 술잔에 술을 따르며 웃었습니다.

《자네 또 왜 그래? 왜 그렇게 우울한 얼굴을 하고있어?》
《아, 이 세상에서 나는 제일 불행해.》
하고 다르타냥은 무겁게 한숨을 쉬였습니다.
《불행하다고? 그것은 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다르타냥은 보나시부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토스는 눈섭하나 까딱하지 않고 듣고있더니 이야기가 끝나자 심드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건 다 시시한 일이야. 시시하고말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가르쳐달라구. 불행한 나를 위로해줘.》
《그런걸 불행이라니? 자네 참 세상을 모르는 어린애군.》
아토스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 진짜 불행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줄가? 어디 자네가 뭐라고 하나 들어볼겸.》
《그건 자네자신의 이야긴가?》
《친구의 이야길수도 있지. 그야 아무러면 어때?》
《들려주게.》
《그럼 이야기하지,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친구의… 내가 아니고말일세…》
아토스는 이상하게 말을 더듬거리다가 침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친군 내 고향 베리에서 백작의 집안에 태여났지. 그는 스물다섯살때 열여섯살난 아주 아름다운 한 처녀를 사랑했다네. 그 처녀는 조그만 마을에서 신부노릇을 하는 오빠와 함께 살고있었지. 처녀는 베리태생

이 아니였어. 하지만 처녀는 예쁘고 오빠는 신앙심이 두터웠지. 누구도 그 오누이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하지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네. 내 친구는 령주였어. 그러니 억지로라도 그 처녀를 제마음대로 할수 있었지만 워낙 성실한 사람이였기때문에 그 처녀와 정식으로 결혼을 했다네.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바보였지.》

《무슨 소리! 그게 왜 어리석단말인가? 처녀를 사랑했다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게. 그 친구는 처녀를 자기 저택으로 데리고 돌아왔어. 그래서 처녀는 그 지방에서 제일가는 귀부인으로 되였지.

어느날 두 사람은 사냥을 갔어.》

아토스의 목소리는 낮아지고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말에서 떨어져 기절을 하지 않았겠나. 남편인 백작이 달려가서 안아일으켰지. 안해의 웃옷이 몸에 꼭 끼여 답답해보였어. 그래서 백작은 단도로 옷을 째고 어깨를 드러나게 했단말이야. 그런데 다르타냥, 그 어깨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겠나?》

《무엇이 있었나?》

《백합꽃! 죄인의 표적인 락인이 찍혀있었단말일세.》

아토스는 술을 꿀꺽꿀꺽 들이켰습니다.

다르타냥은 숨을 죽이고 그의 얼굴을 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천사처럼 보이던 안해가 사실은 악마였어. 그 녀자는 처녀시절에 무서운 도적질을 했었다네.》

《그래서 백작은 어떻게 했나?》

《백작은 대령주였으니까 자기 땅안에서는 어떤 죄라

도 마음대로 다스릴수 있었지. 백작은 그 녀자를 나무에 매달아 죽여버렸어.》

《뭐라구? 그건 살인이 아닌가. 아토스?》

《그렇지, 살인이 틀림없지. 그건 그렇고 술이 모자라는것 갈군. 다르타냥.》

아토스는 마지막 남은 병을 집어들고 병나발을 불면서 단숨에 밑굽을 냈습니다.

그는 두손으로 머리를 부둥키고 잠간 생각에 잠기더니 서글프게 웃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뒤부터 나는 아름다운 녀자라면 질색이야. 자, 잔을 비우세.》

《그래서 그 녀자는 죽었나?》

《죽었겠지. 자, 술잔을 비우게.》

《그래, 그 오빠는 어떻게 됐어?》

《함께 목매달 작정이였는데 눈치를 채고 어디론가 몰래 달아나버렸지. 녀자와 함께 나쁜짓을 했을건 틀림없어.》

다르타냥은 머리가 어지러워 그이상 더 듣고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토스가 친구의 이야기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그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다르타냥은 두팔을 책상우에 뻗친채 그우에 머리를 올려놓고 잠든체했습니다.

이튿날 다르타냥과 아토스는 아미앵을 떠나 도중에서 아라미스와 포르토스를 만나가지고 부하들도 함께 모두 여덟명이 빠리로 돌아왔습니다.

빠리로 돌아오니 세 사람의 총사에게 트레빌대장에게서 통지가 와있었습니다. 국왕페하가 5월 1일을 기하여 전

쟁을 일으킬 결심을 하셨으니 빨리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였습니다.

5

전쟁직전의 어수선한 어느날 다르타냥은 우연히 밀라디의 모습을 보게 되였습니다.

언젠가 마른에서 만났던 마차를 탄 훌륭한 귀부인이 바로 밀라디였던것입니다.

다르타냥은 그의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뒤를 밟으면 로슈포르가 있는곳은 더 말할것도 없고 보나시부인을 찾을 실마리를 얻을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것입니다.

교외로 나선 그 녀자의 마차는 길 한가운데 멈춰섰습니다.

말을 탄 웬 름름한 무사가 마차에 다가와 밀라디와 영어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다르타냥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마디도 알아들을수 없었습니다.

무엇때문인지 밀라디는 성이 나서 종알거리다가 부채로 창턱을 철썩 쳤습니다. 그통에 부채가 부서지고말았습니다.

무사는 껄껄 웃었습니다.

다르타냥은 말을 몰아 반대쪽 창문곁에 다가서서 모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매우 화가 나신 모양인데 제가 대신해서 이 무례한 사나이의 버릇을 고쳐드릴가요?》

《기꺼이 부탁드리고싶지만 공교롭게도 이 사람은 제 동생이예요.》

하고 밀라디는 프랑스말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줄은 미처 몰랐군요.》

《쓸데없는 참견 말고 어서 가시오.》

무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든 안가든 그건 당신이 상관할바 아니요!》

하고 다르타냥이 쏘아붙였습니다.

무사는 밀라디에게 영어로 몇마디 더 말했습니다.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나이만이 그 자리에 뻗치고 서서 마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칼솜씨를 보여주시오.》

다르타냥이 말했습니다.

《좋소. 장소는?》

《륙상부르뒤쪽에서 합시다.》

《당신의 이름은?》

《가스코뉴의 귀족 다르타냥이요.》

《나는 셰필드의 남작 윈터요.》

그날밤 륙상부르뒤쪽에서 다르타냥은 윈터와 칼싸움을 벌렸습니다.

서로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로 되여있어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 세사람도 윈터의 친구들과 맞서싸웠습니다.

상대방은 네 사람, 모두 영국사람들이였습니다. 전쟁

을 앞둔 시기였으므로 서로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다르타냥은 윈터남작이 피로한 틈을 타서 그의 칼을 튕겨버렸습니다.
칼을 잃은 남작은 두서너걸음 뒤로 물러섰으나 발이 미끄러져 나동그라졌습니다. 다르타냥은 재빨리 상대방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칼을 상대방의 목에 대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목숨은 이젠 내것이요. 하지만 당신 누님이 서러워할것 같아 용서하지.》
실상 다르타냥은 이 무사가 밀라디의 동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딴속심이 있어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던것입니다.
다르타냥의 너그러운 마음씨에 감동된 윈터남작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오늘밤 클라릭형수님을 만나주시오.》

밀라디는 으리으리한 저택에 살고있었습니다. 윈터남작은 밀라디에게 다르타냥을 소개했습니다.
《누님, 이분이 나를 죽이려다 말고 용서해주었어요. 사례를 해주세요.》
밀라디는 약간 눈살을 찌프렸습니다. 그러나 곧 흔연히 웃으며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술이 나왔습니다. 잔을 들며 다르타냥은 밀라디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밀라디의 얼굴에 무서운 표정이 어

려있었습니다.

그러나 윈터남작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르타냥에게 친절히 술을 따라주는것이였습니다.

이윽고 하녀가 부르러 와서 남작은 방에서 나갔습니다.

밀라디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다르타냥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작은 동생이 아니라 시동생이였습니다.

밀라디는 남작의 형과 결혼했는데 그 남편은 죽고말았습니다.

두 사람사이에는 어린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만약에 윈터남작에게 어린애가 안생기면 그애가 남작의 집안을 잇게 된다는것이였습니다.

아무튼 다르타냥은 윈터남작과 친해졌습니다. 그는 곧잘 그 집에 드나들군했습니다.

어느날 밤 다르타냥은 옆방에서 밀라디와 하녀가 소곤소곤 주고받는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자기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있지만 난 그놈에게 원한이 있어. 그놈때문에 하마트면 리셜리각하의 눈밖에 날번했으니까. 복수를 해야겠어.》

《그런걸 전 마님이 그분을 좋아하시는줄로만 알고있었군요.》

《흥, 그녀석 요전날 남작은 왜 살려놓았담. 그것이 더욱 밉고 분해죽겠어. 손에 다 들어왔던 수많은 재산을 잃고말았어.》

《하긴 삼촌의 뒤를 이을 사람은 우리 도련님뿐이니까요.》

다르타냥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는 윈터남작을 사귀는 과정에 그가 진심으로 형수를 아끼는 훌륭한 사나이라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밀라디는 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을 품고있는것입니까?

《리셜리각하가 웬일인지 그놈을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지금은 그저 꾹 참고있지만 언제든지 기어이…》

하고 밀라디는 이발을 갈았습니다. 다르타냥을 념두에 두고 하는 말이였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녀자를 혼내주지 않았어요?》

《왕비님의 시녀였던 녀자말이지?》

순간 다르타냥은 번개치듯 머리에 떠오르는것이 있었습니다.

(윈터부인! 버킹검공작이 브로치에서 금강석을 잘라낸것이 바로 윈터부인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것이 수포로 돌아갔으니 밀라디가 자기에게 원한을 품을만도 하다고 다르타냥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르타냥은 이 무서운 녀자에게 그보다 더 원한을 살 일을 또 하나 알게 되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밀라디의 어깨에 백합꽃락인이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이 밀라디란 녀자가 혹시 아토스가 말하던 그 녀자가 아닐가?)

다르타냥은 의혹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아토스의 말에 의하면 그 녀자는 이미 목을 달아 죽였다고 하지 않았던가. 어쩌면 그저 비슷한 녀자일지도 몰라.)

다르타냥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편 밀라디는 자기의 비밀을 알고있는 다르타냥을 끈덕지게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르타냥과 그의 친구들이 싸움터로 나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 4 장

비발치는 총탄속에서

1

라로셸전투는 루이13세시대에 리셜리총리가 일으킨 대사업의 하나였습니다.

당시 라로셸에는 국왕과 리셜리를 반대하는 정치적적수들이 모여있었습니다. 리셜리총리는 내란과 전쟁의 화근인 그 도시를 손아귀에 틀어쥘 결심이였습니다.

더우기 라로셸항구는 영국배들이 자유로이 드나들수 있는 프랑스의 유일한 항구였습니다.

이 항구에서 영국세력을 몰아내는것도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일이였습니다.

마침내 프랑스와 영국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영국편이 우세하였습니다. 버킹검공작이 90척의 배에 2만명의 군대를 싣고 레섬을 점령하려 했습니다.

프랑스편에서는 우선 국왕의 동생 오를레앙공이 선발대를 이끌고 싸움터로 향했습니다. 다르타냥도 이 선발대에 속해있었습니다.

왕도 뒤에 출발했지만 도중에 병이 나서 빌르르아에 머물러있었습니다.

왕이 머무르면 근위총사대도 함께 머물기마련입니다.

에싸르호위대의 한갖 호위병에 지나지 않는 다르타냥은 총사들인 아토스네들과 잠시 헤여져있을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발대는 라로셸시가 바로 앞에 보이는곳에 진을 쳤습니다.

어느날 다르타냥은 보나시부인을 생각하면서 진지근처의 작은 오솔길을 거닐고있었습니다. 저녁때가 가까울무렵에야 그는 지나치게 멀리 나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지로 돌아가려던 그는 울타리 저편에 무엇인가 저녁해빛에 번쩍 빛나는것을 보았습니다.

총끝이였습니다. 다르타냥은 가슴이 선뜩해졌습니다. 그는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길 반대쪽의 큰 바위뒤에서도 역시 총끝이 나타났습니다.

다르타냥은 잠시 동정을 살폈습니다. 머리우로 《씽》하고 총알이 날아갔습니다. 얼결에 엎드렸다가 일어섰습니다. 금시 누워있던곳에 또하나의 총알이 날아와서 돌멩이에 맞고 튀여났습니다.

다르타냥은 부리나케 도망쳤습니다. 또하나의 총알이 날

아와 그의 모자를 꿰뚫고 나갔습니다. 그바람에 그의 머리에서 모자가 날아났습니다. 다르타냥은 모자를 주어들고 쏜살같이 진지로 뛰여들었습니다.

모자를 꿰뚫은 총알자리를 보니 적들의 총알의 크기와는 달랐습니다. 적병이 한짓은 아니였습니다.

(리셜리총리가 보낸 《선물》인가? 아니, 리셜리총리는 이런 비렬한 방법을 쓸리가 없어. 그렇다면 어느 놈이 나를… 혹시 밀라디가 복수의 손길을 뻗친것이 아닐가?)

순간 다르타냥은 눈이 번쩍 트인것만 같았습니다.

그날밤은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9시에 갑자기 북소리가 울리더니 국왕의 동생이며 총사령관인 오를레앙공이 진지를 돌아보러 나왔습니다. 다르타냥은 호위병들과 함께 무장을 하고 정렬하였습니다. 조금뒤에 에싸르호위대장이 다르타냥을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다르타냥은 대렬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다르타냥, 이제 전하께서 그 어떤 위험한 일을 맡길 사람들을 구하실걸세. 성공하면 명예가 차례질테니까 마음준비를 해두게.》

《고맙습니다.》

다르타냥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총사령관의 눈에 뜨일 좋은 기회였습니다.

사실은 그전날밤 적들이 어둠을 타서 공격하는바람에 이틀전에 점령했던 진지를 도로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진지를 차지하고있는 적군의 형편을 알아올 정찰결사대를 선발하기로 되였던것입니다.

과연 얼마 안있어 오를레앙공이 병사들을 향하여 물었

습니다.

《이 정찰임무를 자진해서 맡아할 사람이 없는가? 대장 한명과 병사 서너명이 필요하다.》

《대장은 여기 있습니다.》

하며 에싸르호위대장이 다르타냥을 가리켰습니다.

다르타냥은 병사들을 향하여 칼을 높이 쳐들고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죽으러 갈 각오가 된 용사 네명만 앞으로 나서라.》

동료인 호위병 두명과 다른 부대의 병사 두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르타냥은 참호를 따라 전진했습니다. 그는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앞에 서고 다른 부대에서 온 두 병사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적진지를 백여메터 앞에 두고 다르타냥은 뒤를 돌아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와야 할 두명의 병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래 지체할수 없어서 다르타냥은 다시 앞으로 나갔습니다. 적진지에서 60보쯤 떨어진곳에 이르렀습니다. 적진지에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웬일인지 수비병이 없는듯했습니다.

더 앞으로 나갈가 그렇지 않으면 되돌아갈가 하고 망설이고있는데 저만큼 앞에 있는 바위코숭이에서 흰 연기가 풀썩 오르더니 갑자기 십여발의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세 사람의 몸을 핑핑 스쳐지나갔습니다.

적진지에 수비병이 있는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적병이 그 진지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것이 그들의 정찰임무였습니다.

다르타냥은 곧 되돌아섰습니다. 참호가까이에 와서 겨우 몸을 숨길수 있게 되였을 때 호위병 한명이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에 가슴을 맞았습니다.

그 병사가 쓰러지자 다른 한 사람은 엉겁결에 부대를 향하여 줄달음쳤습니다.

다르타냥은 부상당한 동료를 그대로 내버려둘수 없어 안아일으켰습니다.

이때 련달아 총소리가 두방 울렸습니다. 한방은 부상자의 머리를 맞히고 또 한방은 다르타냥의 몸을 스치고 날아가 바위에 맞았습니다.

다르타냥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총알은 적진지에서 날아온것이 아니였습니다.

그럼 누가 쏘았겠습니까?

2

다르타냥은 따라오다가 자취를 감춘 두 병사를 생각했습니다.

그저께 자기를 몰래 살해하려던 복병사건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옳지, 오늘은 그 정체를 알아내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다르타냥은 방금 날아온 총알에 맞은체하고 동료의 몸우에 쓰러졌습니다.

이때 30보쯤 떨어진 뚝우에 두개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부대에서 자진해 따라나선 그 병사들이였습니다.

그들은 동정을 살피면서 한걸음한걸음 조심스레 다가오고있었습니다.

그들이 열걸음쯤 앞에까지 왔을 때 다르타냥은 벌떡 일어나 단숨에 후닥닥 칼을 휘둘렀습니다. 한놈이 질겁을 하여 적진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진지의 적병은 그 병사를 향해 일제히 사격했습니다. 병사는 어깨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또 한 병사는 다리에 총알을 맞고 꼬꾸라졌습니다.

다르타냥은 그의 목에 칼끝을 댔습니다.

《목숨만 살려줍쇼. 사실대로 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병사는 애걸하였습니다.

《누가 시켰는가?》

《저는 잘 모르는 부인입니다. 밀라디라고 하더군요. 쓰러진 저 친구가 잘 아는데 그의 주머니속에 편지가 있습니다.》

《좋아, 목숨은 살려주지. 그대신 친구의 주머니에서 그 편지를 가져와.》

《그건 죽으러 가는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적진지에서 마구 쏘아댈텐데. …》

《그럼 내 칼에 죽을테냐?》

다르타냥이 금시 쿡 찌를 시늉을 하는바람에 병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가겠습니다.》

병사는 다리에서 피를 흘리며 스무발자국앞에 쓰러져있는 친구에게로 기여가려고 했습니다. 그 꼴을 보자 다르타냥은 측은해졌습니다.

《이 겁쟁이야! 내 사나이의 용감성이라는게 어떤것인가를 보여주마. 여기서 기다려라.》

다르타냥은 번뜩이는 눈으로 적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쓰러져있는 병사의 곁으로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병사의 시체를 둘러멨을 때 진지의 적들이 사격해왔습니다. 비발치는 총탄속을 헤치고 참호로 돌아온 다르타냥은 죽은 병사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편지는 가죽지갑속에 들어있었습니다.

당신은 녀자를 붙잡으려다가 실패했어요. 그 녀자는 지금 어떤 수도원에 안전하게 숨어있어요. 남자만이라도 실패하지 않도록 명심해요. 만약 실패하면 내게서 받을 백루이의 돈대신에 큰코 다칠줄 알라요. 아시다싶이 내겐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는 힘이 있단말이예요.

이름은 없었지만 그것은 밀라디의 편지가 틀림없었습니다.
다르타냥은 부상당한 사나이에게 그자들이 붙잡으려다 실패했다는 녀자에 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사나이는 빠리를 빠져나가는 웬 젊은 녀자를 붙잡으라는 부탁을 받았었는데 선술집에 들렸다가 그만 10분쯤 늦어져서 그 녀자가 탄 마차를 놓쳐버렸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녀자가 보나시부인이였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보나시부인은 무사히 구출된 모양이였습니다. 왕비가 구출해주었을것입니다.
다르타냥은 언젠가는 보나시부인을 다시 만날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안하던 마음이 다소 가라앉고 새로운 희망이 가슴을 설레이게 했습니다.
다르타냥은 부상자를 부축하고 진지로 돌아왔습니다. 먼

저 돌아온 호위병이 다른 사람은 모두 전사했다고 보고했기때문에 살아서 무사히 돌아온 다르타냥의 얼굴을 보자 모두 여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르타냥은 그들에게 방금 있은 사실을 그대로 털어놓을수 없어 그럴듯한 한토막의 싸움이야기를 꾸며대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진지에서 적병이 돌격해와서 이 병사는 이렇게 부상당하고 한 병사는 용감하게 전사하고말았다고—

이 말을 곧이 듣고 모두들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부대에서는 하루종일 그 정찰대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오를레앙공도 다르타냥을 못내 칭찬했습니다.

3

11월초순의 어느날 다르타냥에게 빌르르아에서 편지와 짐이 전달되였습니다.

다르타냥님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 세분이 저의 집에서 놀다가 너무 소동을 일으켜 시장님의 명령으로 며칠동안 꼼짝 못하게 되였습니다. 그 세분의 분부가 있어 저의 집의 자랑인 포도주 열두병을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그분들의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근위총사대 지정숙소

주인 고도

다르타냥은 감격했습니다.

《좋은 친구들이야. 술을 마시며 놀면서도 내 생각을 해주거든. 좋아, 세 사람의 건강을 축복하여 실컷 마셔주지. 그런데 혼자서는 싱거운데.》

다르타냥은 친한 호위병 두 사람과 함께 마시기로 했습니다.

이틀뒤 료리장의 일을 맡은 플랑쉐는 신이 났습니다. 그는 한 손님의 하인과 다르타냥이 살려준 그 가짜 병사를 데리고 서둘러 술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가짜병사는 브리즈몽이라는 사나이였는데 그런 일이 있은뒤로 다르타냥의 부하라기보다 플랑쉐의 부하가 되였습니다.

주연은 점심시간에 열기로 했습니다. 손님들이 자리에 앉자 료리가 차례차례 식탁우에 올랐습니다. 플랑쉐가 흰 수건을 팔에 걸치고 시중을 들었습니다. 손님의 하인이 유리병에 포도주를 옮겨 따랐습니다.

다르타냥이 보니 오는 도중에 흔들린때문인지 처음에 내온 포도주병밑에 찌꺼기가 가라앉아있었습니다. 브리즈몽은 그것을 술잔에 따랐습니다. 다르타냥은 그 술을 브리즈몽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상처가 낫지 않았기때문에 기운을 돋구어주려고 생각했던것입니다.

손님들이 국을 마시고 포도주잔을 입에 갖다대려는 순간 별안간 대포소리가 울렸습니다.

《적의 습격이다!》

다르타냥도 손님도 술상을 팽개치고 뛰쳐일어났습니다. 칼을 빼들고 그들은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국왕폐하 만세!》

《리셜리총리 만세!》

사방에서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북소리가 기운차게 울렸습니다.

적들이 습격해온것이 아니라 국왕이 1만대군을 거느리고 방금 도착한것이였습니다. 근위총사들은 앞뒤에서 왕을 호위하고있었습니다. 다르타냥도 호위병들과 함께 렬을 지어 왕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세 사람의 친구들과 맨처음 자기를 알아봐준 트레빌에게 반갑게 손짓을 했습니다.

환영식이 끝나자 다르타냥과 세 사람의 친구는 서로 달려들어 얼싸안았습니다.

《마침 잘왔네. 자, 들어가서 한잔 하세. 아직 음식도 식지 않았을거야.》

《허, 술놀이를 벌렸나?》

포르토스가 싱글벙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네.》

《이런 시골에도 마실만한 술이 있나?》

하고 아토스가 물었습니다.

《있구말구, 자네들이 보내준 그 술이 있지.》

《우리들이 보내준 술?》

아토스가 무슨 소리냐는듯 의아스레 물었습니다.

《왜 그 앙제이에서 나는 맛좋은것말이야.》

《허, 일부러 앙제이포도주를 주문해왔나? 굉장하네구려.》

하고 포르토스가 말했습니다.

《주문해온게 아니야. 바로 자네들이 부탁을 해서 내게 보내준거야.》

《우리들의 부탁?》
세사람의 총사는 동시에 되물었습니다.
모두가 얼떨떨한 표정들이였습니다.
《아라미스, 자네가 보내게 했나?》
《아니, 포르토스, 자네가 그랬나?》
《나도 그런 일이 없네. 아토스, 혹시 자네가?》
《모를 일인데…》
《자네들이 아니라면 숙소주인일테지. 고도란 사람이야. 그의 편지가 있어.》
《어디서 왔든 상관없지 않나? 아무튼 마시고보세.》
하고 포르토스가 말하자 아토스가 꾸짖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수 없는 술을 마셔선 안돼.》
아토스는 고도의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이건 그 령감의 글씨가 아닌데. 출발하기전에 계산서를 봤기때문에 난 고도의 글씨를 알고있어.》
《가짜편지야. 우리는 집에 갇혔던 일이 없어.》
《다르타냥, 뭐 우리들이 소동을 일으켰다고? 자넨 그런 허황한 소릴 정말로 믿었나?》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도 편지를 보더니 한마디씩 했습니다.
《어서 가보세. 이것도 그 녀자의 작간이 분명해.》
다르타냥은 술놀이를 하려던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두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식당에 들어선 다르타냥은 그만 아연해지고말았습니다. 브리즈몽이 고통스레 몸부림치면서 마루바닥에서 뒹굴고있었습니다. 플랑쉐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을 쓰고있었으나 살아날것 같지 않았습니다.

다르타냥은 손님으로 초대했던 호위병들에게 주연은 후에 다시 열겠노라고 정중하게 사죄했습니다.

플랑쉐에게 브리즈몽을 부탁하고 네 사람은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술마실 생각이 싹 없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언제 죽을지 모르겠네.》

하고 다르타냥이 아토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요새 일어난 사건들을 대강 이야기했습니다.

《걱정말게 여태까지도 하느님이 보살펴주었으니까 별일 없을걸세.》

하고 아토스가 말했습니다.

《난 처음부터 목숨을 내걸고 나선 몸이니까 괜찮아. 하지만 그 녀자는…》

다르타냥은 자기 일보다도 보나시부인을 오히려 더 걱정하였습니다. 수도원에 안전하게 숨어있다고는 하지만 언제 밀라디의 손이 뻗칠는지 모릅니다. 도와주고싶어도 그 수도원이 어디 있는지 알길이 없으니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수도원은 왕비님이 선택하신거겠지?》

하고 아토스가 물었습니다.

《응, 그런것 같아.》

그러자 아라미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알아보지. 나는 왕비님의 신부와 친하니까 소식을 알수 있을는지도 몰라.》

네 사람은 식사를 끝내고 그날은 그대로 헤여졌습니다.

4

국왕은 전선에 도착하자 곧 레섬의 영국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작전은 성공하였습니다. 영국군은 2천의 병사와 4문의 대포와 60개의 군기를 버리고 배를 타고 황급히 물러갔습니다.

더는 영국군이 공격해올 념려가 없어졌으므로 리셜리총리는 라로셸공격작전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무렵 버킹검공작의 밀사가 잡혀 도이췰란드, 스위스, 에스빠냐, 영국, 로렌 등의 여러 나라들이 프랑스를 상대로 싸우기 위하여 동맹을 맺었다는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리셜리총리는 조그만 정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의 숙소로 되여있는 조그만 건물에는 밤낮없이 밀사가 드나들었습니다.

한편 근위총사들은 다만 적을 포위하고있는 이 싸움에서 별로 할일도 없이 날마다 즐겁게 지내고있었습니다.

어느날밤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 세 사람은 만또를 걸치고 말을 달려 《붉은 비둘기집》이라는 선술집으로 갔습니다. 다르타냥은 근무중이여서 그들속에 끼우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세 사람은 얼굴을 가린 웬 사람과 함께 말을 타고 오는 리셜리총리와 맞부딪쳤습니다.

리셜리총리는 세 사람에게 《붉은 비둘기집》까지 호

위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세 사람은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붉은 비둘기집》은 아까 아토스네들이 있을 때까지는 주정군들로 란장판이였는데 지금은 손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온다는 기별을 받고 주인이 손님들을 내쫓은 모양이였습니다.

리셜리가 주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래층에 방이 없을가? 내가 일을 끝낼 때까지 이 사람들을 불이라도 쬐면서 기다리게 해야겠는데…》

주인은 널직한 방을 열어보였습니다. 그것은 낡은 난로를 들어내고 최근에 큼직한 벽난로를 설치한 방이였습니다.

총사들은 그 방에 들어가고 리셜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는 주사위(놀음감의 일종)를 가져오게 하여 놀음판을 벌려놓았습니다.

아토스만이 홀로 생각에 잠겨 낡은 난로굴뚝앞을 왔다갔다 하면서 서성거리고있었습니다. 그 난로굴뚝은 2층으로 통해있었습니다. 아토스가 곁을 지날 때마다 사람의 목소리같은것이 그 굴뚝에서 새여나왔습니다.

아토스는 바싹 그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는 두 친구에게 조용하라고 눈짓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굴뚝밑에 귀를 갖다댔습니다.

《잘 듣소. 밀라디, 이건 중대한 일이요. 자, 앉소. 이제부터 내 말을 명심해듣소.》

리셜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서 말씀하십시오.》

아토스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귀에 익은 녀자의 목

소리였습니다. 그는 바싹 귀를 강구었습니다.

《조그만 배가 라 푸앵트요새에서 기다리고있소. 선원은 영국사람들이지만 내편이요. 그 배를 타고 래일아침 출발해주시오.》

《그럼 오늘밤으로 떠나야겠군요?》

《그렇소. 내 이야기가 끝나면 30분안으로 두 사나이가 마중나올것이요.》

《어떤 일인가요?》

아토스는 포르토스에게 방문을 안으로 잠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리 오라고 말없이 손짓을 했습니다.

리셜리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갈곳은 런던, 도착하면 곧 버킹검공작을 만나도록 하오.》

《하지만 금강석브로치사건이 있은뒤로 공작은 저를 의심하고있는데요.》

《너무 걱정할것 없소. 그저 내 심부름이라고 하면서 버킹검공작을 만나기만하면 되오. 그쪽계획은 다 알고있으니. 만약 그쪽에서 무슨 일을 일으키면 왕비의 립장을 아주 곤난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위협하란말이요.》

《그게 잘될가요?》

《아무렴, 꼼짝할수 없는 증거가 있으니까. 공작은 레섬에서 물러갈 때 쉐브르즈부인의 편지를 잊어버리고 갔소. 그 편지를 폭로하면 왕비가 프랑스의 적과 음모를 꾸미고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단말이요.》

《그래도 공작이 끝까지 프랑스와 싸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세상에는 교회를 위해 죽고싶어하는자들이 얼마든지

있소. 버킹검공작은 교회에서 이미 하느님의 원쑤로 락인되여있고 또 교회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도 버킹검을 미워하고있으니까…》

《그래서요?》

《공작에게 원한을 품고있는 젊고 예쁜 녀자를 찾으란 말이요. 그 녀자의 손에 한자루의 단도를 쥐여주면 버킹검은 살해되고 프랑스는 구출되는것이요.》

《알았습니다. 이번엔 나의 원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놈들인데?》

《우선 그 건방진 보나시라는 녀잡니다.》

《그 사람은 지금 낭트감옥에 있지 않소?》

《아니예요. 왕비가 폐하의 허락을 얻어 그 녀자를 수도원에 숨겼답니다.》

《어느 수도원인데?》

《그건 저도 모릅니다.》

아토스는 이야기를 엿듣다말고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를 구석으로 끌고갔습니다.

《왜 그래? 끝까지 마저 듣지 않고…》

포르토스가 불만스런 어조로 물었습니다.

《쉿! 중요한건 전부 들었어. 더 듣고싶으면 자네들은 마음대로 하게나. 난 돌아가겠네.》

《돌아가다니? 리셜리각하가 내려와서 아토스는 어디 갔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하지?》

《묻기전에 이쪽에서 먼저 말해. 주인이 돌아가는 길이 위험하다고 하기때문에 내가 한걸음 먼저 경계하러 갔다고말이야.》

밖에서 리셜리총리의 부하가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아토스는 이 사나이에게도 방금 포르토스에게 한것과 같은 소리를 하고는 권총을 다시 살펴보면서 어둠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토스는 그 근처를 한바퀴 돌아보고 다시 《붉은 비둘기집》가까이에 있는 수풀속에 숨었습니다.

이윽고 친구들의 채양넓은 모자와 리셜리의 금술이 달린 만또가 보였습니다. 그들이 지나가자 아토스는 다시 《붉은 비둘기집》으로 뛰여들어갔습니다. 그는 얼굴을 내민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아까 그분이 그만 2층에 있는 부인님에게 들려줄 중요한 이야기를 잊어버려 내가 그 심부름을 왔네.》

《네, 올라가보십시오. 아직 계십니다.》

아토스는 발소리를 죽여가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밀라디는 창문을 향하여 모자를 쓰고있는중이였습니다. 아토스는 살그머니 방안에 들어서서 방문의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달그락하는 소리에 밀라디는 홱 돌아섰습니다.

문앞에 만또를 두르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쓴 사나이가 서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않고 까딱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밀라디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입니까?》

《그렇군. 역시 그 녀자로군.》

아토스는 입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만또를 어깨에서 벗어젖힌 다음 모자를 추켜올리고 밀라디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내 얼굴을 알겠소?》
밀라디는 눈을 흡뜨고 주춤주춤 뒤로 물러섰습니다.
《알아보는 모양이군.》
《아, 라 페르백작!》
밀라디는 비명을 지르듯 나직하게 부르짖으며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그 녀자는 경련이라도 일어난듯 온몸을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그렇소, 나는 라 페르백작이요. 당신의 얼굴을 보고싶어서 일부러 저승에서 돌아왔소. 방금 여기서 리셜리 총리와 말하던것처럼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질겁한 밀라디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죽은것으로 생각했었지? 그랬을거야. 내가 당신을 죽은것으로 생각하고있은듯이. 하지만 라 페르백작은 아토스란 이름으로 자신을 숨겨왔소. 윈터부인이니 클라릭부인이란 이름으로 안느 드 베이유라는 녀자가 자기의 정체를 숨겨오듯이… 당신의 오빠라는 사람이 우리를 결혼시켰을 때 당신의 이름이 안느였지?》
밀라디는 절망적으로 숨가쁘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어요?》
《미리 말해두지만 나는 당신이 하고있는 일에는 늘 주목을 해왔소.》
《내가 한 일을 다 아신다는 말씀이예요?》
《그렇소. 리셜리의 앞잡이가 된뒤로 오늘밤까지 당신이 한 일을 모조리 말해볼가?》
밀라디의 피기없는 입술에 믿을수 없다는듯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그럼 이야기하지. 당신은 버킹검공작이 달고있던 브로치에서 금강석 두개를 떼여냈소. 당신은 보나시부인을 유인랍치했소. 다르타냥에게 비밀이 알려지자 그 사나이를 죽이려고 두 사람을 보냈소. 그렇지만 총알은 맞지 않았소. 다음에는 친구들의 이름으로 독약을 넣은 술을 보냈소. 마지막으로는 방금전에 이 방에서,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의자에 앉아서 리셜리총리에게 버킹검공작을 암살할 약속을 하고 그 대신에 다르타냥을 죽여달라고 했지?》

《당신이야말로 악마같은분이군요.》

밀라디는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고 아토스는 쌀쌀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만은 명백하게 말해두겠소. 버킹검공작의 일에는 나는 참견하지 않겠소. 그렇지만 다르타냥은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안되오. 나에겐 그가 형제나 다름없는 친구요. 그 친구의 머리털 한오리라도 건드려봐. 그때는 네년이 다시는 나쁜짓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릴테다.》

《그 사람은 살려둘수 없어요.》

밀라디는 나지막하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토스는 일어서서 권총을 뽑았습니다. 밀라디는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벽에 등을 바싹 붙였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짐승과 같은 신음소리가 새여나왔습니다. 아토스는 천천히 권총을 들어 밀라디의 이마에 총부리를 갖다댔습니다.

《아까 리셜리총리가 쓴 명령서를 내놓소. 안내놓으면 머리에 맞구멍이 뚫릴거요.》

밀라디는 꼼짝도 않고있었습니다.
《1초만 기다려주지.》
아토스의 얼굴이 험악해졌습니다. 금시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순간 밀라디는 재빨리 앞가슴에 손을 넣어 종이 한장을 꺼냈습니다. 아토스는 권총을 거두고 등불밑으로 가서 종이장을 펼쳤습니다.

이 쪽지를 가진 사람의 행동은 모두 내 명령에 의한것이다.

리셜리

아토스는 만또를 집어들고 모자를 눌러썼습니다.
《자, 이젠 당신도 이발을 뽑힌 독사나 다름없소. 물어뜯을테면 마음대로 물어뜯어보시오.》
이 한마디를 던지고 아토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습니다.
문앞에 두 사나이가 말고삐를 쥐고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아토스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각하의 명령대로 부인님을 라 푸앵트요새까지 모셔다드리게. 배를 탈 때까지 결코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네.》
아토스의 그 말이 리셜리의 지시와 일치했기때문에 두 사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토스는 가볍게 말에 올라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그는 지름길로 앞질러가 진지앞에서 리셜리의 일행을 기다렸습니다.
일행이 나타나자 아토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야?》
《먼저 간 총사인가?》
리셜리총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각하!》
《아, 수고했네.》
이렇게 치하하고 리셜리는 진지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친구와 함께 진지로 돌아온 아토스는 곧 무스크톤을 플랑쉐에게 보내여 다르타냥을 래일아침 일찍 적군진지가까이에 있는 비여있는 보루로 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밀라디는 리셜리총리에게 모든것을 이야기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토스쪽에서도 자기 어깨에 백합꽃락인이 있다는것을 털어놓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잠자코 있다가 이번의 큰 일을 마친 다음에 리셜리에게 호소하는것이 더 나을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튿날아침 9시에 밀라디를 태운 배는 영국으로 돛을 올렸습니다.

5

다르타냥은 아토스를 만나보려 빈 보루로 찾아갔습니다. 보루에는 손수건만한 크기의 프랑스군의 기발이 나붓기고있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위험한 지점이였습니다. 옆에는 적들의 시체와 로획한 총과 탄알들이 어지러이 쌓여있었습니다.
고개를 참호우로 내밀고 살펴보니 적의 진지와 아군의

진지가 비슷한 거리로 보였습니다. 언제 적이 총격을 가해올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이 이미 거기에 와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다르타냥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모두 죽으려고 결심했어? 왜 이런데 와있어?》

《내기를 건거야. 여기서 아침밥을 먹고 한시간이상 버티면 우린 한턱 얻어먹게 돼있어. 그전에 도망가면 우리가 한턱 내야 되고.》

하며 아토스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너무도 천연스러운 말에 다르타냥도 피씩 웃었습니다.

《미쳤군, 미쳤어.》

《중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디 적당한 장소가 있어야지. 그래 이 참호를 골라온거야.》

《중대한 이야기? 허, 죽는것보다 더 중대한 이야기가 있다? 좋아, 들어보고 만약 시시한 일이라면 난 다시는 자네들하고 말도 안하겠네.》

《쉬! 큰소리 내지 말게.》

아토스가 눈살을 찡그렸습니다. 그리고는 밀라디가 버킹검공작을 암살하기 위해 영국으로 건너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따위 비겁한 짓을?!》

다르타냥의 눈초리가 꼿꼿해졌습니다.

《뭐, 그건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야.》

아토스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대수롭지 않다구? 그래 자넨 공작이 암살당해도 괜찮단말인가? 공작은 우리들에게 호의를 가지고있

는데.》

《공작은 영국사람이야. 우리는 지금 영국과 싸우고있지 않나? 나는 영국공작같은건 이 빈 술병만큼도 안생각해.》

아토스는 들고있던 빈 술병을 내던졌습니다.

다르타냥은 고개를 가로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공작의 운명을 결코 무심하게 대할수 없어.》

《아무튼 그건 다시 생각하도록 하세. 그보다도 내가 걱정하는건 그 녀자가 리셜리총리에게서 받은 쪽지야. 그 비밀쪽지에는 그 녀자가 자네와 우리를 제멋대로 처치해도 누구 하나 손대지 못하도록 씌여있단말일세.》

《그 녀자가 아직 그 쪽지를 가지고있겠지?》

하고 다르타냥이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빼앗았어.》

아토스는 만또의 주머니에서 그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 쪽지를 가진 사람의 행동은 모두 내 명령에 의한것이다.

리셜리

다르타냥은 새파래졌습니다. 아토스의 말대로 이 쪽지를 가지고있으면 밀라디는 무슨 짓이든 마음대로 할수 있을것이였습니다.

《이따위 쪽지는 찢어버리세.》

《무슨 소릴? 이건 소중히 가지고있어야 해. 나는 돈을 산더미로 준대도 이 쪽지는 남에게 줄수 없네.》

그러자 포르토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넨 그 녀자를 붙잡았을 때 왜 바다에라도 처넣지 않았나? 죽으면 다시는 못된짓을 못할걸.》

《그렇게 생각하나. 포르토스?》

하고 아토스는 침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때

《적병입니다!》

하고 그리모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약 20명가량의 적병이 이쪽으로 몰려오고있었습니다.

《물러갈가? 병사가 너무 많은데.》

하고 포르토스가 말하자 아토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 돌아갈순 없어. 첫째로 아직 식사가 안 끝났어. 둘째로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아있고, 셋째로는 한시간동안 버티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자면 아직 10분은 더 있어야 해.》

《어쨌든 작전을 세우세.》

하고 아라미스가 말했습니다.

《그건 간단하지. 적들이 총알이 미치는데까지 오면 일제히 쏠것. 총알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쏘아댈것. 그래도 계속 공격해오면 참호속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것. 참호속에 들어오면 이 무너져가는 진지의 담벽을 놈들의 머리우로 밀어버린단말이야.》

《좋아!》

하고 포르토스가 웨쳤습니다.

네 사람은 총을 들고 겨냥을 했습니다.

적들은 북을 치며 돌격해왔습니다.

《자, 됐지? 쏴!》

하고 다르타냥이 소리쳤습니다.

네방의 총소리가 일제히 울렸습니다. 네 사람의 적병이 쓰러졌습니다. 총알이 비발치듯 어지러이 날아가고 날아왔습니다. 이쪽의 사격은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이쪽의 수가 적은것을 눈치챈듯 마구 돌진해왔습니다.

십여명의 적병이 드디여 보루밑까지 다달았습니다. 이쪽에선 최후의 일제사격을 했지만 저쪽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적들은 참호속에 뛰여들어 무너진 담벽으로 기여오르려고 했습니다.

《자, 결판내세. 담벼락! 담벼락!》

그리모어까지 합쳐 다섯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하여 총대로 담벽을 떠밀었습니다.

담벽은 펑장한 소리를 내면서 참호속으로 무너져내렸습니다. 《으악!》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뭉게뭉게 흙먼지가 솟아올랐습니다.

흙먼지가 가라앉자 절룩거리며 달아나는 적병이 두서너명 보였습니다. 살아남은것은 그뿐인듯싶었습니다. 사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네 사람은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토스, 나는 결심했어. 영국에 가서 버킹검공작을 다시 만나고 올테야.》

하고 다르타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안돼.》

하고 아토스가 쌀쌀하게 딱 잘랐습니다.

《왜? 난 전번에도 갔다오지 않았나?》

《그때는 평화시기였으니까 괜찮았지만 전시에 그런짓을 하면 국왕을 배반하는것이나 다름없어.》

다르타냥은 그만 입을 다물고말았습니다. 아토스의 말이 옳았기때문입니다.
라로셸쪽에서 또다시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적들은 아까보다 훨씬 많이 공격해왔습니다.
《아마 한 련대쯤 잘되겠군.》
아토스는 태연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고는 그리모어에게 주변에 있는 시체를 가리켰습니다.
《그리모어, 이놈들을 옮겨다가 보루담벽에 세워놓게. 모자를 씌우고 총을 들려서말이야.》
그리고는 다르타냥네들에게로 돌아앉았습니다.
《내 생각을 들어보게. 밀라디에겐 시동생이 있지?》
《그래, 윈터남작이 그의 시동생이지.》
《그 사람에게 알려주잔말이야. 당신의 형수가 버킹검공작을 암살하려 하고있으니 잘 감시하라고.》
《윈터남작뿐만아니라 왕비님에게도 알려주세.》
하고 아라미스가 덧붙였습니다.
왕비라면 버킹검공작에게 알릴수 있는 방법이 있음직했습니다.
그들은 윈터남작과 왕비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누구를 시켜 편지를 가져가게 한다?》
《바쟁이면 틀림없을걸세.》
하고 아라미스가 자기의 부하를 추천했습니다.
《그래, 우리들은 싸움터를 떠날수 없지만 부하들이라면 괜찮지.》
포르토스는 아라미스의 생각에 찬성했습니다.
《편지를 써서 돈과 함께 주면 플랑쉐도 바쟁도 곧 떠

날수 있겠군.》

아라미스는 흐뭇한 기분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토스가 핀잔을 주었습니다.

《돈을 주다니? 그래 돈이 있기나 해?》

네 사람은 낯빛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모처럼 좋은 생각이 떠올랐으나 그들에겐 돈이 없었습니다.

이때 다르타냥이 소리쳤습니다.

《적이다! 저기 개미처럼 아물아물 움직이고있어!》

엄청나게 많은 적들이 새까맣게 돌격해오고있었습니다.

《여보게, 그리모어, 준비는 다 되였나?》

하고 아토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모어는 고개를 끄덕이였습니다.

모두가 자그마한 기발이 펄럭이는 보루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시체들이 어떤것은 총을 겨누고 어떤것은 칼을 뽑는 등 여러가지 모양으로 살아있는 병사와 다름없이 보루에 서있었습니다.

모두들 그리모어의 솜씨에 탄복했습니다. 다섯 사람은 급히 보루를 나와 아군진지로 향했습니다.

네 사람이 열걸음쯤 왔을 때 아토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런, 야단났군!》

《뭐 잊어버렸나?》

《기발, 손수건쪼각이긴 하지만 그걸 적에게 내줄순 없지.》

그는 이렇게 말하기가 바쁘게 되돌아 보루안으로 뛰여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꼭대기까지 기여올라가 기발을 내

렸습니다.

적은 이미 지척에 와있었습니다. 총알이 우박치듯 아토스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러나 총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를 꺼꾸러뜨리지 못하였습니다.

프랑스군진지에서는 모두 밖으로 뛰쳐나와 그 광경을 바라보고있었습니다. 아토스는 아군병사들을 향하여 보루목 대기에서 손수건기발을 흔들었습니다.

아군은 환성을 올렸습니다. 적들은 분을 참지 못해 아우성쳤습니다.

총알이 날아와 수건에 구멍을 세개나 뚫었습니다. 기발은 군기마냥 기세좋게 펄럭이고있었습니다.

아군진지에서는 병사들이 그에게 내려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마침내 아토스는 보루에서 내려와 다르타냥들과 함께 섞였습니다. 네 사람은 유유히 진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윽고 다시 요란한 총소리가 뒤에서 울려왔습니다.

《이건 뭐야? 총알이 이쪽으론 안날아오누만.》

하며 포르토스가 이상히 여겼습니다.

《저 시체를 쏘고있는거야. 그동안 우리들은 안전한곳에 숨어있자구.》

잠시후 다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네 사람의 발밑에서 돌멩이가 튀여오르고 귀뿌리로 총알이 《쌩》 소리를 내며 날아갔습니다.

《사격이 여간 서툰놈들이 아니군. 그만큼 적을 처치했는데 이쪽은 손끝 하나 안다쳤네. 아, 그렇지도 않은데. 다르타냥, 그 손은 어찌된건가? 피가 흐르고있지 않

나?》
아토스가 다르타냥의 손을 보며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괜찮아. 손가락에 낀 반지가 담벼락의 돌사이에 끼여서 살갗이 조금 긁혔을뿐이야.》
《그것 봐. 금강석같은걸 가지고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아토스가 롱담삼아 이렇게 말하자 포르토스가 야단스레 소리를 질렀습니다.
《금강석이라고? 금강석이 있는데 돈걱정을 하다니? 그걸 파세.》
《하지만 이건 왕비님이 주신건데…》
《다르타냥, 버킹검공작을 살리기 위해 썼다면 왕비님도 리해해주실걸세.》
하고 아토스가 말했습니다.
다르타냥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지에 돌아오니 모두들 야단법석이였습니다.
《근위병 만세!》
《총사 만세!》
병사들이 떠들썩하며 그들을 맞아들였습니다.
아토스가 기발을 내릴 때부터 보루를 지켜보던 병사들은 그 수가 점점 불어서 2천명이나 되였던것입니다.
병사들은 앞다투어 달려와서 아토스네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총사대와 에싸르호위대의 병사들도 모여들었습니다.
하도 떠들썩하기에 리셜리총리는 웬일인가 하고 알아

보러 왔습니다.

사연을 알게 된 리셜리는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음, 또 시끄러운 그 녀석들이군. 아무래도 저 네 녀석을 모두 내편으로 끌어들여야겠어.》

그날밤 리셜리는 트레빌대장과 만났습니다. 트레빌은 이미 모든 사연을 들었기때문에 그 이야기를 자세히 리셜리총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손수건기발이야기도 잊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그것 참 재미있군. 트레빌, 그 손수건기발을 내게 빌려주시오. 거기에 금실로 백합꽃을 세송이 수놓아서 당신네 총사대의 기발을 만들어드리겠소.》

《그건 좀 딱하군요. 다르타냥은 저의 총사대의 소속이 아니고 에싸르호위대 소속이니까요.》

《그럼 차라리 다르타냥도 당신네 총사대에 넣도록 하구려. 그 네 사람은 그렇게 사이가 좋으니까.》

그날밤으로 트레빌은 이 소식을 네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다르타냥은 기뻐서 어쩔줄 몰라했습니다. 총사가 되는것, 그것은 빠리에 올 때부터 품어오던 다르타냥의 꿈이였습니다. 그 꿈이 마침내 실현된것입니다.

다르타냥은 에싸르대장에게로 달려가 총사로 뽑혔다는 말을 했습니다. 평소에 다르타냥을 남달리 사랑하던 에싸르대장은 이 기회에 무엇이든 청이 있으면 사양말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부대가 바뀌면 복장같은걸 새로 마련하는데 돈이 들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다르타냥은 돈은 사양했지만 그대신 금강석을 맡기고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튿날아침 8시에 에싸르대장의 부하가 다르타냥에게로 찾아와서 7천리브르의 금화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은 왕비가 준 금강석반지의 값이였습니다.

6

그날밤 네 사람은 아토스의 숙소에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지혜를 짜보기로 한것이였습니다.

왕비에게 갈 심부름군으로는 아라미스의 부하인 바쟁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바쟁이 직접 왕비에게 갈수는 없기때문에 투르에 가서 아라미스와 아는 사이인 한 부인을 만나 그로 하여금 왕비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윈터남작에게는 플랑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편지는 라틴말로 론문도 쓸수 있고 시도 지을줄 아는 아라미스가 쓰기로 했습니다.

아라미스는 잠시 묵묵히 생각에 잠겼다가 녀자의 필체와 같은 깨끗한 글씨로 먼저 윈터남작에게 보낼 편지를 썼습니다.

남작귀하

귀하는 친척중에서 한 부인을 상속인으로 정하실 생각인 모양이지만 그 부인은 영국에서 결혼하기전에 이미 프랑스에서 결혼을 한바 있습니다. 그 부인때문에 지금까지 두번

이나 귀하는 생명을 잃을번했습니다. 셋째번에는 부디 조심하십시오. 그 부인은 요전날밤 라로셸에서 영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끔찍한짓을 생각하고있으니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를 알고싶으시면 그의 왼쪽어깨를 살펴보십시오.

다음엔 투르의 부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 역시 리셜리의 손에 들어가도 의심을 받지 않도록 씌여져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버킹검공작의 일을 걱정하는 사람이 읽으면 그에 대한 암살이 계획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게 되여있었습니다.

다르타냥은 플랑쉐를 불러 편지를 넘겨주었습니다.

《편지는 걱정마십시오. 옷섶에 넣어가지고 가지요. 만약 붙잡히면 곧 삼켜버리겠습니다.》

하고 플랑쉐는 대답했습니다.

다르타냥은 주의할 점을 몇가지 일깨워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떠나게. 윈터남작의 집까지 가는데 여드레, 돌아오는데 여드레, 합쳐서 열엿새는 걸릴걸세. 어떤 일이 있어도 열엿새동안에 다녀와야 하네. 만약 마지막날밤 8시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상금은 안줄테야.》

《그럼, 시계를 하나 사주십시오.》

그 말을 듣자 아토스가 여느때처럼 인심좋게 자기 시계를 플랑쉐에게 주었습니다.

《그대신 잘해야 돼. 만약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든가, 도중에서 꾸물거리든가 하면 네 주인의 목이 달아날지도 몰라. 미리 말해두지만 너때문에 다르타냥에게 무슨 일

이라도 생기면 나는 어디서든 너를 기어이 찾아내서 네 배에다 큰 구멍을 뚫어줄테야.》

하고 그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나도 그런 일이 있으면 네 살가죽을 산채로 벗겨버릴테다.》

하고 포르토스도 큰 눈알을 부라렸습니다.

《나는 야만인들처럼 너를 불에다 지글지글 태워버릴테다.》

하고 아라미스까지 한마디 했습니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하며 플랑쉐는 울상이 되였습니다.

플랑쉐는 이튿날아침 8시에 출발했습니다. 그때 다르타냥은 플랑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편지를 윈터남작에게 드린뒤에 이렇게 덧붙여 말해주게. 〈버킹검공작을 암살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조심해주십시오.〉하고 말이야. 이건 우리 친구들에게도 비밀로 하고 자네에게 따로 부탁하는걸세.》

《걱정마십시오. 제가 얼마나 신용할수 있는 사람인가를 이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랑쉐는 성큼 말에 올라 쏜살같이 내달렸습니다.

바쟁은 다음날 아침 투르로 떠났습니다. 그는 여드레동안에 다녀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다음 네 사람은 전보다도 매사에 더욱 조심하였습니다. 남들의 이야기를 엿듣기도 하고 리셜리의 동정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자칫하면 목숨이 날아날지도 모르는 일이여서 순간도 방심하고있을수 없었습니다.

여드레째 되던 날 아침 네 사람이 파르파이요에서 아

침밥을 먹고있는데 바쟁이 싱글벙글하며 나타났습니다.
《아라미스나리, 답장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람은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러나 플랑쉐가 돌아오기전에는 좀처럼 안심할수 없었습니다.
그를 불안한 마음을 안고 기다리는 다르타냥에게는 그야말로 하루가 천날맞잡이로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열엿새가 지나가자 다르타냥네들은 안절부절을 못하고 플랑쉐가 돌아올 길목에서 서성거렸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네 사람은 파르파이요로 갔습니다. 7시가 되자 정찰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시반이 되자 모두 자기 부대로 돌아오라는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젠 틀렸군.》
하고 다르타냥은 아토스에게 속삭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는 서로 팔을 끼고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둠속에서 그림자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나리, 만또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저녁은 쌀쌀하군요.》
퍼그나 귀에 익은 목소리였습니다.
《플랑쉐로구나!》
다르타냥은 반갑게 소리치며 그한테로 다가갔습니다.
어느덧 8시가 되였습니다.
다르타냥은 플랑쉐를 데리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방

문을 플랑쉐에게 지키게 하고 서둘러 기다리던 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편지에는 극히 간단하게 이런 글이 씌여 있었습니다.

고맙소. 안심하시오.

아토스는 그 편지를 다르타냥에게서 넘겨받아 등잔불에 갖다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재가 될 때까지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날밤 네 사람은 비로소 열엿새만에 겨우 안심하고 잠들수 있었습니다.

제 5 장

악마같은 녀자

1

도바해협은 거칠었습니다. 간단없이 부글거리는 흰파도는 밀라디의 울분을 한층 북돋아주었습니다.

과연 다르타냥과 아토스에게 아무런 앙갚음도 못하고 이렇게 프랑스를 떠나야 하는가? 처음엔 이번 일을 끝내고나서 리셜리에게 고소하려고 결심했었지만 거친 바다를 바라보고있노라니 도저히 그대로는 떠날수 없었습니다.

밀라디는 선장에게 배를 프랑스바다가에 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느날 배는 프랑스바다가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밀라디는 또다시 결심을 바꾸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벌써 아흐레나 지나갔습니다. 이제 뭍에 올라 리셜리한테 가자면 다시 나흘, 합쳐서 열사흘, 그동안에 런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도 모르는 일이였습니다.

일이 랑패되면 리셜리는 밀라디의 고소를 들어주기는 커녕 오히려 되게 꾸짖을것입니다. 역시 런던으로 먼저 갈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는 다시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랬다 저랬다 하느라고 공연히 날자를 끌었기때문에 그는 플랑쉐가 심부름을 마치고 프랑스로 떠난 날에야 겨우 영국의 포츠마스항에 닿을수 있었습니다.

그가 탄 배가 항구로 들어가 한창 닻을 내릴 준비를 하고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무장을 한 한척의 뽀트가 다가왔습니다.

뽀트에서 한사람의 해군장교가 배우로 올라왔습니다. 장교는 주머니에서 무슨 서류를 꺼내여 선장에게 보였습니다.

이윽고 선장의 명령으로 선원과 선객들이 전부 갑판우에 모였습니다.

장교가 한사람씩 조사를 하고 선장은 명부를 가지고 그뒤를 따랐습니다. 장교는 밀라디앞으로 오자 한동안 멈춰서서 아무 말없이 그의 모습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밀라디는 장교를 아니꼽게 흘겨보았습니다.

배가 부두에 가까와졌을 때는 이미 밤이였습니다. 부두에는 짙은 안개가 드리워 지척도 가려보기 어려웠습니다. 부두의 많은 등불들은 짙은 안개속에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장교는 밀라디가 외국인이라면서 그의 짐을

뽀트로 옮겨실었습니다.

《자, 뽀트로 내려가시죠.》

하고 장교가 밀라디에게 말했습니다.

밀라디는 자기는 외국사람이 아니라 클라릭이라는 영국인이라고 뻗댔습니다. 하지만 장교는 쌀쌀하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갑시다. 당신만 특별대우를 할수는 없으니까요.》

밀라디는 장교의 차거운 말투에 눌려 하는수없이 뽀트에 옮겨탔습니다. 부두에 오르자 마차가 그들을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자, 타십시오. 나하고 같이 갑시다.》

《려관은 먼가요?》

《시내 저쪽입니다.》

밀라디는 마차에 올랐습니다. 장교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마부는 아무 말없이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한시간쯤 지나서 마차는 어떤 쓸쓸한 성앞에 멈춰섰습니다. 어딘지 알수 없는 캄캄한 어둠속에서 절벽에 부딪쳐 부서지는 파도소리가 무시무시하게 들려왔습니다.

장교는 정중하게 밀라디를 집안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돌층계를 올라가 육중한 문앞에 이르자 장교는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은 무거운 소리를 내면서 열렸습니다. 이것이 밀라디의 방이였습니다.

그 방 창문에는 덧문이 달려있고 문은 밖에서 빗장을 걸도록 되여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시무시한 감방이였습니다.

밀라디는 털썩 쏘파우에 주저앉았습니다. 두서너명의 수

병들이 밀라디의 짐을 옮겨다가 방구석에 쌓아놓고 곧 나가버렸습니다.
밀라디는 참다 못하여 장교에게 항의했습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까닭입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저는 자유로운 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잡힌 몸입니까? 저에게 무슨 죄가 있단말인가요?》
이때 발자국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교는 공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밀라디는 어둠속에서도 그 남자를 대뜸 알아보았습니다. 밀라디는 멈칫하였습니다. 장교가 감방안에 등불을 놓고 문어귀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당신이였군요?》
하고 밀라디가 뜻밖이라는듯 말을 건넸습니다.
《그렇소. 나요.》
남자의 대답에는 어딘가 비양조가 섞여있었습니다. 밀라디의 시동생 윈터남작이였습니다. 밀라디는 윈터남작을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 성은요?》
《내 집이요.》
《나를 감금하는게로군요?》
《아마 그런것 같소.》
《녀자를 폭력으로 이런곳에 가두다니 이게 무슨 비겁한 일이예요?》
《큰소리는 그만두시지요. 자,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나 합시다.》
남작은 이렇게 말하고 한쪽구석에 서있는 장교에게로 몸

을 돌렸습니다.

《수고했네. 그럼 가보게, 펠튼.》

장교는 허리를 굽히고 방을 나갔습니다. 남작은 다시 밀라디한테로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무엇하러 영국에 왔소?》

윈터남작의 말투는 거칠어졌습니다.

《당신을 만나고싶어서요.》

《하, 그것참 고마운 일이군요. 하긴 당신은 나의 재산의 상속인이니까.》

남작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있었습니다. 그는 밀라디가 자기의 재산을 노리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습니다. 밀라디는 몸서리쳤습니다.

《당신은 리셜리총리와 사이가 매우 가깝다지요?》

《내가 리셜리님과 사이가 좋다고요?》

밀라디는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였습니다.

남작은 이미 모든것을 다 알아냈구나 하고 밀라디는 생각하였습니다.

남작이 밀라디에게 심판을 내리듯이 맵짜게 말했습니다.

《이삼주일뒤에 나는 병사들을 거느리고 라로셸로 가오. 출발하기전날 한척의 배가 와서 동남아시아의 식민지로 데려갈것이요. 영국으로, 아니 유럽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오. 만약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감시인이 당신의 머리에 한방 쏘아 맞구멍을 뚫어놓을것이요. 알겠소? 그때까지 당신은 이 성에 있어야 하오. 내가 없는동안에 여기서 지시를 할 사람은 아까 그 청년이요.》

남작은 펠튼이라는 그 장교를 불러 밀라디를 이 방에서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말것과 아무와도 편지를 주고받지 못하게 할것을 엄격히 일러놓고 나가버렸습니다.

2

복도에서는 허리에 도끼를 차고 손에 총을 든 감시병들의 발자국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그 발자국소리를 들으면서 밀라디는 이곳을 탈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펠튼은 퍽 순진한 청년같아보였습니다. 그 청년을 리용해보기로 밀라디는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앉아 기도를 하는체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젊은 펠튼은 그의 낚시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는 저으기 감동되여 밀라디가 죄도 없이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있는것이라고 동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펠튼은 밀라디에게 은근히 관심을 돌리였습니다.

붙잡힌지 닷새가 되던날 밤 밀라디는 그의 간청으로 지난날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교묘하게 꾸며내여 들려주었습니다.

《아직 소녀이던 어린 시절에 저는 한 남자의 눈에 들게 되였어요. 전 무척 아름다왔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순순히 듣지 않았어요. 제가 호락호락 굽어들지 않자 그 남자는 저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끝에 나중에는 감옥의 간수를 데려다가 어깨에 죄인의 락인을 찍게 했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밀라디는 옷을 쭉 찢고 백합꽃락인이 찍힌 어깨를 펠튼에게 드러내보였습니다.

순진한 펠튼은 그의 이 거짓말을 그만 진심으로 믿어버렸습니다. 그런 무서운 불행을 강요당한 신앙심이 두터운 이 녀자는 틀림없이 마음씨 착한 녀자일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밀라디앞에 무릎을 꿇고 그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당신을 괴롭힌 그 남자는 누구입니까?》

《버킹검공작이예요. 그 사람은 내가 영국에 돌아온것을 알자 이렇게 윈터남작을 시켜 나를 붙잡게 한것이예요.》

그 이튿날 저녁무렵부터 날씨가 갑자기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먹장같은 떼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날이 어둡자 무서운 폭풍우가 휘몰아쳤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감방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번개불이 번쩍하는 순간 쇠창살 저편에 사나이의 얼굴이 확 드러났습니다. 펠튼이였습니다.

밀라디는 달려가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부인, 이 창살을 잘라버릴 때까지 옴짝말고 가만히 침대에 누워계십시오.》

펠튼이 귀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밀라디는 문을 닫은 다음 등불을 끄고 침대에 몸을 묻었습니다.

한시간쯤 지나자 펠튼이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밀라디는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펠튼은 그동안 창문에서 창살 두개를 잘라놓았습니다. 사람 하나가 넉넉히 빠져나갈만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밀라디는 의자우에 올라서서 몸을 창밖으로 내밀었습니다. 청년은 바줄사다리에 매달려 허공에 떠있었습니다.

《두팔을 앞으로 내미십시오.》

펠튼은 밀라디의 손목을 손수건으로 묶고 그 우에 다시 바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밀라디의 두팔을 자기 목에 걸었습니다.

펠튼은 한걸음한걸음 바줄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강한 바람이 두 사람의 몸을 뒤흔들었습니다. 펠튼은 갑자기 그자리에 굳어졌습니다. 밑에서 감시병들의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땅에서 6메터나 되는 공중에 가만히 매달려있었습니다.

이윽고 감시병들이 어둠속으로 멀어져갔습니다. 밀라디는 《후》 하고 한숨을 내쉬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기절하고말았습니다.

펠튼은 밑에 내려서자 밀라디를 안고 감시병들이 지나간 반대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위틈을 지나 바다가로 나왔습니다. 그는 호각을 불었습니다.

이윽고 네 사람의 해병을 태운 뽀트가 나타났습니다. 뽀트는 두 사람을 싣고 멀찍이 앞바다에 떳어있는 한척의 배를 향해 파도를 헤쳐나갔습니다.

펠튼은 밀라디의 손목을 묶은 바줄을 풀고 바다물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잠시후 밀라디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젠 안심하십시오.》

《그래요? 아, 정말 저를 구해주셨군요. 정말이군요. 이 하늘, 이 바다, 이 자유로운 공기… 고마와요. 펠튼.》

앞바다에 떠있던 큰 배는 펠튼이 밀라디를 위하여 세낸 배였습니다. 펠튼은 도중에 포츠마스에서 자기만 내려달라고 선장에게 부탁했습니다.

포츠마스에는 버킹검공작이 와있었습니다.

《저는 남작의 명령으로 당신을 식민지로 보낼 서류에 공작의 서명을 받으러 가게 되여있습니다. 우물쭈물하고있을새가 없습니다. 래일이 23일입니다. 공작은 래일 함대를 이끌고 라로셸로 출발합니다.》

하고 펠튼이 밀라디에게 중간에 내리지 않으면 안되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출발하게 해선 안돼요.》

하고 밀라디는 웨쳤습니다.

《념려마십시오. 공작은 결코 떠나지 못할것입니다.》

청년의 말을 듣자 밀라디는 부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청년은 공작을 죽이려고 결심하고있는것이였습니다.

3

부두가까이에 있는 도래굽이에서 배를 내린 펠튼은 아침 8시경에 포츠마스에 도착했습니다. 밀라디는 어떤 일이 있던지 10시까지 배에서 펠튼은 기다리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펠튼은 버킹검공작이 있는 해군사령부로 찾아들어갔습니다.

《윈터남작으로부터 급한 임무를 받고왔습니다.》

원터남작은 공작의 가장 친한 친구들중의 한사람이였습니다. 펠튼은 곧 공작의 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남작은 왜 자기가 오지 않았는가? 녀자를 한사람 붙들었다던데.》

《그 녀자를 감시하느라고 못오시는것 같습니다. 량해해달라고 하시더군요.》

펠튼은 밀라디를 동남아시아의 섬으로 귀양보내는 명령서를 공작앞에 내놓았습니다. 공작은 재빨리 훑어보더니 서명하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이때 펠튼이 말했습니다.

《각하는 그 명령서에 서명하시면서 량심에 가책되는 바가 없으십니까?》

공작은 힐끔 청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건 무슨 소린가?》

펠튼은 말없이 공작을 지켜보고있었습니다.

그러나 버킹검공작은 언뜻 생각을 돌렸습니다. 아마도 남작이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라고 시킨것이겠지 하고 생각하였던것입니다.

《조금도 량심의 가책을 받을건 없네. 그 녀자가 무서운 죄를 범한 녀자라는건 원터남작도 잘 알고있어. 귀양을 보내는것도 관대한 처분이지.》

《각하, 그 부인은 천사같은분입니다. 각하는 옛날 그 부인을 속이고 학대하였습니다. 그 죄를 씻는셈치고 그 분을 석방해주십시오.》

《무슨 소리를 하는가? 이 무례한놈!》

공작은 언짢게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펠튼은 공작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애원합니다. 이 부인을 용서한다는 명령서에 서명해주시기를…》

펠튼은 공작에게 종이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억지로 나에게 서명을 시키자구. 자네 미쳤나? 여보게 패트릭.》
공작은 큰소리로 패트릭을 불렀습니다.
순간 펠튼은 단도를 꺼내들고 날쌔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패트릭이 큰소리를 지르며 방안으로 뛰여들어왔습니다.
《각하, 프랑스에서 특사가…》
《프랑스에서?》
공작은 누가 보낸 특사일가 하고 의혹에 잠겨 한순간 눈앞의 펠튼을 잊어버렸습니다.
펠튼은 그틈을 타서 공작의 옆구리에 단도를 찔렀습니다.
《으음, 비겁한놈…》
공작은 신음하면서 그자리에 털썩 쓰러졌습니다.
《큰일났다!》
하고 패트릭이 소리쳤습니다. 펠튼은 열려있는 문으로 쏜살같이 도망쳤습니다. 복도를 지나 층계로 나서려던 그는 그때마침 2층으로 뛰여올라오는 윈터남작과 마주쳤습니다. 펠튼의 피묻은 손목과 이그러진 얼굴을 보자 남작은 단숨에 펠튼을 붙잡았습니다.
《아! 한발 늦었구나.》
남작은 7시에 밀라디가 도망쳤다는 보고를 받고 부랴부랴 말을 달려왔던것입니다.
공작과 패트릭의 고함소리를 듣고 옆방에 있던 프랑스

에서 온 특사도 곧 공작의 방으로 뛰여들었습니다.

《라 포르트인가? 왕비님의 심부름군?》

공작은 안락의자우에서 상처를 부여잡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 포르트는 편지의 겉봉을 뜯고 그것을 공작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공작은 이미 눈앞이 흐려와서 편지를 읽을수가 없었습니다. 라 포르트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공작님, 진심으로 말씀드릴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제가 걱정하지 않기를 바라고계신다면 프랑스에 대한 큰 전쟁준비를 제발 그쳐주세요.

이 전쟁은 프랑스에도 영국에도 큰 불행을 가져올것입니다. 그뿐아니라 당신자신에게도 뜻하지 않은 큰 불행이 닥쳐올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노리고있는 사람이 있으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안느

버킹검공작의 얼굴에 엷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안락의자에서 마루바닥으로 미끄러져내려 그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공작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은 곧 집안에 퍼졌습니다.

윈터남작은 발코니우에서 병사들에게 둘러싸여있는 펠튼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리석은놈, 그따위 녀자의 앞잡이노릇을 하다니.》

갑자기 펠튼은 부들부들 몸을 떨었습니다. 그의 눈길은 바다우에서 점점 멀리로 사라져가는 한척의 배를 바

라보고있었습니다. 밀라디의 배였습니다.
《마지막 소원입니다. 남작, 지금 몇시입니까?》
하고 그가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9시 10분전이네.》
펠튼은 그때에야 밀라디에게 배반당한것을 깨달았습니다. 밀라디는 10시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펠튼은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 못난놈을 제발 죽여주십시오.》

4

라로셸진지에는 그동안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심심해진 국왕은 빠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호위의 임무를 맡은 20여명의 총사들가운데는 다르타냥과 그의 친구 세사람도 끼여있었습니다.
빠리로 가는 다르타냥의 발걸음은 날개라도 돋친듯 가벼웠습니다. 그는 벌써 오래전부터 무척 빠리로 돌아가고싶었던것입니다.
아라미스의 덕분으로 보나시부인이 베르느수도원에 있다는것을 알아냈기때문이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다르타냥은 그 무서운 밀라디가 베르느에 가서 보나시부인을 만나면 큰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밀라디는 리셜리에게 보나시부인이 있는곳을 찾아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던가?
다르타냥은 보나시부인을 보다 더 안전한곳에 숨길 결심이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비의 허락이 필요했습니

다. 아라미스가 이번에도 투르에 있는 한 부인을 통하여 왕비의 명령서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안달이 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헌데 마침 이번에 국왕을 모시고 빠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빠리에 도착하자 엿새동안의 휴가까지 받았습니다.
곧 네 사람은 자기 부하를 데리고 베르느로 출발했습니다. 처음엔 다르타냥이 플랑쉐와 단둘이서 가겠다는것을 아토스가 말렸던것입니다.
《아니, 우리모두 함께 가세. 그 베르느라는데는 밀라디가 영국에서 돌아와 리셜리총리와 련락을 취하기로 되여있는곳이야. 워낙 약삭바른 녀자니 윈터남작의 감시의 눈을 피하여 탈출할지도 몰라.》
다르타냥은 아토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베르느로 가던 어느날 저녁이였습니다. 모두가 선술집에서 한잔 하고있는데 갑자기 한 무사가 안마당으로 뛰여나가더니 말에 채찍질을 하여 빠리쪽으로 달려가는것이였습니다.
무사는 8월이건만 검은 만또로 몸을 두르고있었습니다. 문을 지날 때 그 만또가 바람에 펄럭이고 깊숙이 눌러쓰고 있던 모자가 날아갈번했습니다. 무사를 모자는 고쳐썼습니다.
무사를 지켜보던 다르타냥은 그 순간 손에 들었던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왜 그래, 다르타냥?》

다른 세 사람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놈이야. 그놈을 쫓아가야겠어.》
《그놈이라니, 누군가?》
《그 흉악한놈, 나에게 붙어다니는 그놈말이야. 로슈포르.》
하지만 그사이에 상대방은 벌써 쏜살같이 말을 달려 퍼그나 멀리로 사라지고있었습니다. 외양간지기가 무사를 향해 손을 내저으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있었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나리, 모자에서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여보게, 반피스톨을 줄테니 그 쪽지를 내게 주게.》
뒤쫓아가기를 단념한 다르타냥이 외양간지기의 어깨를 건드리며 돈을 꺼냈습니다.
《이거 고맙습니다.》
외양간지기는 벙글거리며 종이쪽지를 다르타냥에게 내주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단지 한마디 《아르망티에》라고밖에 씌여있지 않았습니다.
《아르망티에? 그런 이름은 처음 듣는데.》
총사들은 얼굴을 마주 쳐다보며 고개를 기웃거렸습니다. 아무튼 그 종이쪽지는 소중히 간직해두기로 했습니다.

그무렵 밀라디는 베르느의 수도원에 기여들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두 나라의 군함들사이를 배를 타고 교묘하게 빠져나와 프랑스에 도착한 밀라디는 자기가 영국에서 도망

온 프랑스사람이라고 항구사무소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어엿한 귀부인처럼 행세를 하는 그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밀라디는 곧 리셜리총리에게 편지를 내고 베르느의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여기서도 그는 손쉽게 원장인 늙은 부인과 가깝게 사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장이 리셜리의 편인지 아닌지를 알수 없었습니다.

원장은 밀라디에게서 궁전의 이야기를 듣고싶어했습니다. 그 기회에 밀라디는 왕비의 좋지 않은 소문을 넌지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장은 별로 귀맛이 당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리셜리총리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원장은 무척 관심을 가지고 흥미있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동떨어져있어도 리셜리총리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은 자연히 귀에 들어옵니다. 이 수도원에도 왕비님이 맡겨두신 젊은 녀자분이 있습니다만 그분도 리셜리님의 비위에 거슬려서 큰 봉변을 당하셨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원장은 리셜리총리의 명령으로 수도원에 온 밀라디가 어째서 그를 나쁘게 말하는지 의아히 여기며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밀라디는 또 거짓말을 꾸며댔습니다. 자기는 곧 리셜리님때문에 옥에 들어가게 될 몸이고 그때까지 이 수도원에 림시로 갇혀있는것이라고—

《달아나시면 좋으실걸.》

《어디로 달아난단 말씀이예요? 어디를 가나 리셜리님의 눈이 안미치는곳이 없는데요.》

마음씨좋은 원장은 그만 밀라디가 가엾어졌습니다.

밀라디는 원장에게 왕비님이 맡겨두신 녀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왕비가 숨겨둔 녀자라면 무슨 비밀을 알아낼수 있을지도 모르리라고 생각했던것입니다.

다음날 밀라디는 그 녀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원쑤지간이였지만 얼굴을 맞대기는 이번이 처음이여서 서로 상대방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근위총사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밀라디가 다르타냥을 안다고 말하자 갑자기 그 녀자는 밀라디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다르타냥님을 아신다고요?》

그 녀자의 눈이 기쁨으로 새별처럼 반짝거렸습니다. 밀라디는 대뜸 그 녀자가 보나시부인이라는것을 알았습니다.

밀라디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래동안 찾고있던 원쑤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것입니다. 이번에야 놓칠소냐하고 그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밀라디를 믿어버린 보나시부인은 기쁜김에 해서는 안될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늘밤이나 래일 다르타냥님이 저를 데리러 오실거예요.》

《다르타냥이 여기에? 설마?! 그 사람은 지금 라로셸에 있을텐데요. 잘 믿어지지 않는군요. 그곳이 함락되기전엔 좀처럼 돌아올수 없을거예요.》

《아니랍니다. 이걸 읽어보세요.》

보나시부인은 한장의 편지를 밀라디에게 내보였습니다.

(쉐브르즈부인의 글씨로군.)

하고 밀라디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밀라디는 가슴을 설레이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출발준비를 하고 기다리세요. 그이가 곧 당신을 만나러 갈테니까요. 감옥같은 그곳에서 당신을 다른곳으로 옮기기 위해서랍니다.

이때 밖에서 말발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그분일가?》
하고 보나시부인은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곧 실망하고말았습니다.
《아니군요. 모르는 사람이예요.》
그는 문에서 물러서며 한숨을 쉬였습니다.
원장이 들어와서 웬 무사 한사람이 밀라디를 만나러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리셜리님의 심부름이라면서 이름은 밝히지 않는군요. 어쩐지 걱정스러운데요…》
원장은 보나시부인을 데리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이윽고 층계에서 발소리가 나더니 한 사나이가 나타났습니다. 밀라디는 기쁨의 환성을 질렀습니다. 그 사나이는 로슈포르백작이였습니다.
밀라디의 편지를 받은 리셜리총리가 자세한 사연을 알아보기 위해서 로슈포르를 수도원으로 보낸것이였습니다.
밀라디는 로슈포르에게 영국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나시부인이 있다는것과 다르타냥이 데리러 오리라는것도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타고온 마차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라로셸까지 그냥 말을 타고 가란말인가.》

로슈포르는 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으나 곧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번에 오실 때는 전 이곳에 있지 않을거예요.》

하고 밀라디가 말했습니다.

《왜?》

《래일이라도 다르타냥네들이 올것 같다는데 여기 그냥 있을순 없지 않아요?》

《아, 그렇군, 그럼 어디서 만날가?》

《전 어렸을 때 이 지방에서 자라서 이 고장을 잘 알고있어요. 될수 있는대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곳으로 하자요. 아르망티에가 좋을것 같아요.》

밀라디는 그 이름을 종이쪽지에 써서 로슈포르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써준 종이쪽지가 바로 다르타냥의 손에 들어갔던것입니다.

5

로슈포르가 돌아가자 곧 보나시부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밀라디의 일이 걱정스러워 찾아온것이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밀라디는 즐거운 얼굴을 하고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나의 오빠예요. 연극을 썩 잘해요. 리셜리님의 부하라고 감쪽같이 원장을 속여 우리를 놀래웠군

요. 당신에게 한가지 비밀을 이야기하죠.》
밀라디는 목소리를 낮추어 은근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빤 이리로 오는 길에 리셜리님의 심부름군을 죽였대요. 그리고 자기가 심부름군인체했다지 않아요. 이제 한두시간안으로 리셜리님이 보낸 마차가 나를 데리러 올거예요.》
《아, 알겠어요. 그 마차는 오라버님이 보내주시는거겠지요?》
《그래요. 그런데 아까 당신에게 온 그 편지 있잖아요. 당신은 그것이 쉐브르즈부인에게서 온것으로 알고있지만 그건 가짜편지예요.》
《가짜편지? 하지만 다르타냥님이 데리러 온다는건…》
《모두 거짓이예요. 다르타냥님은 친구들과 함께 라로셸에 붙들려있대요. 내 오빠가 총사차림을 한 리셜리님의 부하들을 보았다는군요. 아마 한편인체하고 당신을 불러내가지고 빠리로 끌고갈 생각인가봐요.》
《아, 어쩌면 좋아…》
보나시부인은 두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앞이 아뜩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막연하였습니다.
밀라디는 그를 짐짓 동정하는체하면서 자기를 데리러 오는 마차를 타고 함께 도망치자고 아주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보나시부인은 그 말을 따랐습니다.
이윽고 마차가 왔습니다. 밀라디와 보나시부인은 식사를 하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밀라디는 잔에 포도주를 따랐습니다. 밀라디가 자기 잔을 입에 대려는 순간 멀리서 말이 투레질하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밀라디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파랗게 질려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보나시부인도 몸을 바르르 떨면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의자를 꽉 붙잡고 겁에 질린 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요?》

《가만 계셔요. 제가 볼테니…》

이미 해가 저물어 가까운곳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밀라디는 눈이 올롱해서 긴장한 눈초리로 밖을 살펴보았습니다.

갑자기 길모퉁이에 말이 나타났습니다. 말우에 탄 사나이가 쓴 모자의 깃털장식도 보였습니다. 말을 달려오는 사람은 모두 여덟이였습니다.

그들중에서 한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달려오고있었습니다.

그는 다르타냥이였습니다. 그를 알아보는 순간 밀라디는 목을 졸린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그래요?》

하고 보나시부인이 물었습니다.

《리셜리님의 호위병들이예요. 어서 도망치자요.》

하지만 한껏 공포에 질린 보나시부인은 다리가 떨려 한걸음도 움직일수가 없었습니다.

총사들은 창밑을 지나갔습니다.

《마당으로 도망칠수 있겠어요.》

밀라디는 보나시부인의 팔을 잡고 끌다싶이 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두걸음도 채 못가서 털썩 주저앉고말았습니다.

마차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총사들이 달려오자 마차가 도망쳐버렸던것입니다.

밀라디는 보나시부인을 안아일으키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난 조금도 움직일수 없어요. 혼자서 달아나세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럴순 없어요.》

순간 밀라디의 눈이 무섭게 번쩍 빛났습니다. 그는 급히 식탁으로 달려가더니 자기 손에 낀 반지의 뚜껑을 열고 그속에 들어있던 독약을 보나시부인의 잔에 넣었습니다.

불그스름한 알약은 곧 포도주에 녹아버렸습니다.

《자, 이걸 마셔요. 그러면 기운이 날거예요.》

밀라디는 잔을 보나시부인의 입술에 댔습니다. 부인은 시키는대로 그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밀라디는 보나시부인을 팽개치고 부리나케 밖으로 뛰여나갔습니다.

보나시부인은 꿈결에 가위눌린 순간처럼 정신은 말쑥하면서도 몸이 노그라들어 꼼짝할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꿈에서 누구한테 쫓기면서도 달아날래야 달아날수가 없을 때와 같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윽고 현관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더니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간 부인은 기쁨의 환성을 지르면서 용수철에서 튀여나듯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다르타냥의 목소리를 들었던것입니다.

《다르타냥님, 다르타냥님, 이쪽이예요. 이쪽이예요.》

그는 두손을 허우적거리면서 문쪽으로 다가가려고 비칠거리다가 그 자리에 쓰러지고말았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사나이들이 뛰여들어왔습니다.

다르타냥은 아직 연기가 나는 권총을 내던지고 쓰러져있는 보나시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 다르타냥님, 약속대로 와주셨군요.》

《그렇습니다. 이제야 겨우 만났군요.》

《그래요. 그런데도 그 부인은 결코 당신이 오지 못할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기다리고있었어요.》

《그 부인이라니, 누굽니까?》

《친구예요. 당신들을 리셜리총리의 호위병들인줄로 알고 방금 막 도망갔어요.》

《이름은?》

《뭐라더라?… 가만있자… 아니, 왜 이럴가? 머리가 멩하고 눈이 안보이고…》

보나시부인의 얼굴은 새파래졌습니다.

《좀 도와주게. 손이 얼음장같아.》

다르타냥이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부인이 까무라쳤던것입니다.

물을 따르려던 아라미스는 그만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아토스가 무서운 눈으로 식탁우의 잔을 쏘아보고있었던것입니다. 보나시부인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생기없이 흐려져가고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셨군요.》

다르타냥이 보나시부인의 손을 다정히 잡았습니다. 아토스는 보나시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빈잔에 있던것은 누가 마셨습니까?》

《제가 마셨어요.》

《누굽니까? 이 잔에 포도주를 따른건?》

《그 부인이예요.》

《그 부인이라니요?》

《아, 이제야 생각났어요. 윈터부인이예요.》

순간 네 총사는 일제히 《앗!》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나시부인의 낯빛이 갑자기 종이장처럼 새하얘졌습니다.

《다르타냥, 제곁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부인은 가까스로 이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고말았습니다.

다르타냥은 그만 정신을 잃고 부인의 시체옆에 쓰러졌습니다. 이때까지 별로 울어본 일이 없는 포르토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라미스는 주먹을 부르쥐고 땅을 치고 아토스는 소리없이 가슴에 십자를 그었습니다.

6

바로 그때 방문에 한사람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나이는 창백한 얼굴로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역시 내 짐작이 맞았군.》

하고 사나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아토스네들은 깜짝 놀라 그 사나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본듯한 낯익은 얼굴이였으나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윈터남작입니다.》

하고 사나이가 먼저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아토스는 일어서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여.》
윈터남작은 영국에서 밀라디를 뒤쫓아온것이였습니다. 그러나 밀라디가 어디로 갔는지를 알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다르타냥네들이 지나가는것을 보고 혹시나 해서 그뒤를 쫓아온것이였습니다.
이윽고 정신을 차린 다르타냥은 미친 사람처럼 보나시부인의 시체에 매달렸습니다.
아토스는 다르타냥을 안아일으켰습니다.
《여보게, 사내답게 굴게. 자네가 녀자라면 눈물을 흘려도 좋아. 그렇지만 사나이는 복수를 해야지.》
《그렇지, 그래. 자네 말이 맞았어.》
다르타냥은 입술을 피터지게 감쳐물었습니다.
그날밤 숙소에 돌아온 아토스는 다르타냥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오늘 얻은 종이쪽지를 보여주게. 그 종이에 마을이름이 적혀있었지. 오라. 그 마을이름을 쓴것이 그 녀자일지도 몰라.》
《틀림없이 그럴걸세.》
아토스는 집주인을 시켜 지도를 가져다놓고 아르망티에로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밀라디의 은신처를 기어이 찾아내야만하였습니다.
그들은 네갈래의 길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자 부하들을 모두 불러 이튿날아침 그 길을 각각 하나씩 더듬어가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아토스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슬그머

니 밖으로 나갔다가 얼마뒤에야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플랑쉐가 밀라디가 숨어있는곳을 알아냈다고 아토스에게 알려왔습니다. 다른 부하들은 밀라디를 감시하고 있다는것이였습니다.

밤 8시, 아토스는 친구들에게 말에 안장을 얹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나가더니 남자 한사람을 데리고왔습니다. 사나이는 복면을 한데다가 붉은 만또를 뒤집어쓰고 있었습니다.

9시에 플랑쉐를 앞장에 세우고 일행은 수도원을 출발했습니다. 윈터남작도 그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컴컴하고 음산한 밤이였습니다. 커다란 구름장이 하늘을 뒤덮어 별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은 자정이나 되여야 뜰것입니다.

갑자기 길가의 숲속에서 한 사나이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리모어였습니다.

그리모어는 밀라디가 아르망티에주막을 나와 리스강가에 숨어있다는것을 알렸습니다.

그리모어가 앞장에 섰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속에서 희여스름한 물결이 보였습니다.

강가에 닿자 번개가 번쩍했습니다. 순간 그리모어는 손을 들어 한곳을 가리켰습니다. 리스강나루터에서 백걸음쯤 떨어진곳에 조그만 집이 보였습니다.

창문에는 불이 켜져있었습니다. 무스크톤과 바쟁이 그 창문과 출입문을 감시하고있었습니다.

아토스는 말에서 내려 친구들에게 출입문쪽으로 돌아가라고 손짓을 하고 자기는 울타리를 뛰여넘어 창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거무스름한 만또를 걸친 녀자가 꺼져가는 난로불결에 앉아있었습니다. 밀라디였

습니다.
이때 말이 울었습니다. 밀라디는 놀라서 얼굴을 들고 창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앗!》
밀라디는 깜짝 놀라 후닥닥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토스는 창문을 부시고 방안으로 뛰여들었습니다. 밀라디는 도망치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토스보다도 더 무서운 다르타냥이 우뚝 서있었습니다. 밀라디는 뒤걸음질쳤습니다. 다르타냥은 허리에서 권총을 뽑았습니다. 아토스가 그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무기는 집어넣게. 이 녀자는 죽이기전에 먼저 심판을 해야 하네. 자, 모두들 올라오게.》
밀라디는 윈터남작의 모습을 보자 큰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어쩌려고 그래요?》
《우리는 샤를로트 박쏭을 찾고있소.》
아토스가 밀라디를 쏘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자기를 라 페르백작부인이라고 하고 다음엔 윈터백작부인이라고 한 녀자를 찾고있단말이요!》
《그건 나… 나예요.》
밀라디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떠듬거렸습니다.
《우리들은 지금부터 당신을 심판하겠소. 당신이 범한 죄에 따라서 변명하려거든 얼마든지 하시오. 우선 다르타냥부터 시작해주게.》
다르타냥은 앞으로 나섰습니다.
《첫째, 보나시부인을 독살한 죄를 고발합니다.》
《우리들은 증인으로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하고 포르토스와 아라미스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둘째, 라로셸에 포도주를 보내여 나를 독살하려고 한 죄를 고발합니다. 그때 브리즈몽이 죽었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하고 다시 포르토스와 아라미스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다음엔 윈터남작이 밀라디앞에 나섰습니다.

《신과 인간앞에서 버킹검공작을 암살한 죄를 고발합니다.》

《뭐, 버킹검공작이 암살됐어?》

모두들 놀라움으로 하여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당신을 상속인으로 정한 나의 형은 전신에 푸른 얼룩을 남기고 죽었다. 당신의 남편은 도대체 어떻게 죽었는가? 당신은 제 남편을 독살했지?》

밀라디는 대답대신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였습니다.

이번엔 아토스의 차례였습니다.

《나는 이 녀자가 아직 처녀였을 때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이 녀자의 왼쪽어깨에 백합꽃락인이 찍혀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밀라디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런 죄인이라면 그런 선고를 한 재판관을 만나보고싶군요. 그 락인을 찍었다는 사람을 만나보고싶단말이예요.》

《조용하시오. 내가 대답하리다.》

하고 붉은 만또를 걸친 사나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 누구예요?》

밀라디는 두려움에 숨을 허덕이며 웨쳤습니다.

모두의 눈길이 일제히 붉은 만또를 걸친 그 사나이에게로 쏠렸습니다. 사나이는 밀라디곁으로 다가서더니 복면을 벗었습니다. 검은 머리칼과 구레나룻에 뒤덮인 쌀쌀한 표정의 창백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밀라디는 그 얼굴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돌아서서 벽에 달라붙었습니다.

《아니, 그럴리 없어. 그 사람이 아니야, 이건 유령이야.》

그는 머리를 부르르 떨면서 미친듯이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모두들 물었습니다.

《이 녀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릴의 사형집행인, 릴의 형무관, 아,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밀라디는 마루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사시나무떨듯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 녀자의 말대로 나는 릴의 사형집행인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붉은 만또를 입은 사나이는 그 녀자를 쏘아보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형무관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성직자였습니다. 그때 밀라디는 랑플마르수도원의 수녀였습니다. 동생은 그 수도원에 드나들었습니다. 밀라디는 형무관의 동생을 꾀여 수도원의 기발을 훔쳐내게 했습니다.

밀라디는 용케 도망쳤지만 형무관의 동생은 붙잡혔습

니다. 그래서 형무관은 자기 동생에게 죄인의 락인을 찍어야만했습니다.

그뒤 형무관은 밀라디를 찾아내여 동생에게 찍은것과 같은 락인을 녀자의 어깨에 찍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옥에서 도망쳤기때문에 형무관은 동생을 도와주었다는 죄목으로 대신 옥에 갇혔습니다.

그사이에 밀라디는 라 페르백작과 결혼했습니다. 형무관의 동생은 슬픔에 잠긴 나머지 자수하였습니다. 그래서 형무관은 석방되였지만 그의 동생은 그날밤 옥속에서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사나이는 자못 서글픈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야기한 죄로써 이 녀자를 고발합니다.》

《다르타냥, 자네는 이 녀자에게 어떤 벌을 주기를 원하나?》

하고 아토스가 물었습니다.

《사형!》

《윈터남작, 당신은?》

《사형!》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는?》

《사형!》

밀라디는 무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토스는 오른손을 번쩍 추켜올렸습니다.

《샤를로트 박쏭, 할줄 알거든 기도를 드려라. 사형의 선고는 이미 내렸다.》

밖에서는 이미 비바람이 수그러들고 쪼각달이 떠올랐

습니다.
그 달빛을 받으며 릴의 사형집행인은 리스강가에서 밀라디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7

빠리시내는 버킹검공작이 암살되였다는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왕의 기쁨은 컸지만 왕비는 전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 포르트가 공작의 유물을 가지고 돌아오자 왕비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국왕이 다시 라로셸의 진지로 돌아갈 날이 왔습니다. 네 총사도 다시 왕을 따라갔습니다.
총사들은 네 사람 다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습니다. 전에없이 모두 침울했습니다.
행군도중 그들은 이따금 쓸쓸한 선술집에 들어가군했습니다. 그러나 술은 별로 입에 대지도 않고 그저 소곤소곤 이야기만 했습니다.
어느날 여느때처럼 네 사람이 선술집에서 식탁을 둘러싸고 앉아있을 때 라로셀쪽에서 말을 타고 달려온 한 사나이가 방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보시오. 거기 있는게 다르타냥님이 아니요?》
다르타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섬광처럼 번쩍 빛났습니다.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그 사나이, 로슈포르백작이였습니다. 다르타냥은 칼을 뽑아들고 밖

으로 뛰여나갔습니다. 사나이는 달아나려고 하지도 않고 말에서 뛰여내려 다르타냥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야 붙잡았구나. 이번엔 놓치지 않을테다.》
《나도 달아날 생각은 없네. 오히려 이쪽에서 자네를 찾고있었으니까. 나는 국왕의 이름으로 자네를 체포하네. 자, 그 칼을 이리 주게.》
로슈포르백작은 오히려 거들먹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르타냥을 어쩌자는거요?》
아토스가 앞을 막아나섰습니다.
《리셜리총리각하에게로 데려갈것이요.》
《리셜리총리님한테로?》
아토스는 다르타냥을 힐끗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길이 서로 마주치는 순간 그들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야릇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렇소. 내가 다르타냥을 호위병의 손에 넘겨주면 그가 진지까지 데려가기로 되여있소.》
로슈포르가 대답하였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우리들이 다르타냥을 호송하겠소.》
아토스가 결연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소. 호위병을 대신해서… 총사로서 약속하겠소.》
로슈포르는 재빨리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포르토스와 아라미스가 금방이라도 칼을 뽑을 차비를 하고있었습니다.
로슈포르는 자기 혼자 넷을 상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

고 다르타냥을 아토스에게 맡겼습니다.

《자, 가세.》

아토스가 다르타냥의 어깨를 건드렸습니다. 세 총사는 진지안의 리셜리총리의 본부앞에서 다르타냥과 헤여졌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기다립세.》

세 총사는 리셜리더러 들으라는듯 큰소리로 웨쳤습니다.

다르타냥은 리셜리총리앞에 나섰습니다. 《넌 자기 죄를 알고있는가?》

하고 리셜리는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적과 내통하여 프랑스국왕을 배반한 죄, 국가비밀을 루설한 죄, 프랑스군의 작전계획을 실패하게 만든 죄… 알겠는가?》

다르타냥은 리셜리총리를 뚫어지게 쏘아보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고발한 사람은 어깨에 락인이 찍힌 녀자, 둘째번 남편을 독살하고 저를 독살하려고 한 녀자일테지요.》

《그건 도대체 누구의 이야긴가?》

《윈터부인입니다. 각하는 그 녀자를 믿고계셨지만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한 악마같은 녀자인줄은 모르셨겠지요?》

《만일 그 녀자가 그런 죄를 범했다면 거기에 맞는 벌을 주도록 하지.》

《벌은 벌써 주었습니다.》

《누가?》

《우리들이.》

《갇혀있는가?》

《죽었습니다.》

《죽었어? 그 녀자가 죽었어?》

리셜리는 믿을수 없다는듯 다르타냥을 쏘아보았습니다.

다르타냥은 보나시부인이 독살된 이후의 이야기를 모조리 했습니다.

《그럼, 자네들이 제멋대로 재판했단말인가?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된다는것을 몰라!》

리셜리는 비록 말은 엄했지만 얼굴에는 점직해하는 빛이 떠돌고있었습니다.

그는 열적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넨 용감한 청년이야. 그러니까 내 말에 놀라진 않겠지. 자넨 재판을 받고 처벌당할걸세.》

《다른 사람같으면 허가증을 가지고있다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만 <각하, 각오가 되여있습니다.> 하고 대답드릴뿐입니다.》

《뭐 허가증?》

리셜리는 무슨 말이냐는듯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허가증을 가지고있지요.》

《누구의, 무슨 허가증인가? 폐하의 서명이라도 있는가?》

《아닙니다. 각하의 서명입니다.》

《뭐 내 서명? 그건 무슨 소린가?》

《이것을 보십시오.》

다르타냥은 한장의 종이쪽지를 꺼내여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아토스가 밀라디에게서 빼앗은 그 쪽지였습니다.

이 쪽지를 가진 사람의 행동은 모두 내 명령에 의한것이다.

리셜리

리셜리는 쪽지를 움켜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윽고 그는 그 종이쪽지를 찢었습니다. 그는 책상앞으로 다가가더니 거의다 써넣은 한장의 양피지우에 무언가 두서너줄 보태쓰고 도장을 눌렀습니다.

다르타냥은 그것이 자기에게 형벌을 선고하는 명령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허가증대신 이것을 주지. 이름은 안적었네. 자네마음대로 적어넣도록 하게.》

다르타냥은 그 종이를 받아가지고 힐끗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뜻밖에도 근위총사대 부대장으로 임명한다는 임명장이였습니다. 다르타냥은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각하, 전 이런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세 사람의 친구가 있는데 이것이 만약 진심이라면…》

리셜리는 다르타냥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이 명령서는 자네마음대로 할수 있네. 비록 이름은 적

혀있지 않지만 이것은 내가 자네에게 주는것이라는것을 잊지 말게.》

다르타냥은 여전히 얼떠름한 기색으로 그자리에 우두커니 서있었습니다.

《로슈포르!》

리셜리총리가 뒤돌아서서 큰소리로 불렀습니다.

로슈포르는 곧 들어왔습니다.

《로슈포르, 나는 이 다르타냥을 친구로 삼기로 했네. 서로 마음을 풀고 인사를 하게.》

두 사람은 건성 인사를 하고 동시에 방을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아토스네들이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나? 무척 걱정하고있었네.》

아토스가 다르타냥에게 물었습니다.

《별일이 없었네. 오히려 칭찬까지 받았다네. 통 무슨 판인지 모르겠어.》

《이야기를 들려주게.》

《오늘밤에 이야기해주지.》

그날밤 다르타냥은 아토스한테 리셜리총리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총사대 부대장임명장을 아토스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아토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건 자네가 건사해두게. 그건 자네가 받은거니까.》

다르타냥은 포르토스에게로 갔습니다. 포르토스는 화려하게 수가 놓인 옷을 입고 거울에 제모습을 비춰보고 있는중이였습니다.

《포르토스, 그 옷도 좋지만 총사대 부대장복장은 어떤가?》
그렇게 말하고 다르타냥은 임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포르토스는 그것을 다르타냥에게 되돌려주면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생각이 없네. 나는 돈많은 한 과부와 곧 결혼하기로 했네.》
다르타냥은 그길로 아라미스에게로 갔습니다.
아라미스는 한창 기도를 올리고있는중이였습니다. 다르타냥이 임명장을 보이자 그도 도리를 저었습니다.
《고맙네만 나는 밀라디의 사건뒤로는 이런 생활이 싫증이 났네. 이 전쟁이 끝나면 이번엔 정말 신부가 되려네.》
다르타냥은 아토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모두들 거절이야.》
《그걸 이리 주게. 아무래도 그 자리엔 자네가 제일 알맞아.》
아토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임명장에 다르타냥의 이름을 적어넣었습니다.
다르타냥은 총사대 부대장이라는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였습니다.
버킹검공작이 죽었기때문에 라로셸의 적들에게는 지원병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들은 프랑스에 항복하였습니다.
포르토스는 총사를 그만두고 다르타냥에게 말한대로 돈많은 과부와 결혼했습니다. 아라미스는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아토스도 몇년뒤에 총사를 그만두고 시골로 갔습니다.

다르타냥은 로슈포르와 세번 결투하여 세번 다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다음번엔 죽이게 될지도 모르겠군.》

세번째 결투끝에 다르타냥이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방을 부축하려 손을 내밀자 상처를 입은 로슈포르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젠 이런 놀음을 그만두는게 좋을것 같네. 나는 자네를 친구로 삼고싶네.》

두 사람은 서로 흐뭇한 마음으로 얼싸안았습니다.

플랑쉐는 로슈포르의 도움으로 호위대의 중사가 되였습니다.

보나시는 안해가 죽은줄도 모르고 어느날 리셜리총리를 찾아갔습니다. 리셜리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부족한것이 없도록 해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날 보나시는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고말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여러분은 이 책을 단숨에 읽었으리라 믿습니다.
읽고난뒤 감상이 어떻습니까?
다르타냥과 그의 세 친구들인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의 뛰여난 용맹과 슬기, 두터운 우정과 의리가 가슴뜨겁게 안겨오지 않습니까?
총사가 되려고 빠리로 올라온 다르타냥은 불같은 성미를 지닌 열정적인 청년입니다. 그가 세 총사를 친구로 사귀는 과정을 돌이켜보십시오. 그는 또한 남달리 정의감이 강한 청년이지요. 그의 친구들인 세 총사 역시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의협심이 두터운 사람들이랍니다.
리셜리일당의 흉계를 짓부시기 위한 싸움에 함께 손잡고나선 다르타냥과 세 총사, 그들은 비록 성격과 지향은 서로 달랐으나 간악한 앞잡이 밀라디를 처단하는 마지막순간까지 변함없는 우정을 소중히 간직하고 얼마나 많은 위험한 고비들을 맞받아 싸웠습니까.
그들의 아름다운 인간미가 어떻게 드러나고있는가를 돌이켜보십시오.
그와 함께 리셜리일당이 어떤 인간들인가를 더듬어보십시오.
음흉한 모략가인 리셜리총리와 죄악으로 가득찬 밀라디의 악랄성, 돈에 환장이 되여 리셜리의 앞잡이로 굴러떨어진 보나시의 비렬한 품성이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국왕 루이13세는 또 얼마나 무능한 바보입니까?

참으로 이 소설은 흉악한 무리들을 타승한 참된 인간들의 대담무쌍한 용감성과 슬기, 고상하고 아름다운 우정을 감명깊게 보여준 작품이랍니다.

이 작품에서 비판적으로 보아야 할 점은 무엇일가요?

다르타냥과 그의 친구들은 누구를 위하여 그처럼 모험에 찬 투쟁을 벌렸는가요? 사실상 그들은 썩어빠진 지배층내부의 모순과 갈등 속에 말려들었을뿐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싸운것은 아니랍니다. 리셜리총리와 로슈포르백작에 대한 처리도 잘되였다고 볼수 없지요.

그리고 왕비와 버킹검공작의 애정관계도 우리의 비위에는 맞지 않습니다.

문학작품을 읽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이런 점들을 옳게 가려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난날의 문학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질수 있습니다.

세 총 사

낸 곳 금성청년출판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재판인쇄 1984년 10월15일

재판발행 1984년 10월25일

ㄱ—46403